

제429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5년11월10일(월)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2)
2.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3)
3.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라. 우주항공청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 다. 원자력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2) 2
2.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3)
..... 2
3.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17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라. 우주항공청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17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 다. 원자력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10시07분 개의)

○소위원장 조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저번에 KBS하고 EBS 결산심사를 안 했습니다. 그것 먼저 정리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기금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기금계획안 심의는 순서를 정해 줘야 밖에 계시는 분들이 시간을 좀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기정통부1차관실 그다음에 혁신본부, 2차관 소관 그다음에 방미통위, 원안위, 우주항공청순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행정실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혹시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지금 예산안이 너무 방대해서 그걸 다 보고할 수는 없고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 대체토론할 때하고 서면질의해 주신 것들을 미리 저희가 각 부처에 의견을 받았습시다.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저희가 의결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KBS하고 EBS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2)

2.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3)

(10시09분)

○소위원장 조인철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 이후로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미 자료를 다 받아 보셨을 텐데요. 사전에 저희가 KBS하고 EBS 의견을 받았습시다. 그랬더니 양 기관 다 동의, 전부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오셨습시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효율적으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위원님들이 의견 있는 항목 그다음에 기관에서 또 의견이 있는 그런 부분만 심사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시다.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출석한 KBS…… 지금 부사장님 나오셨지요? 부사장님 나오셨고요.

부사장님 포함해서 말씀하실 때는 회의록 작성 때문에 그러니까요 성함하고 직함을 꼭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께서 전체회의 또는 서면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 그 내용들을 KBS와 EBS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지적사항, 부대사항 등의 형태로 표현하는 게 KBS와 EBS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내용은 제가 제목하고 부대의견(안)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다만 KBS와 EBS는 다 수용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페이지, KBS는 결산 지적사항 10건, 정책질의 10건, EBS는 결산 10건, 정책질의 4건인데 지금 현재 KBS니까요 KBS 우선 하겠습니다.

KBS 1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경영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부대의견(안)은 2022년 이후에 당기순손실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2024년에 73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지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경영개선 방안, 성장성 제고 전략을 마련하고 재무구조 개선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수익기반 변화와 현금창출력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줄고 방송광고수입도 줄고 콘텐츠판매수입도 줄고 있어서 영업활동 현금창출력을 의미하는 EBITDA가 평균 440억 원 수준에서 2023년에 약 -40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으며 2024년에는 317억 원으로 적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KBS는 현금창출력이 지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정안정화 대책 마련, 방송광고 경쟁력 회복 및 디지털 광고시장 대응전략 제시, 해외 콘텐츠 유통망 확충 및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EBITDA 적자 전환 대응을 위한 현륜호름 관리, 비상조치 마련 등 중장기적인 재무구조 혁신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보시겠습니다.

수신료 통합고지 재도입에 따른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수신료 통합고지 방식 재도입에 대비해서 한국전력과의 업무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거나 또 수신료 관리, 민원 대응 조직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입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광고수입 감소 대응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BS 방송광고수입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24년은 1677억 원인데 전년 대비 290억 원 줄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라서 KBS는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시장 환경변화로 방송광고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타 지상파 방송사 대비 경쟁력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광고수익 회복과 시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실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지속되는 콘텐츠판매수입 감소에 따른 수익 기반 개선 필요 내용입니다.

KBS 콘텐츠판매수입은 2022년까지는 증가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으며 감소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상으로 콘텐츠 수익기반 회복을 위해서 제작비 확보와 투자를 확대하

고 그래서 콘텐츠 경쟁력도 회복하고 특히 IP 확보나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도 강화하고 미디어 환경에 대비한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KBS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6쪽입니다.

매출채권 건전성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KBS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중에 일반관리비 부분에 보면 전년 대비 상승률이 큰데 그런데 그중에 일회성 대손상각비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채권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대손상각비는 커졌는데 이런 채권 관리체계가 미흡한 게 아니냐.

그래서 KBS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실제 대손으로 확정되지 않도록 회수 관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매출채권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강화와 거래처 신용평가·모니터링 등 비용 증가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손상각비 급증 원인에 대한 진단이나 재발방지 대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자본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시설투자 여력의 약화 문제를 개선하라는 내용인데요.

KBS가 보면 2024년도에 방송시설 구축·고도화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또 건축경영을 하고 있는데도, 감액된 자본예산 편성했는데도 실제로 집행률도 저조합니다. 그리고 또 KBS 자본예산 집행 금액이 연간 감가상각비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투자도 매년 감가상각비 대비 33%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KBS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비투자의 지속적인 감소가 KBS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전략, 자본예산, 설비의 계획적 유지·보수를 병행을 해서 또 집행 과정 중에서도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수준을 충족하는 시설투자 목표치를 설정하고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경영 악화에 따른 출자기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출자기관이 반복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손실 부족에도 장부가치는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콘텐츠웨이브는 148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데 장부 금액이 0원입니다,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고. wavve Americas는 5년간 57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는 출자기관 재무 성과에 대해서 정밀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고 반복 손실이 지속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투자 지속 여부라든가 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장부가액이 실질 손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 재평가도 하고 OTT나 뉴미디어 등 신사업 투자기관의 경영 악화에 대해서 위험관리나 사전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 비율 미달 문제입니다.

KBS 장애인 법정 의무 비율은 3.1%인데 2024년을 보면 2% 정도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KBS는 공개채용 시에 장애인 초과 합격 제도 등 채용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법정 의무 비율을 준수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쪽입니다. 10쪽은 인력운영 개선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KBS가 광고수익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돼서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서 신규 채용을 조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실제 근무 인원도 현원하고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2024년을 보면 신규 채용이 1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퇴직자는 19년부터 보면 연평균 257명인데 전체 현원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규모 재조정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현원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들을 잘 조정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쪽은 정책질의 내용에 대한 부대의견 내용입니다.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수고하셨습니다.

KBS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KBS 부사장 김우성입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이번 지적사항과 부대의견을 소중히 여겨서 KBS가 공영방송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시정요구사항하고 부대의견 다 받아들이시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지상파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시청률 저하 이런 여러 가지 기술 변화에 따른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최근에 우리 케데헌 모멘텀에서 보듯이 이런 케이팝, K-드라마가 사실은 KBS라든가 그다음에 MBC나 또 최근에는 EBS의 이런 방송들로 해서 전 세계에 콘텐츠가 널리 확산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슨 프로그램이었지요, 뮤직뱅크 같은 것은……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뮤직뱅크 월드투어입니다.

○최형두 위원 제가 실제로 한 몇 년 전에 유럽 출장 때 프랑크푸르트를 잠깐 거쳤는데 뮤직뱅크 공연장에 차범근 선수가 유명했던 프랑크푸르트 축구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또 바깥에도 사람들이 줄을 설 만큼 엄청난 성황을 봤습니다. 그런 문화의 하나의 제국을 이루었는데 정작 지금 글로벌 OTT의 하청 기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도 노력하겠지만 KBS가 비상한 각오를 해서…… 무조건 시청료 이런 것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가 시청료를 올려 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 반발이 크기 때문에. BBC만큼 올려 줘도 부족할 판일 텐데 지금 시청료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국회로서도 지금 자산 활용 방안에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KBS 구성원들이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KBS를 그냥 좋은 직장, 공무원처럼 평생 보

장되는 직장으로 생각하고 매년 크리에이터 같은 그런 어떤 위대한 창작 정신이라든가 창의력보다는 그냥 급여 많이 받고 안정된 직장으로 생각한다면 정부가 도와줄 여력도 없지만 KBS 스스로가 계속 위축되는 효과를 가질 겁니다.

때문에 KBS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내부 경영에 이런 혁신, 예컨대 지난번에 매번 사장 바뀔 때마다 임직원을 비롯해서 다 급여를 줄이고 해 왔지요.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새로 임명된 사장님 말씀 들어 보면 너무 연봉이 높아서, KBS의 가장 큰 비밀은 KBS 임직원들의 연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크리에이터는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만한 걸 누려야겠지만 내부에서도 국민과 정부, 국회의 지원을 더 많이 받으려면 KBS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창작, 창의력, 케데헌 같은 이런 모멘텀을 세계적으로 확산시켰던 그런 열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드라마라든가 케이팝 공연에서도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니스(creativity) 같은 것을 좀 더 보여 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전히 시청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만 1억 5000만 인구가 여러 가지 위성 TV와 같은 방식으로 KBS 채널을 보고 있지요. 역시 대한민국 K-웨이브의 가장 큰 산실이자 중심임을 감안해서 그 1억 5000만의 수신 가구를 활용해서 우리 K-웨이브 다시, 케데헌으로 알려진 그것을 어떻게 구심력을 회복할 것인지 전략도 잘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이훈기 위원입니다.

KBS 관련해서 지난 국감도 그렇고 2년 연속 1000억 적자인데 박장범 사장은 상당히 태연해요, 거의 KBS가 침몰하게 됐는데.

그리고 작년 경영 보면 원래 지출, 제작비나 인건비 이런 거를 818억 더 깎았어요, 당초보다. 그래서 실질적인 적자는 1850억이에요,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계획을 보니까 제작비를 또 몇백억 깎고 다 깎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콘텐츠 경쟁력이나 광고수입 확대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제작비나 인건비를 깎아 가지고 이런 경쟁력이 나올 수 없는데 도대체 KBS는 생존할 수 있는 겁니까? 걱정이 돼요.

부사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작비를 최대한 방어하면서 좋은 콘텐츠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박장범 사장은 지금 경영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도 인정도 안 하고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경영계획을 보니까 경영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줄이고 그리고 무슨 송신소 하나 매각해서 100억 벌고 골프장 회원권 팔고. 이걸 경영도 아닌데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으면 KBS 이러다 문 닫게 될 것 같아요.

내년 경영계획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예,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제가 초안을 봤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사장인 박장범 사장의 인식의 문제예요. 1000억 적자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비용을 줄여 가지고 실질적인 1850억 적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자꾸 부정을 하고. 기본적인 인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경영을 제대로 하고 KBS를 이끌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내년 경영계획은 잘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알겠습니다.

○김현 위원 김현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예, 말씀하십시오.

○김현 위원 KBS 직원이 몇 명이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계약직도 있고 그런데……

○김현 위원 직원이 몇 명이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5000명…… 직원만 3600명입니다.

○김현 위원 그래서 뭐가 5000명입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계약직, 무기 다 포함하면 5000명입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직원은 3660명으로……

○김현 위원 그러면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은 KBS 직원이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직원·사원 구분이 좀 있습니다.

○김현 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직원은 3660명입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사원이 몇 명입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사원은 5000명입니다.

○김현 위원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편리한…… 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직원·사원 구분을 왜 합니까, 그러면? 사원은 직원이 아닙니까? 누구로부터 월급을 받아요, 그 사원은?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과거부터 그렇게 좀 나눠 왔었습니다.

○김현 위원 과거부터면 그걸 개선해야지요. 경영 개선하라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3700명이고 또 하면 사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책정할 때는 5000명으로 할 거 아니에요? 뭘 계산이 그래요?

그런 계산하는 데가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사원·직원 구분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정부기관에서, 준공영기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정부기관은 공무원은 예를 들면 공무원 인건비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부담금이 들어가든 어떤 형태로든 공영성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사원·직원 구분해 가지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제가 미처 못 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 위원 전문위원님,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 KBS처럼 사원·직원 구분해 가지고 5000명, 3700명, 대략 1500명 차이 나면 그게 얼마 규모인지…… 이렇게 계산한 데가 있습니까? 들어 보셨어요?

○전문위원 임명현 딱 지금 생각나는 건 없는데요.

○김현 위원 없지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김현 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이게 수천억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방만 경영 얘기하니까 3711명이라고 그러고 사원은 5300명이고 거기서 20% 감축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국감 직전에 박장범 사장이 2025년 3월 달에 발표한 내용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5378명에 20% 감축한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정원을 감축한다……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처럼 얘기할 거 아닙니까? 직원은 3711명이니까 감축된 거고요 사원은 5300명이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게 매년 국회에서 지적됐던 방만 경영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동안 사기를 한 거예요, KBS가.

그러면 어떻게 20%를 줄입니까? 어떻게 줄일 거예요? 어디를 줄일 겁니까? 그래서 경영 정상화하고 흑자로 전환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줄일 겁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현 위원 그러면 뭘 가지고 흑자로 전환시킵니까?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KBS에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요 지금 정원이 현원에 비해서……

○김현 위원 아니, 아까는 직원·사원이라고 구분했고 또 현원과 예정되는 인원의 차이가 존재하는 게 1500명이잖아요, 지금.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현 위원 지금 경영을 책임지는 부사장이 이 정도로 국회에 와 가지고 답변을 하면…… KBS는 주먹구구도 이런 주먹구구가 없어요. 50년 됐지 않습니까, KBS가? 공영방송 전환한 게 50년이 넘었잖아요. 52년이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52년 됐습니다.

○김현 위원 52년 된 공영방송사가 운영을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경영진 포함해서 사장에게 있지요? 그런데 1000억 이상 적자가 났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통합정수가 되면 해결되겠다라는 그런 감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이런 경영진을 갖고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부대의견이고 뭐고 KBS에 대해서는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방법이 없어요.

○소위원장 조인철 또 다른 위원……

의견 없으신가요?

수석전문위원님,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원래는 결산 지적사항의 부대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다거나 하면 그런 걸 받아서 나중에 소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저희들이 문구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지금 대체로 위원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지적사항이라고 부대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KBS도 우리 소위원회, 국회의 지적사항을

다 받아들이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소위원장께서 이렇게 결산승인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면 이 안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구만 나중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간사님이 지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김현 위원 불승인입니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데 어떻게 사소한 부대의견 몇 가지를 가지고 KBS 결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원장 조인철 결산은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 경영 전반에 대한 거는 다른 톨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님.

○최형두 위원 여당 간사님의 강력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소위원장 조인철 예, 기록으로 남기시고.

○김현 위원 이훈기 위원도 지적했습니다.

○최형두 위원 이훈기 위원도 지적하시고. KBS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라고……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제가 좀 부연을 하면 지금 우리 시정요구사항이나 부대의견을 쪽 한번 보시면 대체적으로 너무 부실하다, 수익은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재무관리 그다음에 정·현원 포함해서 인력 관리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 달라, 이게 요약하면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시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예.

○소위원장 조인철 그래서 아마 그거를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내년도 결산할 때 시정요구사항하고 부대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예.

○소위원장 조인철 그때 다시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경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톨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간사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김현 위원 예.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자구나 소소한 것들은 저희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김현 위원 확인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셨던 KBS 직원·사원·정원 이런 게 다른 기관도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지 국회 차원에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조인철 제가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사원이라고 한 거는 다른 기관에서 보면 예를 들면 비정규직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 직원은 정규직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예, 거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거의 비슷할 것 같고.

지금 정원이 5000명 명이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5400명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5278명인가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저번에 박장범 사장님이 취임사인가 기념사에서.

그리고 현원이 3700명 명인가 되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예, 직원이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한 1500명이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원하고 현원하고. 이렇게 인력 관리하는 동네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정원하고 현원하고 이렇게 큰 갭을 가지고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곳은 KBS 이외에는 본 적이 없고, 제가 공공기관을 많이 봤습시다마는 KBS 이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매달 정원을 바꾼다고 저번에 박장범 사장님인가 현안질의 때 하셨었잖아요. 그때 부사장님이 하셨나? ‘매달 정원을 바꾸는 기관이 또 있나?’ 속으로 혼자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김현 간사님이 질의하실 때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던 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거든요. 정원을 어떻게 매달 이사회를 열어서 바꾸는 건지……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렇지는 않은 거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예.

○소위원장 조인철 그럴 리가 없지요?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예,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KBS 경영에 대해서 너무너무 걱정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숙고하시고 내년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해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내후년 결산 때 다시 지적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KBS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방송공사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방송공사부사장 김우성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음, 한국교육방송공사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한국교육방송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직위 및 직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 김성동 부사장 김성동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3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EBS 결산 지적사항은 10건의 지적사항과 부대의견 그리고 정책질의 관련 지적사항이 4건 있습니다.

먼저 13쪽 보시겠습니다.

구조적 수익성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성을 제기하셨습니다.

EBS는 전년 대비 외형적으로도 성장하고 수익구조 개선 기반이 마련된 것처럼 지표

상으로는 보이지만 수익성 개선의 대부분이 교육보조금에 의존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BS는 외형적 성장과 수익구조 개선 기반을 토대로 해서 교육보조금 의존도를 조금 줄이고 자체 수익원을 확대하고 구조적 수익성 제고와 내실 강화 노력을 지속해서 재무적 안정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경영평가제도 개선 필요성입니다.

EBS 이사회의 구성 보면 임원 경영평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경영평가단 구성 방식을 할 때 보면 현재 외부평가단 구성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현재 임원진이 평가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EBS는 경영평가위원 7명 중의 3명이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는 경영평가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사회 구성원 등 EBS 구성원 등이 경영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중을 조금 축소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 자격요건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손익구조 분석을 볼 때 자립 경영기반 구축 필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2024회계연도 대비 수입도 증가하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해서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기는 했습니다만 실적 개선이 주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출판사업 확대 등의 요인이 크기 때문에 핵심 자원 기반은 조금 약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유동성은 단기차입을 통해서 충당해 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EBS는 단기적인 흑자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방송광고·수신료 의존도 감소에 대응할 장기적인 손익구조 개선, 콘텐츠 투자 위축 최소화를 위한 안정적 수익원 다각화, 조직 체질 개선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확립하라는 요구입니다.

16쪽입니다.

방송광고시장 위축에 따른 광고수입 감소 대응이 필요합니다.

22년부터 EBS도 방송광고 수입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방송광고 수입 비중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고주 유치 경쟁 차원에서 EBS의 특성상 한계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 정부재원으로 인한 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EBS는 방송광고 수입 감소에 대응해서 출판, 디지털 구독, AI·에듀테크 등 교육 콘텐츠와 연계된 수입원 그리고 공공·민간 협력사업 등 비영리 중심 수입원을 적극적으로 개발·육성해서 수익구조 개선을 지속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보조금 수입의 자원 다변화라든가 집행 부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4회계연도에 국고보조금 수입이 615억으로 전년 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손실도 감소했는데 디지털 교과서나 신규 보조금 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이 많이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16억 발생해서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2024회계연도 보조금 미집행 현황을 보면 EBS 고교강의라든가 자율적 수업

혁신지원 등 공익사업 등에 대해서 이월액도 발생하고 불용액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EBS는 단기적으로 보조금사업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용·이월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관된 논리입니다만 자체수익원을 확대하고 사업구조 고도화를 통해서 재정자립성을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18쪽입니다.

출판사업의 수요예측 강화 필요입니다.

출판사업이 매년 수익을 창출해서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자체 사업 수입의 한 47.8%를 차지하는 정도로 핵심 수익원인데 교재 제작비 관련해서 수요 예측 기반이 좀 미흡해서 연간 약 10만 부 정도 불용 교재가 발생하는 등 과잉 인쇄가 발생하고 또 폐기비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는 과잉 인쇄와 재고 비용을 줄이고 재고자산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수요 예측도 정교하게 하고 ERP 등 통합관리체계도 마련하고 내부 성과지표라든가 출고·재고 관리 개선책도 마련하라는 취지입니다.

다음에 19쪽입니다.

증정용 연구 교재도 수요예측 부재로 인한 과다 제작·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는 교사 중심의 연구용 교재 수요예측 체계도 마련하고 판매용 교재보다 연구용 교재가 우선 제공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증정용·연구용 교재의 실태점검도 하고 증정용 교재의 관리체계의 전면 개선을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20쪽입니다.

해외시장 방송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EBS의 문화콘텐츠부대사업 수입이 2024년 기준 약 111억 원인데 이 중 해외 수입은 약 5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EBS는 글로벌 교육콘텐츠 공급자로 해외시장 방송 수출 확대에 노력하라는 취지입니다.

다음, 20쪽 아래입니다.

임의적립금 감소 문제입니다.

EBS의 임의적립금이 2023년 150억인데 2024년에 0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임의적립금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재무적 위험이 증가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때문에 EBS는 미래투자나 사업확장에 활용될 수 있는 내부 자금원이나 적립금 감소로 인해서 여러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입니다.

21쪽입니다.

보조금 관련 법적근거를 보완하라는 내용입니다.

EBS가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EBS-SW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방송공사법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용할 수 있는데 그 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수용하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법상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2쪽은 정책질의 관련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수고하셨습니다.

EBS 측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 김성동**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위원님과 전문위원님들의 지적 사항 받아들이고 개선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이해민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해민 위원** 예, 짧아서.

○**최형두 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20페이지에 김현 간사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들으셔서 임의적립금이 2023년도 150억 5000만 원에서 2024년도 0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 10% 감소, 20% 감소, 많이 가봤자 50% 감소 이러면 이해가 좀 되는데 이거는 100% 감소잖아요. 이번에 밑에 아무리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해도 가장 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이유를 아셔야지 대책도 마련도 가능할 것 같아서요.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 김성동** 저희가 2023년도에 적자액이 183억 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메우는 과정에서 임의적립금 150억 원을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50억을 사용해서 임의적립금이 없어진 상태였는데 작년에 소액이지만—저희로서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16억 흑자를 하면서 한 13억 정도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올해도 흑자 규모가 대략 추측되는 게 작년보다는 늘어난, 최근에 자체 결산, 이번 주 저희가 자체 결산을 하고 있는데 한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돌발 변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대법원 판례로 통상 임금, 각종 수당이 더해지는 판례가 있어서 퇴직충당금이 갑자기 70억 정도를 더 넣어야 되는……

○**이해민 위원**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

이게 이렇게 널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대책 마련하실 때 어느 정도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까지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 김성동** 예.

○**소위원장 조인철**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 여기 이미 지적됐지만 18쪽 보면 지금 100만 부 정도나 되는 불용교재가 발생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예측 실패인지 아니면 이게 실패가 아니라 그냥 이래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출판 비용이 있으니까 출판예산 짜다 쓰고 했는데 이것 엄청난 낭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나무만 해도 산을 몇 개나 치웠지 않겠습니까. 그보다는 이렇게 불용교재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고 여기에 보니까 ERP 등 통합관리체계 마련해야 되지만 요즘 출판이 아주 쉽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아주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저는 출판·발주하는 과정에서 무슨 비리가 있나 의심될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 김성동** 출판교재가, 저희가 입시 위주의 출판교재 특성상 좀……

○최형두 위원 근데 몇백만 부씩 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이게 쌓아 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 국회를 꼭 채울 겁니다.

그리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태블릿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작년에 AIDT 교과서가 논란 끝에 참고 교재로 안 됐는데 예컨대 교재인세 비용을 줄이고 교재를 좀 더 보급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디지털화했다면 이미 학교를 통해서 많은 태블릿을 보급받은 학생들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훨씬 다이내믹하게 교과서를 구성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이해도에 따라서 바로 넘어간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부대의견에 단 것처럼 통합관리체계와 이것을 모두 종이로 만들 것이 아니라 종이는 불가피한 경우에 정말 수요탄력적으로 하고 디지털로 만들어서 오히려 단가를 낮추고 그 혜택을 EBS 교재가 비싸서 그것도 못 사 보는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사 볼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십시오.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 김성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0쪽입니다.

20쪽에 보면 이해민 위원도 봤고 이훈기 위원님도 우리 최수진 위원이나 박충권 위원 모두 다 때때로 잘 만든 콘텐츠도 있고 이거 같으면 세계적 수출 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이게 5억밖에 안 됐다는 게 좀 의아할 지정입니다. 일부러 수출 안 하려고 노력하신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최근의 몇몇 프로그램들을 보면 세계적 석학들이 나왔을 뿐 아니라 요즘은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많지만 한국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은 전부 영어로 다 합니다. 무슨 유명한 석학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한글 더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국 더빙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팔 수 있을 텐데 BBC 다큐멘터리 같은 것 다 보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EBS가 국내 문화콘텐츠사업이 약 111억인데 해외수출 수입이 5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잘 만든 콘텐츠를 글로벌시장에서 판촉하는 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김현 간사님.

○김현 위원 EBS가 직원이 몇 명이에요?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 김성동 직원이 저희 7월 말 기준으로는 557명입니다. 법정정원은 701명입니다. 144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현 위원 잠깐만요, 정원이 557명이고……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 김성동 정원은 701인데 현원은 557명입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정규직·비정규직으로 구분하나요, 여기도?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 김성동 비정규직들이 과전직……

○김현 위원 그러면 직원인가요, 사원인가요? 비정규직을 직원으로 보는……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 김성동 직원으로, 예.

○김현 위원 사원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직원하고 사원으로 구분해서 비정규직·정규직 이렇게 안 하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 김성동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구분을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김현 위원** 그러니까 EBS 직원이 몇 명이고 사원이 몇 명입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 김성동** 제가 정책센터장 도움받아도 될까요?

○**한국교육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 홍정배** 방금 말씀드린 현원 557명은 임원 3명과 정규직 직원을 합한 숫자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은 계약직과 파견직이 있습니다.

○**김현 위원** 몇 명입니까, 그러면?

○**한국교육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 홍정배** 계약직은 한 101명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 홍정배** 정규직은 557명이 있고요. 계약직은 101명이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계약직은 직원이 아닙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 홍정배**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에 포함한 정원의 개념으로 현원을 말씀드릴 때는 정규직만을 말씀드린 거고요.

○**김현 위원** 지금 EBS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네요. 그러면 계약직이 사고가 나면 이 사람은 직원입니까, 사원입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 홍정배** 지금 EBS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직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포함 안 시키고 이렇게 정원 관리를 하지요? 그러니까 EBS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 홍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658명이 되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원래 정원은 몇 명입니까?

○**한국교육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 홍정배** 701명입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43명이 부족분이라는 거잖아요. 43명이 100%에서 안 채워진 거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 홍정배** 예.

○**김현 위원** 통일하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KBS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사원, 직원을 구분하는 거예요. 정원하고 실제 인원을 또 구분하고. 이게 MBC 오요 안나 사건이 있었던 거잖아요, 비정규직. 그런데 사원이잖아요, 직원이잖아요.

○**한국교육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 홍정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여기 보면 방송광고 계속 축소된다고 해 왔는데 2021년 261억 2024년은 얼마고 작년은 얼마였어요, 방송광고?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 김성동** 24년도는 222억, 작년은 200억이었습니다.

○**이훈기 위원** 지금 어느 EBS는 주로 어느 프로그램에 광고가 붙어요?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 김성동** 액수가 많이 나오는 거는 세계테마기행이 가장 많이……

○**이훈기 위원** 광고가 그렇게 붙는 걸 많이 못 본 것 같긴 한데 여기 다 결합판매하고 있지요, 지금? EBS 광고 결합판매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 김성동 예, KOBACO에서 KBS와 결합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이것도 헌법소원에서 위헌판결 나면 방송사들이 다 비상인데 EBS는 뭐 대책이 있어요?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 김성동 죄송합니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훈기 위원 이것은 좀 심각한데 대책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아까 최형두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교재 100만 부가 불용돼서 이게 비용이 얼마나 돼요, 폐기한 것? 총 적은 교재가 몇 부예요? 몇 부고 그중의 100만 부를 폐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 김성동 폐기비용은 28억입니다.

○이훈기 위원 폐기비용이 28억……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 김성동 불용교재의……

○이훈기 위원 교재의 100만 부 비용이 28억이요?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 김성동 예.

○이훈기 위원 폐기 비용도 일부 들어갔겠고. 총 교재는 얼마나 찍어요?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 김성동 저희는 지금 한 1000여 종 가깝게 찍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1000만 부요?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 김성동 종류가 1000여 종……

○이훈기 위원 아니, 지금 100만 부를 폐기했다 그랬잖아요. 총 찍은 건 몇 부냐는 거지요.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 김성동 8800만 부……

○이훈기 위원 800만 부요? 800만 부 중의 100만 부를 폐기했다는 거지요? 이게 2024년에, 그 후에 올해는 폐기한 건 없나요?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 김성동 현재까지 폐기율을 계속 줄이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고 있는데요. 22년도 12.4%에서 23년도는 저희가 8……

○이훈기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이 폐기가 더 많았었네요. 엄청나네요.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게?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 김성동 예측을 나름대로는 할 하고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더 줄여 보도록 애쓰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이것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광고 문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 김성동 예.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그 교재 100만 부 폐기는 너무 심한 것 같네요, 아무리 봐도. 800만 부 찍어 가지고 100만 부를 폐기한다는 아무리 예측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올 수는 것 같은데 좀 잘 해 주세요.

○한국교육방송공사부사장 김성동 예.

○소위원장 조인철 지금 심사자료대로 EBS에서 전부 수용을 하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 감안해서 저희가 미세한 자구들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국교육방송공사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 여부와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라. 우주항공청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다. 원자력기금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10시57분)

○소위원장 조인철 의사일정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과학기술진흥기금·원자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중 1차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구혁채 1차관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본인의 소속과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차관 및 혁신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자료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조실 내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총액대상 인건비를 760억에서 2억 8900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방미통위 그리고 전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과학기술인공지능협력관실 신설 31명 등을 감안해서 2억 8900만 원 감액하자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총액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이게 진흥정책관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됐으니까.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인공지능정책기획관 기본경비, 총액비대상 인공지능정책기획관 기본경비.

그다음, 3쪽입니다.

총액대상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기본경비 그다음에 총액비대상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기본경비. 그다음에 8번을 보시면 총액비대상 정책기획관 기본경비는 부총리, 대변인 등 직급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업추비 일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다 수용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들어 보시면……

○최수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수용하는 것은 다 읽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소위원장 조인철 일단 보고는 받고……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위원님들이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시는……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분들 의견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최형두 위원 수용하는 것은 그냥 다 넘어가고……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일단 보고는 받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국제협력관도 할까요?

○소위원장 조인철 다 하셨어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아니요, 그러면 국제협력관도 같이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기조실 것 다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다 하겠습니다.

자료 4쪽 보시겠습니다.

국제협력관의 국가간 협력기반 조성사업인데요.

2026년 예산안이 499억 3400인데 22억을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연구안보 정책지원센터라든가 거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22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이야기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위원장님, 정책기획관 소관 8건, 국제협력관 1건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에서 주신 자료 전부 다 받으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받으셨으면, 이런 경우는 거의 흔치 않은 일 중의 하나입니다. 구혁채 차관님께서 큰 결단을 내려서 편하게 지금 수용 여부까지 다 주신 검토의견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심사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한 것은 수용하는 대로 넘어가고 그중에 혹시 이견이 있으신 경우에 위원들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다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넘어가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혹시 지금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명현** 다음, 보고자료 5쪽입니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입니다.

1번 바이오·의료 기술 개발 관련해서 차세대 고리형 펩타이드 디자인 플랫폼 조성 및 상용화 기술 개발을 위해서 36억 원 증액, 고난도 위험질환 극복 AI·로봇 융합기술 개발을 위해서 45억 증액 그리고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ISP 수립 용역비 20억 증액.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어집니다.

6쪽에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센터 구축에 5억 증액 요구가 있었고요. 차세대 식물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에 40억 증액, 뇌 오가노이드 상용화 플랫폼 구축에 6억 원 그리고 당뇨병 콩팥병 질환 진단, 치료 방향 제시를 위해서 41억 6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7쪽입니다.

2번 AIBio 혁신 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 관련해서 ISP 수립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99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었습니다.

3번 개인기초연구사업입니다.

기본연구비 1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4번 집단연구지원 관련해서 글로벌 선도연구센터에 필요한 140억 증액 의견입니다.

8쪽 5번입니다.

기초연구기반 구축 관련해서 원안 유지 의견이 있었고요.

6번 국방양자암호통신 복합센서기술 개발을 위해서 15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 양자HCT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실리콘 기반 양자 메모리 플랫폼 확보를 위해서 5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8번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 37억 39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9번 양자기술 성능시험 환경 구축을 위해서 147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번 양자기술 전환·확산 거점(퀀텀밸리) 조성을 위해서 2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11번 유전자·세포 선도화 전략설계 및 정책연구 사업과 관련해서 선도화 전략 플랫폼 설계비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쪽, 12번 퍼지컬 AI 기반 메카노바이오 소재 자율협업제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13번 SDV 대응 가혹환경극복 자동차반도체 핵심IP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서 50억 필요하다라는 의견.

14번 양자연구 표준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서 3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5번 AI 기반 경계성 대상자 조기 예측·중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서 28억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16번 X선 간섭 노광장비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서 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아테이론물리센터 지원을 위해서 13억 9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3쪽입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양자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해서 70억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4쪽 기타 특이사항 관련 사항입니다.

한국나노기술원 지원을 위해서 당초 정부안에는 정책지정출연금 비목으로 편성된 것을 기관운영출연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1번 개인기초연구사업의 회계연도 일치 원칙 예외를 위해서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2번은 개인기초연구사업의 기본연구 A와 B를 내역사업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6쪽, 3번 개인기초연구사업의 연구생애주기 파이프라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4번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사업의 타당성 검증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위원장님, 전체 19건 중에서 저희가 한 5건 정도 일수 수용 의견이 있고요. 부대의견 1건 포함해서 총 6건 정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바이오·의료 기술 개발사업 중에서 세 번째에 있는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20억 증액을 말씀 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 구체화를 위해서 사업기획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 원 정도를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최형두 위원님께서도 동 사업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사업기획 연구비 5억 원을 제안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는 오송 침복단지 라든가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같은 기존 사업과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개인 민감 데이터가 다뤄질 경우에 보호방안 등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가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정책용역비를 그런 성격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AIxBio 혁신 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원안유지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ISP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김장겸 의원님의 지적이 있으십니다만 동 사업은 우선 공모를 통하고 컨소시엄을 선정한 후에 시설·장비 시스템 같은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ISP를 하고, 그때 이후에 ISP를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으로 봐서 동 사

업은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7번 양자ICT 기술 개발사업입니다.

55억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는 10억 원 정도를 수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10억 원은 동 사업에서 관장하는 양자 메모리라든지 소부장 관련 내용이지만 그 10억을 제외한 45억은 양자컴퓨터를 도입하는 건데요. 이 사업은 이미 양자 컴퓨터를 저희들이 표준연이라든지 KIST에서 지금 준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부분은 이 사업과 맞지 않아서 우선 10억만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2번입니다.

피지컬 AI 기반 메카노바이오 소재에 관한 사안인데요. 이 금액은 수용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한정해서 공모하는 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방형 공모로 오픈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15번입니다.

AI 기반 경계성 대상자 조기 예측에 관한 건데요. 이 역시도 금액은 수용합니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공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번 X선 간섭 노광장비 같은 경우에도 50억을 제안 주셨는데 X선 간섭 노광기술은 굉장히 첨단기술인데 기초원천기술을 먼저 개발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더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부대의견입니다.

4번,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이고 이해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는데요. 지적 주신 내용 중에, 저희는 이 지적을 수용합니다만 현재 이 사업 신규사업이 내년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 주신 내용 중에서 '신규사업의 추가 배정은 보류하며' 이 부분은 내년 사업 신규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최수진 위원 질의 좀 한번 할게요.

아까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의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떤가요? 취지는 정말 새롭고 우리가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 사업이 되어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문제 사업이라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는 한계도전 프로젝트의 PM이 책임PM이라 해 가지고 권한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획·평가·관리에 있어서 기존의 PM보다는 온전한 권한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과도한 PM의 권한을 어떻게 하면 잘 제어할 수 있느냐 그런 데 대한 의견을 주시는 겁니다.

○최수진 위원 R&D의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서 사실 누군가의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성과가 좋고 해외에서는 이미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프로세스만 잘 정리가 되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한계도전 R&D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기부에서 그것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주는데 어떤 프로세스나 어떤

절차나 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과기부의 책임이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수립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소위원장 조인철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안 그래도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자구수정 요청을 하셨는데요. 신규사업 추가 배정 보류 그 부분을 빼 달라는 말씀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이해민 위원 그러면 저는 한 가지를 덧붙이겠습니다.

최수진 위원님 지금 발언하신 거랑 결을 같이하는 건데 과기정통부에서 관리 체계가 처음부터 제대로 됐었나, 원래의 목적 취지를 반영하는 관리 체계였나 싶어서, 그렇다면 예산이 함께 따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특징상 저는 이게 수시배정 방식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수시배정 방식으로 예산 관리해서 문제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위원님, 사실 이 사업은 28년까지인데 계속사업 계속과제로, 과제는 이미 뽑혔습니다. 뽑혔기 때문에 과제가 진행되고 있어서 신규 과제를 뽑을 유인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배정으로 묶어 주시게 되면 기존 과제들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제를 진행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신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오셔야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대신 위원님 저희들도 이 한계도전 사업 상당히 시범적으로, 의욕적으로 시작을 한 건데 이게 기재부랑 얘기하면서도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500억 이하의 사업으로 담긴 것이고요. 5년을 테스트해 보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근거법을 마련하려 했는데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선 어떠한 문제점을 저희가 캐치를 한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부령으로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꼭 운영하면서 모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모아 가지고 별도 법령까지도 제안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사업이 지금 절반 이상 진행이 됐고 신규 과제가 없는 점을 감안하셨을 때 이 사업을 통해서 최대한의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약간의 여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을 지금 다 발견을 하셨다고 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습니다.

○이해민 위원 자구를 조금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발견한 것을 명확하게 다……

○최수진 위원 대처 수립……

○이해민 위원 예, 그것을 다 리스트업을 하시고 그 문제점을 없앨 수 있는 대책 수립이 된 상태가, 그게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이걸 시범사업 언제 끝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직무대리 윤경숙 28년에 끝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28년에 끝나고, 그러면 원래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시범사업이 끝나기 전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평가를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지 말아야 될지를 평가를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것은 언제 하실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직무대리 윤경숙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계평가를 금년 하반기에도 진행을……

죄송합니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국장 직무대리로 참석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28년도에 끝나고요. 저희가 이번 해 말에 단계평가를 할 예정인데 거기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문제 되는 사업은 중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형식으로 문구가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이것은 과기부에서 제안한 대로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별도 보고하는 걸로 하시지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임명현 단계평가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문구를 넣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예.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쭙볼게요.

아까 11페이지의 16번, 일부 수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금액은 받아들이고 사업 방식만 좀 바뀌 달라 이런 것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이게 노광 장비 같은 경우에 광으로 하는 기술이 상당히 첨단기술이라서 기초원천연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전문위원님, 이것 금액은 50억입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예, 맞습니다.

○최수진 위원 기초연구에 50억이면 많은 것 아닌가, 1년인데 예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러니까 기초연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장비라든지 응용연구까지도 하는데요. 기존에는 응용연구만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앞단을 좀 해야 됩니다.

○최수진 위원 상관없다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최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또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다음, 미래인재정책국입니다.

17쪽입니다.

1번,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과 관련해서 명예의 전당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10억 1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2번,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지방 이공계 우수인재 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3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운영 확대를 위해서 17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었습니다.

18쪽입니다.

3번, 인재활용확산 지원사업에서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9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4번,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사업입니다.

창의재단 내의 기관고유사업비 2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5번, 국가과학자 지원사업은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국가과학자 선정 지원을 위해서 11억 증액하고 36억 증액이 각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6번,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카이스트 부설 충북 AI BIO 영재학교 신설을 위해서 147억 증액 요구하고 95억 7700만 원 증액, 2건이 있었습니다.

7번, 과학기술원 부설 우주항공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해서 10억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8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위해서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었습니다.

20쪽입니다.

9번,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180억 증액 요구가 있었고 10번,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는 GIST 부설 AI 영재학교 설립을 위해서 11억 원 증액 요구하고 37억 15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분야, 신설 학과 교육 등을 위해서 9억 6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지역과학 AI 융합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400억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11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시설 지원사업에서 산업 AX혁신허브 구축 설계비에 9억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노후기반시설 교체사업에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2번, 광주과학기술원 시설 지원사업에서 사이언스플라워 건설 설계비 예산 1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22쪽 13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에서 장학금 지원 단가 확대를 위해서 146억 25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14번,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해서 32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항입니다.

1번, 국립 법인 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국립광주과학관 주차타워 조성비 76억 그리고 실증센터 조성비 1억 7500만 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과학관 관련해서는 노후 시설 개선 그리고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2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구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40억 증액하고 천문대 리모델링 설계비 4억 원 각각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과학관 건립 사업에서 국립제천과학관 건립을 위해서 2억, 국립나주과학관 건립을 위해서 5억, 국립전주과학관 조성을 위해서 20억 각각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해서 76억 2200만 원과 51억 8200만 원 각각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26쪽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카이스트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예산내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앞서 불요불급한 예산 188억 원을 확보해서 무기계약직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투입하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수용곤란 4건 포함해서 11건 정도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2번,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에 관한 사항으로 박충권 위원님께서 지방이공계 우수인재에 관한 30억 증액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 금액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할 때는 지역에 한정돼서 하기는 좀 어렵고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 시행 주체와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페이지 4번,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내용을 창의재단의 기관고유사업 2억 원 증액을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기관고유사업보다는 이미 있는 저희 본부의 과학문화확산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다 생각이 돼서 이 금액은 본부의 과학문화확산사업으로 돌려 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5번, 국가과학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자료 배포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대통령께서 국민보고대회를 거치면서 이공계에 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 도입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현재 요구 개요에 있듯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리더급 20명 그다음에 젊은과학자 현재로서 3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것들 다 포함했을 때 내년도 신규로서는 총 4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박스를 보시면 20명을 우선 뽑고 300명을 우선 뽑는 절차를 하기 위한 기획비 그다음에 관리하는 인력 인건비, 선정평가비 등등을 포함한 기획평가비가 있겠고요. 내년에 뽑힐 20명의 리더급 인원에 대해서 1명당 1억 원씩 연구활동지원금을 포함시킨다면 이것이 총 42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부 내용은 우선 첫 번째, 1번이 있습니다만 리더 20명, 젊은과학자 300명에 대해서 이분들을 뽑기 위해서는 예전에 최고과학기술인상 등을 고려했을 때 뽑는 비용이 2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22억은 뽑는 과정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리더급 연구활동지원금은 20명 뽑힌 이분들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총 4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또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6번,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147억에 대한 의견과 95억 7700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충청도와도 이미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26년도에는 95억 7700만 원 증액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돼서 두 번째 안 95억 부분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과학기술원 부설 우주항공 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곤란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10번,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중 과기원의 지역 AI 거점 400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액은 수용하겠는데요.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만 과학기술연구회(NST)의 AI연구소 등 타 사업과의 차별성 등을 검토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14번,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관한 건입니다.

이 역시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곤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국립 법인 과학관 운영에 있어서는 첫 번째, 국립광주과학관의 주차장 관련 사항입니다.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만 예전 사례를 봤을 때 내년도에는 우선 실시설계비 3억 5000만 반영을 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지방비 매칭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립광주과학관 운영에 따른 광주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사항인데요. 금액은 수용하겠습니다만 아시겠습니다만 도심융합특구 실시계획이 아직 미확정된 상태이고 특구 조성 비용은 사업 시행자인 광주시가 부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사업에서는 연구용역비 1억 7500만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역과학관, 첫 번째 제천전문과학관과 두 번째 나주에너지전문과학관, 2건도 1 광역, 1 과학관이라는 기본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수용 곤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이주희 위원님과 최형두·황정아 위원님께서 여성과기인에 대한 제안을 주셨는데요.

76억 원과 51억 원 두 안 중에 76억 2200 이 내용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 부대의견입니다.

김현 간사님, 최민희 위원장님이 의견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 주신 것 중에 시급하지 않은 사업과 경상운영비 절감을 통해 188억 원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내용은 수용을 합시다만 이렇게 경상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액할 경우에는 여러, 학사 운영이라든지 조교 수당, 급식보조비 등등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간접비라든지 별도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진 위원님.

○최수진 위원 지금 7번하고 14번 같은 경우 과학영재학교나 학교들을 만드는데,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우리나라 과학의 미래가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특화산업이나 그런 영재학교를 통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구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이것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다음에 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의 과학영재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어떻게 배치할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산업이 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주항공에 한한 과학영재학교를 만든다든가 그러면 꼭 그 지역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주항공이나 우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넓혀서, 이걸 당장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한번 기획을 하고 보고서나 이런 걸 통해서 가치가 있는지 그 판단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새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과학고나 기존 학교를 인수해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김현 간사님.

○김현 위원 김현입니다.

최수진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혹시 결과치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영재를 어떻게 육성할 건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같은 게 과학기술부에 없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과기부 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영재학교, 과학고 포함해서 전체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추가로 설립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연구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하느라고 최종보고서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올해 말까지는 저희가 결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획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최형두 간사님.

○최형두 위원 저도 최수진 위원에 이어서 그리고 또 존경하는 김현 간사님 말씀 이어서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것 너무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학령인구 감소야 그렇게 치면 전국에 다 안해야지. 이런 이유를 대는 건 정말 모독입니다, 모독. 이런 기획예산을 낸 사람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고교생 인구 주는 게 경남만 줘니까, 다 줄지? 우주항공산업에 무슨 평

장히 큰 적대감을 갖고 있다 이런 인식을 줄 정도로 오만한 평가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과학기술원 부설 우주항공 과학영재학교를 해 달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걸 해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주항공청에서 오늘 왔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귀국하신 존 리 같은 분도 그렇지만 여기에 사실은 NASA 출신의 과학자들, 엔지니어들도 와 있습니다. 그분들뿐 아니라 지금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KAI가 우주항공청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누리호 종합 발사체 사업 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인근 창원에 있고 그 우주발사체를 위한 기계산업 전체의 70%가 지금 경남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주항공에 대한 꿈을 키우고 어릴 때부터 그쪽 분야에서 공부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여러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저하는 이유는 압니다. 이걸 학교마다 지으면 너무 고정 경비가 많이 들어요. 학교를 새로 지어야 되고 또 교사도 배치해야 되고 여기에서 우주항공청이나 역내에 있는 회사들 보고서, 경상남도도 하여금 좀 색다른…… 이 건물 짓는 데 돈 들이지 말고, 고정 경상비용 유지하는 데 돈 들이지 말고 굉장히 우수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네르바대학이나 태재대학 같은 경우 보면 캠퍼스 없이 학생들이 이동형으로 공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우주항공산업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였다고 한다면, 우주항공의 기본은 KAIST라든가 여기서 하고 또 어디서든 칼텍에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이런 방식으로 우선은 인하우스(in-house)의, 우주항공청 그리고 항우연에서 근무하는 박사들이 가르치고 이런 방식으로…… 이분들이 바쁘는데 꼭 사전에까지 와서 안 가르쳐도 돼요. 이런 다양한 방식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고 이걸 수용 곤란이 아니라 적극 검토로 가셔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경상남도만 감소합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 깎아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정말 모독적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경상남도하고 우주항공청 있는 지역에서도 또……

지금 인재들이 내려오는데, 여기 교육이 안 되면 안 내려옵니다. 고등학생들, 우수한 인재들도 그 자녀들이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예컨대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오는데 자기가 자기 아들한테 최고의 교육을 만일 여기 학교에서, 온사이트(on-site)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또 좋은 과학인재 유치 여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24쪽의 지역과학관 건립 문제 이걸 존경하는 조인철 위원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임했는데 이걸 그냥 수용 곤란으로 했는데…… 1도 1개, 광역자치단체급 1개 지역에 1개씩 하는 그 원칙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갖다가 좀 발상을 바꿔서, 예컨대 전라도 나주가 처음부터 땅파기부터 다 해 달라고 그런 거면 나는 사실 곤란하다고 봅니다, 국가 예산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전남 나주가 적합한 장소에서 땅과 건물을 대줬다 그리고 우리도 일정한 비용의 매칭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더구나 나주가 지금 전남도청 소재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역에서 창의적인, 지역의 자산을 발판으로 정부의 프로그램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이 지금

이제는 무슨 큰…… 누리호라고 누리호 그 모델을 다 갖다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디지털로 또 AI 또 버추얼로 해서 다 보여 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더 생생한 체험이 될 겁니다, VR·AR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역의 유희시설,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이나 공간을 제공하고 그럴 경우에 과학기술 창달을 위해서 과기부는 이런 새로운 과학관의 개념을 가지고 적극 하는 것……

예컨대 마찬가지로 경남도 그렇습니다. 경남도 지금 국립과학관은 진주에 가 있어요. 그런데 도청 소재지인 창원엔 없습니다. 그런데 창원에 굳이 지을 수는 없겠지요, 진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창원 시내에 있는 큰 대형 건축물을 창원시나 경상남도가 추가로 제공하고 여기에 일정한 어떤 매칭을 한다고 한다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디지털자산 또 AR·VR 기술을 이용한 최고의 과학전시관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나중 문제도 해결되고 또 저희 같은 창원, 도청 소재지인데도 국립과학관이 없는,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인데, 더구나 여기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도로 배당하다 보니까 나주는 도청 소재지인데도 없고 창원도 도청 소재지인데도 국립과학관이 없습니다. 이미 다른 한 지역에는 있고.

그래서 1도 1과학관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과학관들을 널리, 그것도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건물과 부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고정 비용을 국가가 쓸데없이 투자할 필요 없이 운영비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최고의 과학관을 제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주와 함께 도청 소재지임에도 과학관이 없는 창원 같은 곳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조인철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저는 18페이지의 5번, 지금 자료 추가로 제공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지금 의견이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그것 말고 결론적으로 42억 원 증액을 해달라는 게 요청이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이해민 위원 중요한데, 이것만 보면 현재 정해진 것은 사람 숫자하고 얼마씩 하겠다 말고는 정해진 게 딱히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1억을 언리스트릭티드 버짓(unrestricted budget)처럼 사용하게끔 그냥 주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연구비가 아니라 연구활동지원금이라서요. 학술회의를……

○이해민 위원 그러니까 내년 1년 안에 다 써야 되는 그런 내용인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걸, 42억 원 계산을 해 오셨으니까 이걸 수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안에 써야 된다면 언제 선발하고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추가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위원님, 그게 예를 들어 내년 9월에 드린다고 해서 10월·11월·12월까지 쓴다는 건 아니고요. 1년 돌아서 내년 8월까지 쓰는 겁니다.

○이해민 위원 그러니까 받고 나서 1년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습니다.

○**이해민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지금 언제 선발, 어떤 평가 기준으로 선발할 것인가, 그래서 그 1년 동안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소위원장 조인철**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과학관 관련해서 여기 과기부 보면 1광역시 1과학관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1광역시 1과학관 원칙이 지금 안 돼서 과학관이 없는 데가 어디예요, 광역자치단체 중에? 전북만 없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지금 현재 없는 데가 전북·충남·충북·세종, 한 군데가 제주 이 5개 지역에는 없습니다.

○**이훈기 위원** 인천도 없는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수도권은 현재 빼고 나서 저희가……

○**이훈기 위원** 수도권은 빠집니까?

그런데 이게 원칙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혼란스러운 것 같거든요, 계속. 원칙이 1광역시 1과학관이면 확실히 이 원칙에 따라서 없는 데를 다 하든가. 이렇게 하니까 자꾸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원칙을 명확히 세워 갖고 그 원칙에 따라서 추가할 데는 추가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수도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저희가 전문과학관이라고 3개의 큰 범인과학관의 한 3분의 1 규모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에 하나씩 21년부터 지금 지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지금 이렇다는 거고요.

나머지 과학관, 그 이후로 확충은, 현재 저희 계획은 어린이과학관과 같이 어떤 과학관 전체를 건립하기보다는 최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의 건물이나 빈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 과학콘텐츠를 지원해 주는 형태의 사업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면 수도권에 안 들어가 있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과학관을 해야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지금 현재 신규 프로그램을 넣지 않는 이상 그 프로그램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콘텐츠를 지원해 주는 사업 대상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훈기 위원** 수도권 제외처럼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그 사업은 수도권 제외는 아닙니다. 다 가능합니다.

○**이훈기 위원** 하여튼 그 원칙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조인철** 김현 간사님.

○**김현 위원** 이게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미래 인재가 어떻게 육성이 되겠습니까? 과학관이 인근 거리에 없으면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최형두 간사님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방송만 하다 보

니까 과학을 못 했다고 하잖아요. 과학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든 어느 정부든 간에.

과학기술부가 과학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있느냐? 없어요, 지금. 힘센 의원이 여기에 와서 막 주장하면 하나 만들어 줘요, 선심 쓰듯이. 그래서 전복을 지난해에 정동영 위원이 지적했고 국감에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과학관이 있어야지 과학인재가 육성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대전만 육성하고 그 과학과 관련된 인접, 과천만 육성할 겁니까? 지금 이훈기 위원님이 얘기한 건 얘기 나오기 전에 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마스터플랜, 아까 얘기했던 우주항공 관련해서 또 영재고 관련해서 작년에 연구를 시작해서 올해, 내년에 내놓겠다? 그러면 과학 예산이 올해 얼마입니까? 수백조 아닙니까? AI, AI 하니까 AI 쪽으로 돈이 다 쏠려 가면…… 기초가 없는데요. 영재를 어디서 만드는데요? 지구본 하나 못 보고……

우리가 이번에 광주 갔잖아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거기서 인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만도 못한 게 지금 과학기술부 수준이에요. 주먹구구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경력 단절 여성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김현 위원 제가 보고받다가 기염을 토했어요, 기염을.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성 경력단절로 몇 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아시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76억 원 증액한다는데 이것도 주먹구구예요, 이것도. 16만 명이에요, 16만 명, 여성 경력단절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게 7만 명밖에 안 돼요. 6만~7만밖에 안 된답니다. 그것도 재단에서 이메일 어드레스, 주소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무슨 QR코드도 없고 그걸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없고.

여성 과학인들을 활용하는 지원이 이게 무슨 예산인데요? 얼마 지원해 주는데요? 회사에다 주는 비용, 인건비용이라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김현 위원 잘하십시오.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분 혹시 없으십니까?

○최형두 위원 영재고 관련해서 하나만 덧붙일게요.

이 지적사항, 지방의 과학고나 영재고를 지원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 교육감 정책에 따라서 과학고를 안 만들어 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라든가 이념적 성향 때문에 이걸 안 해 주면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에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서고 우주항공산업이 발전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걸 위한 특별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고 이걸 내년에 교육감선거에서 어떤 교육감이 되냐에 따라서 평생 못…… 백년하청(百年河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강력한 과학기술·우주항공 인재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 점을 또 부기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박충권 위원님.

○박충권 위원 박충권입니다.

차관님, 2번에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 관련해서 30억 수용을 하지만 지역에 한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에 한정할 수 없으면 어떤 지역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역을 다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공모를 좀 열어 두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더 증액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 특화된 산업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항, 울산, 대전, 여기 우주항공청이 있는 그런 데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역에 한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제가 예산 증액 요청한 것은 포항 지역에서 인재 유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 특화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철강업계에 취직을 하더라도 특화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서 또다시 배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 때문에 포항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을 한 건데 만약에 열어 두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좀 더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한 지역들에 포함을 해서. 그거 좀 차관님,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충권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5번에 국가과학자 지원사업인데 여기서 지금 11억하고 36억을 빼고 42억 원으로 증액을 한다라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습니다.

○박충권 위원 젊은 과학자들을 포함시킨 건 너무 잘하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러면 리더급 과학자 20명에게는 각 1명당 1억 원씩 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젊은 과학자 300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명당 305만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아닙니다. 젊은 과학자, 제가 300명이라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정확한 인원과 지원 규모라든지 방식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여러 관련 단체의 의견을 종합해서 기획을 해 보고 내년 차후년 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내년부터 바로 하지는 못 하고 내후년부터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면 이유는 뭘니까, 지금 바로 못 하는 이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했던 거는 리더급에 20명, 리더급 석학분들에 대한 것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금요일 날 대통령 주재의 국민보고대회 때 이것이 갑자기 제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좀 없어서 저희들이 생각하건대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내년에 사업을 설계하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뽑아서 차후년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자들을 우대해 주고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그래서 리더급 과학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과학자들이 훨씬 더 저는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크게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올해 역대 최대로 R&D 예산도 편성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낄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반영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박충권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위원님.

저도 좀 여쭙봐도 됩니까?

국가과학자 제도, 아직 제대로 설계는 안 돼 있겠지만 1억씩 몇 년 주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저희가 10년을 우선 상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1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소위원장 조인철 10년 동안 계속 20명씩인가요,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10년이면 얼마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현재 저희가 20명씩 5년을, 이번 정부 5년을 선정하려 하고요. 그러면 20명씩 5년이면 100명입니다, 100명. 이 100명 각각에 대해서 10년씩을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돼요? 보면 우리 분야별로 엄청나게 세그먼트(segment)를 쪼개 보면 많을 텐데 20명 뽑아 가지고 매년 20명씩 준다는 게 너무 적어 보이기도 하고, 젊은 과학자는 23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과학자에 대해서는 아직 산정되지 않았고요. 내년 상반기에 기획을 할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이게 20명이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20명을 뽑았는지 잘 모르겠고 어차피 분야별로 최 원톱 뽑으실 거 아니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런데 그 쪼개 놓은 게 20개 분야로만 쪼갰다고 하시는 것도 좀 이상해 보이고 훨씬 더 많은 분야가 있을 텐데 그러면 전체 총사업비를 얼마큼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저희 여기서 이야기 안 되더라도 좀 고민하셔서 가지고 예결위에서 좀 대응을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42억도 적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견이 있으신, 그러니까 정부 측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과학고하고 영재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과학고하고 과학관은 전부 불수용을 하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소위원장 조인철 그런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나 정부 측에서도 보면 과기부라고 하는 곳은 결국은 과학문화 확산을 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키워야 될까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그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그거를 갖다가 원칙도 불명확한, 예를 들면 1사 1도 1과학관 원칙도 불분명한데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제안을 한다. 과기부가 과학기술…… 방통위에서 과방위에서 제안을 해서 과방위 위원들이 자르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아 보입니다.

예결위나 정부 전체 논의할 때 거기 가서 논의하셔서 원칙을 다시 한번 수립하고 하는 거는 괜찮아 보이는데 과학기술을 책임지고 있고 과기부도 과학기술을 책임지고 있고 과방위도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을 끌고 가는 입법부에서 1번인데 두 기관이 만나서 ‘야, 이 건 아니야’라고 원칙도 불분명한 것을 자르고 간다는 것은 안 맞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거는 국립전문과학관 형태입니다. 이 국립전문과학관의 형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 안배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이훈기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국립전문과학관 형태로 못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립 형태라든지 아니면 복합……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계속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까 그 부분, 영재고하고 과학관 부분은 끝날 때까지 고민을 좀 하셔서 가지고 다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통과하셔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과학관하고 영재고 부분은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전문위원 임명현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어디인가요? 몇 페이지인가요?

○전문위원 임명현 27쪽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소위원장 조인철 잠깐만요. 저희 회의 진행 관련해서 국힘당이 2시에 의원총회가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빨라도 2시 반쯤에 속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좀 진도를 뺏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시까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충권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1시까지 진행……

○김현 위원 아까 뭐 사보임 얘기하셨잖아요.

○최형두 위원 참, 내일 어떻게 하지요? 내일 최 위원님……

○김현 위원 우리가 지금 일정이 오늘 하고 13일 날 의결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조인철 예.

○김현 위원 오늘 다 하면…… 오늘 어차피 지금 우리도 워크숍을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조인철 못 갑니다.

○김현 위원 오늘 다 하시지요, 뭐.

○최형두 위원 몇 시에, 내일 합니까?

○**김현 위원** 아니, 지금 워크숍이 오후 2시부터인데 지금 이것을 어정쩡하게 끝내면 13일 날 못 맞추잖아요.

○**박충권 위원** 오늘 다 하시지요. 빨리 서두르시지요.

○**김현 위원** 오늘 다 하고 그리고 해야지 또 내일 사보임해 가지고 새롭게 오시는 분이 무슨 또……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이의제기를 안 해 주시면 빨리 끝납니다.

○**김현 위원** 어차피 저 뒤로 가면 조금 늦어질 텐데 나머지 거야 뭐…… 오늘 다 하시지요.

○**소위원장 조인철** 예, 그러면 1시까지 합니다.

28페이지요?

○**전문위원 임명현** 27쪽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관련 사항 1건입니다.

전시관 운영사업에서 축제형 과학문화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13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이거 먼저 과기부 의견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말씀 있으신가요? 과학관 1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28쪽, 공공융합정책관 소관입니다.

1번, 핵융합플러그인 프로그램사업에서 핵융합에너지 가속화 실현을 위해서 R&D 사업비 50억 5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2번,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지원에서는 K-싱크로트론 벨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정책 연구용역비 5억 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9쪽 3번, 방사선이용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방사선 기반 소재·장비 기술 혁신사업 핵심기술 개발비 4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번,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해서 9억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아래, 작업 종사자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서 18억 4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30쪽 4번,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중성자 포획 치료 기술의 임상 실증연구를 위해서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서 전략연구단 사업비 4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번,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양성자치료센터 구축 지원을 위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6번, 한국원자력의학원 시설 지원사업에서 장애친화시설 확충 리모델링을 위해서 시설

비 25억 6000만 원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7번,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시설 지원에서 첨단 재생의료 임상 실증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7억 6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번,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10억 9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9번,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 원천기술개발 12억하고 기술실증기 개발 8억 원 포함해서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번, 공공행정서비스 혁신기술개발사업에서 AI 기반 전 영역 경비안전 기술개발 과제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12억 5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3쪽 11번, AI·드론 기반 산불 탐지·분석·초기 대응 플랫폼 기술개발사업에서 28억 5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34쪽입니다.

1번,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과 관련해서 4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35쪽,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처우개선 인건비 25억 81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36쪽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 수출용 신형연구로의 구축을 위해서 93억 7900만 원 그리고 원자력안전 시민참여형 소통체계 구축·운동을 위해서 7억 원 그리고 난치성 질환 진단·치료 위한 방사성 원료의약품 생산 및 개발 사업 수행을 위해서 92억 23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후위기·사회환경 변화 대응 작물 개발 및 산업화 연구를 위해서 20억 원 그리고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신약평가 국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30억 증액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원자력기금입니다.

사용후핵연료 통합관리 혁신기술개발 사업에서 비경수형 선진원자로 사용후핵연료 통합관리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 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이야기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정부 측 총 14건 중에 4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2번입니다.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사실…… 현재 편성된 이 내역이 지금 포항 방사광가속기 쪽지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연구 내용은 오창 다목적 가속기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담는 바구니하고 내용이 좀 안 맞습니다.

아울러서 오창에 있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클러스터 이런 걸 만드는 건데 현재 오창 가속기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차후에, 한 일이 년 미뤄 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32페이지, 9번입니다.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사업인데요. 20억을 제안해 주셨지만 공통원천기술 12억을 제외한 실증기 개발 8억만 수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27년도에 끝나는데 지금 원천기술 개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실증비 개발할 수 있는 8억만 배정해 주기를 말씀드립니다.

33페이지, AI·드론 산불 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산림청과 우주청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수용하기가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6페이지입니다.

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인데요. 이것이 첫 번째, 93억 7900으로 있는 내용과 세 번째 92억 2300으로 있는 이 두 내용이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저희는 세 번째에 있는 92억 2300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여기 32페이지, 공공행정서비스 혁신기술개발에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 이게 저번에 얘기했던 빅브라더 그 사업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습니다.

○이훈기 위원 이게 지금 12억 5000 삭감인데 내년 예산은 전액 다 삭감되는 건가요, 일부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융합연구정책관직무대리 이우진 일부……

○이훈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융합연구정책관직무대리 이우진 일부 삭감되는 사업은 에트리와 아니면 다른 기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사업입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이게 총 240억이잖아요. 그래서 과기부가 120억 내고 경호처가 120억 내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융합연구정책관직무대리 이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훈기 위원 과기부 120억인데 그중에 지금 12억 5000을 삭감하면 아직까지 얼마 집행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위원님, 이게요 내년엔 과기부 소관이 15억입니다. 15억 중에 12억 5000을 삭감하겠다는 것이고요.

○이훈기 위원 나머지는 뭘로 써요? 이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융합연구정책관직무대리 이우진 그런데 지금 연구부정이라든지 아니면 인권침해와 관련된 내용 말고 2.5억은 사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잘 통합하는 시스템에 연결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훈기 위원 아니, 이게 국감에서도 얘기했고 제가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 때도 지적을 해서 대통령실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산을 명확히 해야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부는 또 살아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융합연구정책관직무대리 이우진 남아 있는 사업들은……

○이훈기 위원 이 사업은 완전히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융합연구정책관직무대리 **이우진**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문제 제기된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이라서요, 2.5억은.

○**이훈기 위원** 제가 분간이 안 되는데 자료를 명확히 해서 저희 의원실로 주세요, 오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방사광가속기 최형두 위원님, 팬찮습니까, 지역을 바꾸겠다는 건데?

○**최형두 위원** 이것 지역 바꾸는 게 지역 공모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잘 안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이것 사실상 불수용이에요. 지금 너무 빠르다. 포항 방사광가속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오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오창은 아직 건설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형두 위원** 위원장도 포항공대 가서 가지고…… 그 사업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아닙니다. 이건 오창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그때 포항공대 가서 가지고 가속기 이야기하신 그것도 관련 없습니까?

○**김현 위원** 위원장실 저기 배석해 있는데 혹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인철** 지금 제기하는 분은 위원장님은 없으시거든요.

○**김현 위원** 아니, 위원장 비서관이 와 있어요. 위원장실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임명현** 위원장실 확인해서 일단 보류시켜 놓고 이따가 나중에 정리하시면……

○소위원장 **조인철** 그래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임명현** 예, 어차피 앞에 보류된 건이 있기 때문에 이 건도 같이……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임명현** 38쪽, 연구성과혁신관 소관입니다.

1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에서 사이언스 비즈니스 복합단지 관련 해서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개발 관련 용역비 10억 증액하고 대덕특구 융복합 혁신큐브개발 기획사업비 1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39쪽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에서 감사위원 2인을 보강하고 감사단장 1인 채용을 위해서 4억 3000만 원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총괄TLO 확대·강화를 위해서 16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0쪽입니다.

계속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출연연 기술사업화 통합지원 플랫폼 신규 구축을 위해서 1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딥테크 창업·사업화 스케일업 지원에 1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1쪽입니다.

계속해서 국가맞춤인재양성사업에 42억 증액이 필요하고 출연연 공통행정 전문화 추진을 위한 재원을 사업 추진의 현실화 및 현장 의견을 고려해서 55억 650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같은 사유로 54억 75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두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42쪽입니다.

우수 인재 신속 확보를 위해서 170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버티컬AI연구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2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맞춤형 AI분자설계 기반 만성염증 증후군 조기진단 및 예방 기술 개발을 위해서 30억 원, 연구원 채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25억 9700만 원 증액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3번입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역시 채우개선 인건비 9억 9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44쪽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에서 서산 분원 설치를 위해서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4억 1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연구원 채우개선을 위해서 인건비 13억 12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5번,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채우개선을 위해서 8억 22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6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역시 채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13억 5200만 원 그리고 7번 표준과학연구원의 채우개선을 위해서 13억 5000만 원, 표준과학연구원의 양자컴퓨터 개발에 대응해서 공개키 암호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20억 증액 요구가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8번부터 쪽 18번까지는 각 연구원마다 연구원 채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증액 요구에 관련된 건입니다.

넘어가서 그러면 48쪽입니다.

18번, 세계김치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에서 아래쪽에 15억 증액 요구가 있었고 19번, 세계김치연구소 시설 지원 사업에서 동물실험동 냉동기 증설에 필요한 2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49쪽입니다.

20번, 협력·융합 과학기술사업화 촉진지원 사업 관련해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리고 민간 R&D 기획과제 등에 총 36억 4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50쪽입니다.

기업연구개발지원센터 R&D 브릿지 관련해서 기업 연구개발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총 54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에서 채우개선비 7억 45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

었고.

52쪽에서 지질자원연구원, 전기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쪽 다 처우개선과 관련한 증액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1번,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에서 중부권에 있는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그쪽 권역의 형평성을 위해서 추가로 59억 5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2번,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에서 강원특구 신규 지정에 따라서 96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번,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지원 사업에서는 기술사업화 실증 인프라 구축 기본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1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4쪽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연구산업기반조성 사업에서 신고제도 운영, 통계기반 내실화를 위해서 총 14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5쪽입니다.

부대의견 2건입니다.

첫 번째는 감액 재원을 출연연 연구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두 번째도 같은 내용입니다 감액 재원 출연연 처우개선 활용과 관련해서 2건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정부 측 29건 중 5건에 대해서 의견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1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인데요. 이 두 내용이 사실 10억, 10억이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억 원은 수용하겠습니다.

41페이지, 1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에 관해서 출연연 공통행정 전문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55억 6500과 54억 750 두 가지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가운데 있는 55억 6500 감액을 수용하겠습니다.

42페이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운영비 중에 이주희 위원님께서 포닥(박사후연수생)에 관한 지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내용 중에서는 지금 이노코어(InnoCORE)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9000을 주고 연구비 1억은 주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연구비 1억씩을 제외한 82억 4000을 수용하겠습니다.

48페이지, 18번 세계김치연구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18번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밑에 15억으로 김치산업 품질·위생관리 혁신기술 개발을 제안 주셨는데요. 이 15억 중에 8억만 수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김치원에 김치 생산 표준화에 관한 사항들이 담겨 있는 유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8억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3페이지, 1번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황정아 위원님께서 중부권에 도시가 많으니까 59억 5700을 증액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그 4급 내의 어느 한 지역에다 하기에는 조금 형평성상 어렵고 추가되는 5700에 대해서는 4급 간의 서로 경쟁

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이견 없으신가요?

○최형두 위원 정부 의견대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조인철 이견 없으세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심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끝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1차관은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시고요.

1차관 소관은 끝났고요. 이제 과기혁신본부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명현 56쪽의 과학기술정책국입니다.

1번,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 사업에 8억 5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요. 2번, 범부처 현장수요 신속대응 연구개발 사업을 위해서 5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 하셨어요? 부대의견까지 다……

○전문위원 임명현 다음, 성과평가정책국인데 밖에서 대기 중이라서……

○소위원장 조인철 아, 그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국장직무대리 박진희 여기 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와 있어요?

그러면 57쪽의 국가연구연구시설장비 선진화 지원 사업에서 30억 증액 요구가 있었고요.

부대의견 1건이 있습니다.

58쪽의 보스턴코리아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첫 번째,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 사업은 저희가 지금 부총리로 승격되면서 범부처 간의 여러 가지 어젠다 논의하고 관계 장관 회의도 진행이 되고요.

○소위원장 조인철 수용하기 어려운 것 이런 것 위주로 보고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다음 장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원래 엔팩(NFEC)이라 그래 가지고 각 연구기관마다 고가 장비 구매하거나 그것들을 수리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지금 올라온 예산은 사이클로트론이라 그래서 전자 70MeV 가속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를, 기획 연구를 하는 건데요. 이 성격이 옆에 있는 세부 사업명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자체는 동일한 사업이 방사성 이용지수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양성자 가속기 사업이 있고 해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잘못 들어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기획이 되면 한 2500억 정도의 국비가 소요되는, 그러니까 예타가 돼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예타 폐지되게 되면 구축형 R&D라 그래서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잘못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좀 수용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 지원 이것은 다른 항목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위원 임명현 그러니까 1차관의 공공융합정책관 소관 사업인데 잘못 분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융합정책관 쪽에……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그쪽으로 넣어서 다시 검토하시라고 하십시오.

○전문위원 임명현 지금 혹시 나와서 계신 분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국장직무대리 박진희 예, 여기 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한번 얘기를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어차피 보류사업이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해 주세요.

○최형두 위원 3번, 공공 AX 프로젝트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예, 말씀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지금 사실은 AI, AI 그러지만 전 부처가 AI 부처 같고 예산 태우는 이런 형국도 많습니다.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더라도 중복돼 편성되는 게 많습니다, 같은 사업을 부처별로 서로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이것은 동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 AI를 선도적으로 접목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올해 추경 심의 150억을 반영했습니다, 사업을 수용했고 내년도에 1000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기부 사업 중에 공공기관 AI 전환 지원 4억 원, 공공 AI 클라우드 개발 지원비 150억 원, 소형 데이터센터 기반 AI 산업 선정 지원 96억 원, AI 기반 맞춤형 케어 서비스 융합 선도 30억 원, AI 연구형 컴퓨팅 지원 프로젝트 160억 원 등 해 가지고.

그리고 AI 클라우드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60억 원 신규, 의료 AI 혁신 생태계 조성 104억 원, AI 혁신을 위한 데이터 안전 활용 지원 50억 원, 이 공공 분야에 지급하는 R&D 또는 비R&D 예산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행안부, 국토부, 교육부 각 부처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한……

○소위원장 조인철 어디 하시는 거예요?

○최형두 위원 혁신 쪽인가? 이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제 다음에 2차관님 들어오시는 데 그때 하시면……

○최형두 위원 아, 2차관입니까?

○소위원장 조인철 너무 멀리 가셨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수용곤란 하신 것 1차관실로 넘겨서 보류된 사업과 함께 보고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2차관실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류제명 2차관님 오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혹시 말씀하실 때 꼭 직함하고 성함 말씀해 주세요. 속기사분들이 기록하실 때 힘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보고드리겠습니다.

2차관 소관 자료 보시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정책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정책관 12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AI·블록체인 융합 기반 자율형 고신뢰 핵심기술 개발 사업이 29억 85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쪽입니다. 이제 감액입니다.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 사업에 2026년도 예산안에 100억이 있습니다. 원안을 유지하라는 의견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10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강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업성 검토부터 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보완까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니까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공공 AX 프로젝트 사업에 이 또한 과기정통부 내에 공공 분야 AI 지원 사업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타 부처에서도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1000억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4번입니다. 정보화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강화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입니다.

77억 8800만 원을 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정보화 복지를 강화하도록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5번입니다. 디지털자산 혁신을 위한 블록체인 산업육성 기반 강화 사업에 97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4쪽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디지털배움터 사업에 원안 유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배움터 제주, 세종도 원안 유지하자는 견해입니다.

그다음에 5쪽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에 815억의 현행 예산안 대비 10억 3000만 원을 충남 공주시 등 경로당 내 스마트주치의 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서산시 등에 주차정보 공유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서 10억 3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래 보시면 스마트경로당 개발·보급 사업의 내역사업입니다.

관악구 특성을 감안해서 1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1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부산 지역입니다. 그다음 11억 7000만 원은 융복합타운 조성 사업 내역하고 산업생태계 조성 맞춤형 사업화를 위해서 11억 70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진출 혁신거점 조성이라는 내역사업에 3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인천에 글로벌허브 조성을 위해서 30억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7쪽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진흥기금입니다.

페이퍼리스 촉진 지원 사업인데요 전자거래분쟁 예방 및 조정, 피해 예방활동 지원 등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3억 1700만 원 등을 증액하자는 내용이었습니

8쪽입니다.

전국민 AI활용서비스 개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감액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일반 시민도 AI를 활용해서 지역·사회 문제 서비스를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통합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목표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조금 미흡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125억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실 때는 수용하지 않는 것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액 사업은 대부분 저희가 수용인데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2쪽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쪽, 두 번째 과제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과 관련해서는 원안 유지와 그다음에 수요하고 성능 문제로 김장겸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요.

저희가 국산 NPU 확산 경쟁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도 60개 기관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았고 또 우려하시는 성능 문제에 대해서도 작년 실증사업을 통해서 성능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수요기관과 협의를 했는데 많은 수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정부안을 원안대로 유지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쪽 3번, 공공 AX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박충권 위원님께서 과기정통부 내와 타 부처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올해 추경 150억, 20개 과제도 과기정통부 내의 유사 사업들 그리고 타 부처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중복성이 없는 과제로 부처들하고 협의하에 진행을 해 왔습니다.

AX를 통해서 저희가 각 분야 도메인들하고 AI 생태계가 좀 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 원안대로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입니다.

연번 4번, 다문화 가족을 위한 홈페이지 외국어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박충권,

최형두 위원님께서 77억 8800만 원 신규 증액 필요하다는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전체 중앙부처 공공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개선은 행정안전부가 총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접 소관인 과기정통부와 관련 웹사이트를 우선 적용하는 사업비로 저희가 산출한 4억 9500만 원을 반영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행안부로 하여금 이런 지침 개정을 통해서 전 기관에 다국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포용법 시행으로 인해서 디지털포용 영향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공공 웹사이트의 음성·다국어 서비스 제공 여부를 평가하겠다 이런 걸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서비스가 확산되도록 그런 식으로 같이 제도개선을 요구해 주시는 걸로 허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쪽 넘어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 국민 AI 활용서비스 개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일반 국민들도 단순히 AI에 대한 일반적인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 툴이나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민 개발자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AI 확산이 모두의 AI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실천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국민들의 또 시민 개발자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뒤에 부대의견 일부 수용은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9쪽 부대의견 구글 지도 반출 관련해서는 이주희 의원님 실에 설명을 드려서 아마 이 부분은 의견을 철회하시는 걸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철회? 그러면 지위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저희는 의원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혹시 이주희 의원님 방에서 안 나오셨지요?

행정실 확인 좀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확인했는데 의원실에서 아는 걸로 확인……

○소위원장 조인철 철회하셨다고?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철회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알겠습니다. 삭제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박충권 위원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말씀하십시오.

○박충권 위원 3번 공공 AX 프로젝트사업인데 이게 지금 1000억이면 정말 작지 않은 금액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관련 AI 기반 공공서비스 사업이……

(「1000억?」 하는 위원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1000억 맞습니다.

○박충권 위원 1000억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박충권 위원 작은 사업이 아니란 말이지요. 이게 지금 다른 부처들도 비슷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복 우려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여러 가지 비슷한 사업들 실패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공공클라우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AI 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그것도 제도적인 것이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의료진들이 사실상 활용 못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이렇게……

아까 우리가 과기부1차관님 소관 예산을 심사할 때도 그랬지만 인재들을 육성하고 이런 사업 그리고 영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들에도 몇십억도 채 안 되는 금액을 투자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1000억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들여서 공공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다…… 제가 국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라는 이게 초거대 AI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드렸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박충권 위원 그런데 이것 좀 제대로 선결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 해결하고 부처 간의 중복성도 다 조사를 한 이후에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저희가 지난 추경에서도 똑같은 사업으로 150억을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최근에 그 20개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질병관리청의 AI 기반의 건강습관 개선정보 제공 솔루션이라든지 또 고용노동부의 AI 산재 보상 플랫폼이라든지, 부처들하고 일일이 기존에 부처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과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또 기존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과의 차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주 심도 있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150억의 과제에 20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진행을, 추경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도 각 부처 수요들이 굉장히 큼니다.

그러면 왜 과기정통부에서 중심이 돼서 이런 과제를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각 도메인들, 질병청 또 환경부 또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도메인의 전문가들하고 AI 쪽의 생태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해서 개발해야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실하고도 과기정통부에 총액을 편성해서 각 기관의 수요를 기반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인데요. 그 수요도 굉장히 크고, 우려하시는 중복성 문제는 아주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지금 과기부가 관련해서 공공 AI 서비스를 컨트롤타워로 주관할 수 있더라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박충권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이랑 그리고 중복성도 어떻게 검토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따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원안 유지하시는 거예요?

○박충권 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고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알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잠깐 제가 좀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추정 때하고 상황이 다르지요. 추정 때는 사실은 이걸 각 부처가 할 수가 없어서 AI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과기부가 선도사업의 형식으로 각 부처에서 가진 수요를 찾아서 했다고 한다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중전에는 예컨대 우리가 피지컬 AI 예산을 할 때 부딪혔던 문제가 어떤 거냐 하면 과기부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아니, 피지컬 AI나 제조 AI는 그건 산업부 거다, 중기부 거다 그래 가지고 그것 조정하느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피지컬 AI가 과기부의 대표 예산으로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1번 항목으로 올라올 만큼 중요한 사업이 되었는데, 지금 그 문제와 별도로 이것은 각 부처가 세세하게 자기 수요가 있는 사업인데 그것까지 과기부가 다 무슨 총괄해서 하는 것은 중복소지가 매우 큼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 내에서 과기부의 피지컬 AI뿐 아니라 AI 사업이라는 예산에 힘이 실리니까 이렇게 의욕은 좋지만 나중에 부처 예산…… 부처야 뭐 다 같이 예산을 더 몰아 주면 좋겠지만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복성이 큰 것들을 과기부가 굳이 해서 결국에는 예산 낭비의 소지도 있고. 박충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보십시오. 모두 10억, 20억씩 쪼개 가지고 증액하려고 이 노력하는 마당에 1000억이라는 걸 크게 탁 뭉텅이로 놔두고 그것도 20개 무슨 사업해 가지고…… 예산의 중복성 또 낭비성 그리고 과연 그 사업이 과기부가 해야 될 사업인가, 여기에 대한 상세한 해명이 되지 않으면 이대로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있습니다, 위원님.

○김현 위원 보고하시지요, 그러면. 보류해 놔다가요. 어차피 보고하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따로 설명드리고……

○소위원장 조인철 중복성 문제는 총괄 부처가 있으면 오히려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실하고……

○소위원장 조인철 예를 들면 공통 기반 기술도 있을 수 있고 그걸 개발하면 전 부처에 동히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중복성 문제가 핵이라고 하면 과기부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런 취지……

○김현 위원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 이거 지금 행안부랑은 어떻게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행안부는 정부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과 관련된 그쪽에 행안부가 중심이 되는 걸로 사업들이 돼 있고요. 행안부랑도 다 협의가 거처진 겁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공공 AX와 관련돼서 직접 행정의 업무 혁신과 관련된 건 행안부가 컨트롤타워,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된 각 부처에 관련된 것은 과기정통부가 중복성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업무 분장을 그렇게 협의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이따가 보류 후에 보고를 하실 때 공공……

○소위원장 조인철 보류한다는 결정 아직 안 했습니다.

○이해민 위원 아직 안 했어요?

공공 AX 프로젝트에 대해서 수요처,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누가 쓰는지를 같이 제공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형두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드리면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중심이 돼서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AI 대전환, AX를 해야 되는 사업은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요. 일명 AX-스프린트 300이라는 8900억 정도의 범정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기정통부 소관은 600억 정도로 과기정통부하고의 직접적인, 보안이나 이런 상용화 AX는 저희가 직접 담당을 하고 나머지는 부처 중심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아마 중복 문제라고 하면 중복 문제는 오히려 과기부가 총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 보류를 말씀하셨는데 보류보다는 일단 넘어가시고, 원안대로 가시고 사후에 보고를 드리시면 어떨까요?

간사님, 두 분 간사님들 지금 보류하자 그러셨는데……

○김현 위원 저는 보류가 아니라 보고받으라는, 보고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에 논의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오늘 점심시간 통해서 보고를 하는 게 낫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모두의 AI나 이런 거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 주세요.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원안대로 하고 보고 후에 이견이 있으시면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보류하세요.

○소위원장 조인철 보류?

○최형두 위원 이거 하나만 보류하면 되잖아요.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앞으로 계속 보류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소위원장 조인철 그래도 보류하시자고?

○최형두 위원 예, 보류 항목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김현 위원 아니, 아까 1차관 쪽에서도요 이렇게 자료 하나 바로 냈어요. 그러니까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뒤에 검토하면 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소위원장 조인철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과거에 AI 데이터 사업도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남은 결과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것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자료 10쪽 보시겠습니다.

소프트웨어정책관,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인공지능 융합혁신 인재양성사업이 2026년에 210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여기 의
료기기 제조 AX 융합인재 관련해서 2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 지원사업 원안 유지, 넘어가겠습니다.

최고급 AI 해외인재 유치 지원사업이 100억이 있는데 30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
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안전관리 분야 디지털트윈 선도사업에 60억 증액하자는 얘기가 있었
습니다.

12쪽입니다.

5번입니다. POST APEC 국제 공동 실감형 가상융합 창작허브 구축사업을 10억 신규
로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번입니다. 생성형 AI 기반 가상융합 콘텐츠 제작센터를 신규로 50억 증액하자는 의견
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7번입니다. 가상융합산업 인프라 조성사업도 106억 20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
이 있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AI 기반 공간컴퓨팅산업 육성도 130억 증액하자는 얘기입니다.

또 AI·모빌리티 SW 생태계 조성사업에 100억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건 중소 부품
사들에 대한 육성이 시급하다는 이유였습니다.

14쪽입니다.

AI·SW 기반 RaaS 생태계 확산사업입니다. 로봇산업 비즈니스 동력 확보하기 위해서
100억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AI 선박 특화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실증사업에 50억 증액, 그다음에 AI 클래스 중소기업
시장개척 지원사업이 110억입니다.

이 뒤에는 방발기금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입니다.

디지털트윈 3D프린팅 의료공동제조소 실증사업에 16억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북 AI 한글화 교육센터 구축사업 40억 요청이 있었습니다.

16쪽입니다.

이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해양문화도시 기반 에이지테크 실증거점 조성사업에 50억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도디지털혁신지원 사업으로 감액인데요.

충청남도 일부 조금 중복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10억 30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었습니
다.

17쪽입니다.

지역디지털기초체력지원 사업인데요.

체인지업그라운드지역확산모델 사업에 3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전주 AI 가상융합 미래기술 실증혁신센터 조성 사업에 5억 증액 요
청이 있었습니다.

18쪽입니다.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의 혁신거점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과제 지원 사업에 15억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5번입니다.

AX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에 66억, 66억, 100억 정도가 있는데요. 위원님들마다 요구하시는 지역과 금액이 조금 다르지만, 즉 요구사항이 표와 같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특화 강소 AX 생태계 조성 사업인데요.

20억 증액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 경북의 특화 AX 생태계를 위해서 20억 증액 요청 사업이 있었습니다.

20쪽입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입니다.

AI·SW중심대학 사업인데요.

이것은 원안 유지하자는 내용이라서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은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에 90억 증액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번입니다.

디지털트윈 경쟁력 강화 사업에 10억 또는 11억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2쪽입니다.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사업은 이것도 원안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디지털인재양성 사업에 24억 증액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3쪽,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VR·AR콘텐츠산업육성 사업입니다.

여기 아까 일반회계 6번 사업이 있었는데요. 영상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50억 원 증액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또 지역 가상융합산업 생태계를 위해서는 가상융합센터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 4억 5200만 원 증액하자는 다른 증액의견도 있었습니다.

2번입니다.

디지털콘텐츠산업생태계활성화 관련해서 산업기반강화 관련해서는 국내 XR 디바이스 핵심부품, 이것도 아까 일반회계 부분이랑 겹치는 내용인데요, 30억 증액 그다음에 가상융합산업 성장조성 사업에 3억 증액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4쪽입니다.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사업에 94억 80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자고, 가상융합대학원이라든가 혁신인재단기집중역량강화 등을 위해서 94억 증액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데이터 융합리더 양성을 위해서 전공 신설운영 등입니다. 2억 81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생성형 AI 기반 영상제작 혁신센터 구축, 이것도 아까 일반회계 6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생성형 AI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서 50억 원 신규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오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부 측 보고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수용의견인데요. 여기가 저희 의견이 있는 것은 기존의 사업은 석박사 양성 프로그램이고 이번에 제안해 주신 신규 사업은 재직자형 교육이기 때문에 내부사업으로 포함하는 것보다는 별도 신규 세부 사업으로 분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쪽, 6번 과제인데요.

생성형 AI 기반 가상융합 콘텐츠 제작 센터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내용상으로 수용하는데요. 지금 사업 시행 주체를 구미시로 특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재정사업 투입 효과를 위해서 전국 단위 자유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쪽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12번 과제가 뒤쪽에 있는 과제들과 좀 병합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 13번 디지털트윈 3D프린팅 의료공동제조소 실증 사업인데요.

항정아 위원님께서 16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의원실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디지털트윈 사업이 본래 사업인데 여기서 요청하는 16억의 예산은 제작 장비에 센서를 부착하는 그런 기능 고도화 사업이어서 저희가 사업 목적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의원실에 양해를 설명드렸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쪽, 3번 과제입니다.

3번 과제 체인지업그라운드지역확산모델 구축인데 이 부분은 포항시가 수행 주체인데 포항시에서 지방비 추가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항시에서 철회를 하는 걸로 해서 수용,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18쪽입니다.

18쪽은 의견보다는 5번의 AX 혁신거점 조성지원이 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용하는 것은 가장 밑에 있는 100억 수용하는 걸로, 66억, 66억 중의 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00억 수용으로 저희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23쪽, 1번 과제인데요.

첫 번째, 생성형 AI 기반 영상제작 혁신센터 구축 이 과제하고 이따가 설명드릴 24쪽의 4번 과제가 앞쪽에 있는 12쪽의 6번 과제하고 사실 동일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12쪽의 6번 사업으로 통합을 요청드립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같은 쪽 23쪽 2번 과제 디지털콘텐츠 산업기반강화 이 내용은 역시 14쪽의 12번 과제와 동일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병합을 같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4쪽의 4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쪽 6번 사업과 동일해서 그쪽으로 병합을 요청드리는 과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어볼게요.

18페이지 4번 수용곤란 이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18페이지 4번입니까?

○소위원장 조인철 예.

수용곤란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아닙니다. 지특회계 15억 추가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소위원장 조인철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건 저희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수용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소위원장 조인철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수용곤란으로 돼 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김현 위원 박충권 의원실, 자료 이것 왜 위원님한테 안 왔어요?

○최형두 위원 아침에 정부에서 준 자료가 있거든요.

○소위원장 조인철 없으세요?

○최형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막 못 따라가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소위원장 조인철 좀 챙겨서 드리십시오, 보좌관님들.

○최형두 위원 혹시 빠진 것 아니지요? 의원실 다, 우리 예결 다 준 거지요?

○박충권 위원 우리 받은 건지…… 최수진 의원실도 없는 것 같은데.

○이해민 위원 그냥 차라리 다 깔아 주세요 저도 파일로만 지금 하나씩 갖고 있어서.

○박충권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하여튼 오전은 이걸로 끝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었다가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조인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정책기획관부터 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25쪽입니다.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26년 예산안에 269억 9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역사업 중에 AI 특화지

구 조성 사업이 입지·산업계 수요 검토도 조금 부족해 보이고 기존의 AI 클러스터하고 차별점이 없다고 그래서 이해민 위원께서 10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래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역사업에 AI신뢰성 및 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일부 위원은 19억 700만 원 증액하라고 그리고 또 이해민 위원은 10억 5200만 원 증액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내역사업 중에 또 인공지능 선도국 도약 정책지원 사업은 AI 영향평가 제도 고도화 등을 위해서 12억 25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확산 등을 위해서 최형두 위원은 4억 2500만 원 정도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26쪽입니다.

2번입니다. AI정밀의료SW선도기반조성 사업은 15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AI기반 맞춤형 케어서비스 융합선도 사업은 AI 기반 팜테크 산업 육성 관련해서 난임 AI에이전트 등 여성 건강 생애주기 통합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56억 원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4번은 초거대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조성 사업에 기업·전문인력 등의 AI 중심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4억 원 증액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27쪽입니다.

5번은 감액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GI 준비 프로젝트 사업인데 연구소 조직 구성, 업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고 사업 타당성도 아직 검토가 되지 않아서 감액하자는 이해민 위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195억 원 감액입니다.

참고로 현재 표상에 최형두 위원도 200억 감액하라고 돼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회의 직전에 철회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28쪽입니다.

이 또한 감액사업인데요 AI AGENT 선도 국가 사업입니다.

이게 이미 민간에서 개발 중이고 또 국가가 개입하면 시장 왜곡의 우려가 있고 수요조사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해민 위원께서 200억 감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9쪽 보시겠습니다.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관련해서 신규 내역 내에 의료 인공지능전환 기술지원센터 구축하기 위해서 50억 원 증액하자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신규 내역사업 내에 의료로봇 친환경 실증기반 구축 등을 위해서 36억 원 증액하자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2번입니다. 데이터 활용 의료 건강 생태계 조성 사업에 의료취약지 건강관리 실증사업 등을 위해서 60억 증액하자는 요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개발 중인 의료서비스 실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돈을 좀 증액하자는, 13억 5000만 원 증액하자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3번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사업은 제조데이터 맞춤형 AI융합 솔루션 개발·실증 등을 위해서 1억 2500만 원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4번입니다. AX실증밸리조성 사업은 현재 사업 기간이 1차년도에 4.5개월로 돼 있는 것을 2배 정도로 확대하기 위해서 172억 7300만 원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역거점 AX 혁신기술개발 사업도 사업 기간을 9개월로 확보하기 위해서 100억 5000만 원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6번입니다. 국가 AI데이터센터 고도화를 위해서 GPU 자원 임차비라든가 설계용역비 등을 위해서 219억 원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31쪽입니다.

강원 의료 AX 산업 실증 허브는 신규로 80억 그다음에 광주 AI 실증도시 실현 사업으로 50억 그다음에 AI의료산업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30억, 동대구벤처밸리 AI테크포트 구축을 위해서 30억을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32쪽입니다.

국가 NPU전용 컴퓨팅센터를 광주에 설립하자는 요구로 20억 증액 요구 그다음에 국가 AI혁신 연구원 설립을 위해서 10억—이거 기획연구비 편성을 위한 금액입니다—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2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내역사업으로 AI 특화지구 조성 사업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물리적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사업 성격에 맞게 창업이나 연구 또 비즈니스 생태계 그다음에 정주 여건 또 아태 시장 진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정부 원안대로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입니다.

이건 다 수용입니다만 각각 규모가 달라서 첫 번째 내역사업은 위에 있는 19억 700만 원, 아래 두 번째 내역사업은 위쪽의 12억 2500만 원을 수용하는 걸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 이것도 내용상은 수용입니다만 지금 조인철, 최형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거는 내역 신설을 요청하셨는데 이거는 성격상 내역 신설보다는 같은 금액으로 과제를 추가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AGI 준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해민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또 아래에 노종면 위원님, 이주희 위원님의 정부 원안 유지 의견도 있으신데요. 저희는 지금 AGI, AI 연구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AGI 연구 쪽 여러 가지 포맷은 지금도 논의 중입니다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AI AGENT 선도 국가 사업 이것도 200억 감액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민간 수요를 우려하셨는데 저희가 이미 AI 에이전트화로 급속하게 나가면서 업계에서 A2A나 MCP 같은 표준들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진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사업자들하고 개별 기업들 면담을 9회 실시를 하고 또 여러 업계 간담회를 여섯 차례 또 개별 기업 면담 4회 이상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요. 업계에서 신뢰성 있는 A2A, 그러니까 에이전트 그런 사업들을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겠다는 의견들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셔서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1번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인데요. 이거는 두 내역사업을 각각 제안해 주셨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86억 사업으로, 위의 50억, 밑의 36억을 합한 금액입니다. 첫 번째 86억이 아니고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한 86억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1쪽입니다.

8번 광주 AI 실증도시 실현을 위한 기획 용역비로 50억 증액을 요청하셨는데요. 내용상 저희 수용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비슷한 규모의 사업들 용역비로, 통상 평균을 감안했을 때 용역비를 한 20억 정도로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32쪽입니다.

11번·12번 국가 NPU전용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또 국가 AI혁신 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는 수용 곤란 의견을 냈습니다만 일단 NPU전용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과 관련해서는 민간 수요를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 그다음에 국가AI혁신연구원 설립은 아까 AGI연구소 관련된 중복 문제 이것들이 좀 검토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입장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오전에 대부분 저 또한 증액 요구가 많았었는데 몇 안 되는 감액이 조금 몰려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지금 감액 의견을 드린 곳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 민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곳이랄지 아니면 현재 구체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곳들 위주로만 감액 의견을 냈고요. 특히나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AI혁신연구원이랄지 AGI연구소 이거는 사실 다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병합하는 노력들을 하고 예산에 올라왔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AI특화지구랄지 그다음에 AI에이전트 같은 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업들이 제 머릿속에서는 다 분리 분리 분리되어 있는, AI특화지구, AGI연구소, AI에이전트 이게 다 분리가 되어 있고 무조건 시너지를 내야 되는 영역 세 가지인데 이게 따로따로 따로 따로 있고 예산상에서 아무런 시너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액 의견을 냈고 그 말인즉슨 결과물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결과물을 내년도에 가져가고 싶으신지 그 그림 자체가 보이지 아니하고.

또 민간과 굉장히 많이 얽여 있는 영역이거든요. AI에이전트 지금 민간에서 다 알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AGI요 이거 나라가 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서 눈에 띄는 건 오히려 AI특화지구 쪽이고 이거는 아마 중국의 항저우나 아니면 미국의 실리콘 벨리나 이걸 모델링하신 거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진짜 민간기업 더하기 사람이 몰려 있는 곳에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인데.

지금 제가 나열한 이러한 우려들을 다 없앨 수가 있는 건지가 궁금해요, 그냥 아주 진짜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저희가 지금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도 AI 액션플랜을 계속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요.

지금 AI 쪽은 AI전략위원회하고 액션플랜 만드는 과정…… 물론 저희가 지난번에 국정자문위원회인가요, 새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관련된 논의들을 계속 해 가면서 마지막으로 조만간 AI 액션플랜의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것입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내용으로 저희가 최대한 액션플랜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AI에이전트, AI특화지구, 거의 연계 안 된 지점들은 없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성격상 통합적으로 하나를 설계하는 거는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AI특화지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물리적인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거나 인프라가 안 돼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 곳에…… 왜냐하면 아태 지역의 인재나 벤처기업들, 스타트업들 이런 식으로 유치하고 또 그 사람들과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아태 지역 진출까지 하는 이런 그림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주 여건이나 창업, 비즈니스 생태계 충분히 감안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 지정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해민 위원 지난번에 예산 올릴 때도 비슷한 답변을 들었고 장관께서도 비슷한 답변을 계속 해 주신 게 뭐였냐 하면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AI 액션플랜이 11월 말에 나옵니다’예요. 그렇다면 구체성이 없는 채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가 6월 달에 국정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계속 같이 논의를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다 최종적인 그림이 발표된다는 것이고요. 6월 달부터 예산 과정 또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논의가 돼 왔었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국가AI혁신연구원과 AGI연구소는 저는 이거 병합을 했으면 좋겠고요. AI특화지구 그다음에 AGI연구소 그다음에 AI에이전트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리 들어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지만 이거는 만약에 통합 컨트롤타워가 있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철도를 짓는데 양쪽에서 지어서 만나지 않는 철도를 짓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세 가지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저는…… 이거 잘못하면 저에게는 내년도 국감 아이টে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컨트롤 플랜을 추후 제출하는 것을 넣어 가지고 저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소위원장 조인철 감액 세 가지, 세 사업 말씀하신 거를 보완 계획을 제출하시는 걸 전제로 해서 받아들이신다는 거지요?

○이해민 위원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일단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인 그림에 대한 설명을 따로 보충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보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진행하면서 수시로 말씀드려서 그 우려를 불식시켜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쪽 예산이 AI 예산 10.1조 원 중의 5.1조 원이 과기정통부 예산이고 다른 부처에 편성된 그게 나머지 금액인데요. 모든 정부예산은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부처 간의 중복 문제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너지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모여서 같이 면밀하게, 세밀하게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분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몇 페이지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33쪽,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번, AI 컴퓨팅 자원 활용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이게 2조 1087억 2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가 내역사업 내의 공공AI클라우드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을 위해서 100억 원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2번, AI 혁신을 위한 데이터 안전 활용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중에 데이터안심구역 전환 및 고도화 지원 사업을 위해서 20억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4쪽, 감액 요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데이터 인프라 기반 데이터 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예산에 12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기보다는 이미 구축 중인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120억 원을 이해민 위원께서 감액하자고 말씀 중입니다. 그리고 경북지역의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사업을 위해서 60억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4번, 시니어·청년 협력형 데이터 캠퍼스 신규 사업으로 AX 인재양성을 위해서 신규로 100억을 증액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35쪽, AI 가속기센터 민관 산학연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1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진흥기금입니다.

36쪽, 데이터 활용확산 정책지원 사업으로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억 4000만 원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2번,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서 지역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위해서 5억 원을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AI통합바우처 사업으로 내역사업 중에 데이터바우처 물량을 좀 더 확대

하기 위해서 2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다음 4번, 데이터경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데이터분쟁상담이라든가 권익보호 활동할 때 조금 지원해 주기 위해서 2억 7500만 원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37쪽,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육성 정보화 사업인데 여기 내역사업 중에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의 내내역사업 중에 SaaS 개발·사업화 지원 이런 걸 해서 글로벌 진출 가능한 기업하고 소프트웨어 전환 희망기업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60억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다음 38쪽, 부대의견 보시겠습니다.

GPU 서버 확충하고 소형 데이터센터 기반 성장 지원 예산, 지역적으로 분산하자는 조인철·황정아 위원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추진 시 타 부처 사업하고 잘 연계하라는 조인철·황정아 위원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4번 보시면 AI통합마우처 사업 소관을 일반회계로 변경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SaaS 개발·사업화 지원 사업도 일반회계로 변경을 요구하는 부대의견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보고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34쪽 3번 과제입니다. 국가데이터 인프라 기반 데이터 혁신 지원입니다. 이해민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하고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의견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김현 간사님께서도 의료 분야 외의 공모 과제는 기획이 좀 더 치밀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허락해 주시면 전체 감액보다는 기획이 충분히 된 의료 분야 쪽 플랫폼을 하는 데 60억은 반영을 해 주시고 공모과제로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은 기획성으로 한 10억 정도 반영해 주시는 걸로 허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50억 감액인가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아니, 70억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70억 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50억 감.

○소위원장 조인철 50억 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다음에 35쪽 AI 가속기센터, 포항시의 요구가 있습니다. 100억 증액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부재원으로 GPU 자원들을 대폭 공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포항시에 개별적인 소규모 GPU 팜을 만드는 것보다는 정부 주도로 대규모 공급될 GPU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으로 해서 수용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포항 쪽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자원은 충분히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부대의견과 관련돼서 대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추진 시 타 부처 사업과 연계 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질의 내용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만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부대의견으로 해 주신 내용은 수정 없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일부 수용이 아니고 그냥 수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이해민 위원 50억 감액하더라도 저는…… 데이터 스페이스, 결국에는 데이터를 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 기반을 만들어 주자라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오늘 끝나기 전에 저한테 두 개를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의료 부분이에요. 10억 얘기를 하셨으니까 메타데이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의료 부분은 60억입니다.

○이해민 위원 예. 메타데이터를 필로 쓸 건지, 그래서 2026년도에 그 돈을 가지고 구축하고 싶은 볼파크 넘버(ballpark number)라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셋을 목표하는지 이 두 가지를 좀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알겠습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박충권 위원님.

○박충권 위원 차관님, 35쪽에 AI 가속기센터와 관련해서요. 말씀 주신 대로 초거대 AI는 중앙집중형 인프라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포항이라든가 특정 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그 산업 맞춤형 AI 모델을 개발하고, 예를 들면 기술 맞춤형, 철강산업 맞춤형 이런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지역분산형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집중형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추가적으로 1만 5000장 확보할 계획이 있어서 이것들을 활용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포항 같은 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이쪽 부분은 GPU가 저희가 당초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GPU들 확충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포항 쪽에서 수요를 저희가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신 뒤에 특화된 소규모의 데이터센터들이 필요한지를 그때 다시 한번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게 언제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당장 내년도에 저희가 포항 지역의 산업계하고 영국의 GPU 수요를 봐서 지금 올해로 1만 3000장이 연내까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확보된 것들을 포함해서 GPU 자원들, 저희가 재정으로 투입한 GPU들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박충권 위원 만약에 수요가 있으면 확보되는 GPU 중에 돌려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거기에 쓸 수 있는 식으로 GPU as a Service

형태로 해서 운영 성과를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해서 지역특화형 소규모 그것들이 필요한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충권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이해민 위원 넘어가기 전에 한 마디만 더 붙일게요. 남겨야 될 것 같아서.

AI 관련해서 제가 감액을 한 몇 개 안 되는 걸 방금 전에 몇 개 쪼였고 그리고 몇 가지 데이터를 제공하시고 나중에 액션플랜이 11월 말에 나오면 의원실로 보고하시고 이런 식으로 다음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은 오늘 보셨듯이 지금 증액이 엄청 많습니다. 증액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진짜 많고 그중의 대부분이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AI 쪽이에요. 이 정도로 콕콕 써 주면 내년도에 결과 내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이해민 위원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요. 과기정통부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져오신 것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좋은 의견들 많잖아요. 그 좋은 의견들에 대한 결과물 내년에 안 갖고 오시면 정말로 큰일난다는 사실 저는 여기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유념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소위원장 조인철 전문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자료 39쪽 보시겠습니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정보화) 사업인데요. 이게 197억 2000만 원이 2026년 예산안 편성되어 있는데 내역사업 중에 ICT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하고 정보보호지원센터 보안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191억 5100만 원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해서 98억 79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 고도화를 위해서 50억 원 증액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내역사업 중에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신규로 2개를 하자는 등등의 이유로 금액은 다르지만 46억, 11억 70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정보보호체계 정비 및 수준 제고를 위해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등 방안 연구를 위해서 4억 원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및 인증 기반 강화 사업이 14억 3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 내역사업 중에 소비자 IoT 제품 안전성 강화는 또 취약점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서 50억 원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암호이용 활성화 관련해서는 160억, 내역사업 중에 양자 내성 암호 전

환 기반 구축을 위해서 양자내성암호전환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160억을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41쪽입니다.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정보화) 사업인데 487억 9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능형 포렌식실 구축을 위해 150억 원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보안 레드팀 운영 등도 하고 위기대응 훈련도 하기 위해서 145억 원 증액 그다음에 사이버 공격탐지대응체계 운영을 위해서 70억 원 증액 그다음에 사이버위협공유협력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스템도 고도화하기 위해서 70억 원 그다음에 체계 운영하는 데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서 50억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42쪽입니다.

5번,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공시 제도의 신뢰성 제고나 검증 강화를 위해 151억 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 재난관리 사업에 디지털재난관리체계 체계 운영, 현장점검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14억 5200만 원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 중에 디지털재난관리시스템 운영·고도화,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4억 4100만 원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7번입니다.

K-AI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사업(신규)인데, 첨단 AI-RAN 공공선도 사업을 공공부문 에 선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50억 증액 그다음에 AI 데이터센터 내 네트워크 국산화, 국산 표준기반 네트워크로 전환하기 위해서 40억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간 유망 네트워크 기술사업화를 위해서 30억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8번입니다.

ICT 인프라 생애전주기 지원 사업으로 정보통신설비의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고도화하자는 요구로 9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시범운영 사업으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특히 인천에서 시범사업해 보자고 해서 6억 8600만 원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진흥기금입니다.

44쪽입니다.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최고급 인력인 BoB(Best of Best) 수준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 145억 원 증액 그다음에 전문인재관리체계 개발, 인재의 성장·지원을 위해서 10억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45쪽입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산업육성 사업인데 내역사업 중에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해서 보편적 통신 접근성도 강화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54억 7200만 원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42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와이파이 확대구축을 위해서 25억 72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정보보호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증액 관련해서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41쪽 해킹 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관련입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에 디지털 포렌식 관련된 150억 증액 요구, 이해민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김현 간사님실하고 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 약간 조정 여지가 있는 항목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 98억 정도 반영해 주시면 지금 필요한 급한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 수용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2쪽입니다.

방송통신재난관리 관련 사업입니다.

두 내역사업을 합한 18억 9300만 원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쪽 7번, K-AI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사업도 세 가지 내역사업을 통합하면 120억인데요 120억 예산을 통합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시범운영과 관련된 이훈기 위원님 증액 요청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저희 생각에는 사업자들 위주로,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형태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허락해 주시면 재정 투입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의견입니다.

○이훈기 위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리고 45쪽도 네트워크 인프라 산업육성 세 가지 내역사업인데 이것도 다 통합해서 122억 4400만 원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이훈기 위원 아까 43페이지의 9번, 작년에 예산 할 때 공공와이파이 그때도 황정아 위원이 증액을 했는데 과기부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공공와이파이 이미 많이 투자해서 더 이상 증액 많이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때 지하철 같은, 공공와이파이의 개념에 지하철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에 관련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거기 포함이 안 된……

○이훈기 위원 저번에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걸 통신 3사나 민간에 맡기면 지금 부러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지하철에서 안 터져야지 고가의 상품을 파니까 돈을 안 쓴다고요. 그것 뻔히 알면서도 또 안 하고 민간업자한테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 공공와이파이 예산 뒤쪽에는 백몇십 억도 증액을 하면서 지하철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설명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은 이미 통신 3사의 와이파이 시설이 있어서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차관님, 지금 지하철에서 공공와이파이가 안 터지니까 이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통신 3사는 부러 안 터지게 해요, 돈을 안 쓴다고요. 지하철에서 잘 터지면 굳이…… 지하철에서 안 터지니까 자꾸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좀 더 고가의 상품으로 변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용해 먹고 있어요, 지하철 와이파이가 안 되게 해서. 거기다 대고 거기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라 그러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일단 제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보다……

○이훈기 위원 아니, 공공와이파이의 개념이 어디까지예요? 지하철은 해당이 안 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사업자 와이파이가 없는, 지금 지하철은……

○이훈기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지하철만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기준은 뭐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사업자가 각각, 지금 문제는 지하철……

○이훈기 위원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사업자들이 하게 했는데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훈기 위원 그래서 개선을 하자는 건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는게요 공공와이파이사업은 아예 사업자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 새롭게 만드는 것이고요. 지하철은 지금 문제가 와이파이 사업자들이 LTE 백홀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락해 주시면 사업자한테만 맡기지 않고……

○이훈기 위원 사업자에게 맡기면 똑같아요. 아직까지 계속 그렇게 되어 와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라는 건데 그것을 못 하겠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예산 여러 군데 많이 하잖아요, 아까 버스 애기도 하고. 도대체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쪽 논리를.

○김현 위원 이게 공공와이파이를 국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동안 도서관이나 복지관이나 아예 사업자 와이파이가 없던 데를 공공와이파이사업을 계속해 왔고요.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들 와이파이가 있는 곳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이훈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하철 와이파이 문제는 속도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구체적인 계획으로 사업자들하고 위원님……

○김현 위원 사업자가 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사업자 영역입니다.

○김현 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계획을 짜서……

○김현 위원 매뉴얼 가져오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계획을 짜서 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스케줄 조정을 안 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이훈기 위원 아니,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안 됐잖아요. 안 되고 오히려 사업자들은 이것을 악용해서 사람들이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걸로 악용해 왔잖아요, 지하철에서 안 터지게 해 가지고, 투자도 안 하고, 그것을 개선하자는 건데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전국의 지하철을 다 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다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지금 LTE 백홀로 되어 있어서……

○이훈기 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이훈기 위원 아니, 계획을 언제 세워서 또 언제 하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금 사업자들하고……

○김현 위원 이훈기 위원님, 이거 6억 8000 가지고 인천 지역에만 하면 나머지 지역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훈기 위원 아니, 제가 알아 보니까 전국을 다 하면 90억이 들어요. 저는 다 했으면 좋겠어요. 90억으로 해서 전국에 지하철이 9000개인가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다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소위원장 조인철 와이파이를 전부 국가 예산으로 다 하면 좋지요. 좋은데 지금 통신사에서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나서서 자기들이 해야 될 영역이고 그 일차적으로 해야 될 영역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이훈기 위원님 지적이시고 정부 측에서는 내년에는 계획을 똑바로 세워서 제대로 하게 하겠다라는 게 정부 측 의견이고 각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이훈기 위원님한테 빨리 보고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훈기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행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그러니까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정확히 주세요. 내년에 통신사에서 할 수 있게 강제로라도 하겠다는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투입 안 하고……

○이훈기 위원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 되는 게 중요하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 스케줄 정확하게 저희가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시지요.

○김현 위원 공공 와이파이하고 해킹하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없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김현 위원 통신하는 분들 안에서는 공공 와이파이가 해킹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것은 점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점검하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갑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님 보고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41쪽의 4번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사업 맨마지막 항목 내역사업 50억짜리가 있는데요. 그게 위에 위에 70억짜리 사이버공격 탐지 대응체계 운영 여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내용 스크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70억짜리 사업으로 맨 밑에 있는 50억짜리 내역사업을 통합하는 것으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같은 거라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이해민 위원님 맞습니까?

○이해민 위원 예.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님 다음 것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자료 46쪽 보시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600억이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단기간에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생태계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지난 8월 22일에야 적정성 검토도 의뢰하고 9월 24일에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미 예산 반영 이전에 적정성 검토가 조금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또는 유사한 AI 관련 연구개발이 다수의 다른 예산에 반영돼 있어서 조금 중복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전액 감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원안을 유지하자는 위원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오른쪽입니다.

2번 AI 혁신펀드입니다.

이게 1000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이 유망한 인공지능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분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위해서 펀드를 조성한 사업인데 이게 국민성장펀드 기능하고 용도가 좀 비슷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감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사업입니다.

423억이 편성돼 있는데 내역사업 중에 DNA 대·중소 파트너십 동반 진출사업, 해외 진출 지원하기 위한 데에 예산을 22억 정도 늘리자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 중에 디지털 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에 기업들의 수요도 많으니까 24억 원 정

도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49쪽입니다.

피지컬 AI 핵심기술 POC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피지컬 AI 핵심기술 연구개발, 해양환경 분야 분석사업인데 여기에 3억 원 정도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5번은 디지털 딥페이크 범죄대응 핵심기술 개발사업입니다.

변환역제 기술부터 탐지, 차단, 신고데이터 확보까지 전 주기적 대응 기술 개발 필요하니까 30억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폐장비에 핵심광물 등이 다량 함유돼 있으니까 이것을 자원순환 구조로 생태계 구조 전환에 필요한 예산 66억 9000만 원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7번은 휴머노이드 중심 피지컬 AI 생태계 혁신사업 신규사업이 1200억이 요구가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피지컬 AI 혁신 테스트베드로 한번 조성해 보자는 취지로 1200억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51쪽입니다.

피지컬 AI 신진연구 캠퍼스 구축사업은 석박사급 고급 R&D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20억 정도 증액 요구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52쪽입니다.

피지컬 AI 기반 시험인증 서비스 지원 모델 구축사업은 시험인증 정확도나 재현성,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인증 서비스 모델을 전주에 구축해 보자 해서 23억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AX특화 AI 모델하우스 구축·실증사업은 조선 분야 앵커기업 그리고 산학연 협력체계도 구축하기 위해서 120억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에이전트용 AI 반도체 선도기술 개발사업은 AI 반도체 개발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사업비 60억 원을 증액해 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12번 지역AX 혁신기반 조성사업은 버티컬 AI 활용 지역에 디지털미디어 혁신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콘텐츠 리메이크 스튜디오 조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6억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4쪽입니다.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은 피지컬 AI 핵심기술 동시개발이 필수적인데 기술실증을 위해서 최소한의 테스트베드가 필요예산 1000억 원, 전북자치도 일원에…… 증액하기 위해서 100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R&D) 사업은 경남 창원국가산단에 412억 정도 피지컬 AI 특화 LAM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서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금액은 조금 엄연히 차이납니다.

56쪽입니다.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은 인프라 장비 구축이 마무리되면 교육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 한 11억 5600만 원 증액하자는 얘기입니다. 강원 원주시의 대상입니다.

57쪽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사업은 디지털 선도기술 핵심인재 양성사업인데 융합형 인재 연구나 지역인재 양성사업이니까 30억 9400만 원 정도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다음 부대의견 내용입니다.

부대의견은 디지털 딥페이크 범죄대응 핵심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양성평등가족부 수사기관 등과 잘 사전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46쪽, 첫 번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입니다.

박충권 위원님께서 걱정성 검토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관련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실하고도, 통신 분야 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상 예타 대상 범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복성 문제는 아까 공공 AX 때 잠시 설명드렸습시다만 이 사업은 각 부처들이 각 부처 중심으로 하는 AX의 사업들이고 과기정통부 사업은 600억으로 저희 쪽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제들 중복성 검토는 예산 단계에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노종면 위원님께서도 의견 주셨는데요. 정부로서는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47쪽 AI 혁신펀드도 감액 위원하고 노종면·이해민 의원님의 원안 유지 의견이 있으신데요.

지금 국가성장펀드 150조가 발표돼서 AI 분야에 30조를 투자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성장펀드는 대형 인프라 또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를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각종 평가에서도 가장 부족한 게, AI 스타트업들이나 AI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좀 부족하다는 지표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 AI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모험적인 투자를 위한 투자자금은 정부가 당분간 계속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49쪽입니다.

피지컬 AI 핵심기술 POC에서 박충권·최형두 위원님께서 해양 특화형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를 위한 3억 증액을 요청하셨는데요. POC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추정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정사업이 단년도로 올해 12월에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또 새롭게 신규 내역으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법상 재정운영 원칙에 안 맞는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꼭 필요하다면 이것도 소관이 해양수산부 관련성이 있습니다만 별도사업으로 신규 편성하는 것이 신규내역으로 추가하는 것보다는 더 낫겠다는 의견입니다.

50쪽입니다.

7번 휴머노이드 중심 피지컬 AI 생태계 혁신사업과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님께서 1200

억 증액을 요청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의원실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규모 면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사업 규모 측면 또 지역산업과 연계 측면에서 별도 예타나 또 예타 면제 여부를 먼저 따지고 사업을 편성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금액은 못 받아들인다 이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다음에 51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2쪽 9번 퍼지컬 AI 기반 시험인증 서비스 지원 모델 구축과 관련해서 김우영 의원님께서 23억 원 편성을 요청하셨는데요. 이것도 의원실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퍼지컬 AI 산업이 아직은 본격화되기 전 단계로서 본격적인 장비 구축을 하기에는 내년도가 너무 시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시험인증체계나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쪽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지역도 전주시라는 지역을 특정해 주셨는데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의원실에서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수용으로 변경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53쪽, 12번 과제입니다.

지역 AX 혁신기반 조성의 내역사업으로 버티컬 AI 활용 지역 및 디지털 미디어 혁신기반 조성사업은 저희 과기정통부보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관 문제를 정리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55쪽 사업은 마이너한 아주 사소한 측면입니다만 숫자가 정확하게는 밑에 있는 412억 8000만 원, 이 2개 중에…… 내용은 소수점 단위로 약간 차이입니다만 밑의 것이 정확한 금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충권 위원 차관님, 46쪽의 이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물론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되어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 타당성 분석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 규모나 수 예측이 이루어지고 나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금 일단 사업비만 우선 배정해 놓은 건데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국가재정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절차들을 문란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일단 수요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106개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토대로 추린 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박충권 위원 이게 조사 착수가 9월 24일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것은 아닙니다.

○박충권 위원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가 8월 22일 날……

○박충권 위원 그때는 접수한 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아닙니다. 그게 예타 면제와 관련된 국무회의가 있었던 날인데요. 좀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체 사업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

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국비는 한 890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과기정통부를 비롯해서 국토부·중기부 사업은 예타와 관련 없는 사업으로 분류돼서 예타 면제나 예타 적정성 검토 대상으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예산실하고……

○박충권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래서 국가재정법 위배 문제는 그당시에도 검토를 거쳐서 문제 없다는 판단하에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업들은 예타 면제 또 적정성 검토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 적정성 검토를 거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선반영한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 쪽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들이 하는 사업, 이게 범부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업부나 다른 부처들은 규모 면이나 이런 측면 때문에 지금 예타 면제를 국무회의 의결을 했고 그 이후에 검토가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 적정성 검토는……

○박충권 위원 과기부는 끝났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저희는 그런 대상 자체가 아닌 걸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아닌데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적정성 검토를 한 결과를 그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재정법 38조 5항에 보면 예타가 면제됐다 하더라도 사업타당성 분석을 하고 그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잠깐 말씀드리고……

○박충권 위원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박태완 우리 부처는 통신 네트워크 생활 분야라서 이 분야들은, 국가재정법상에 애시당초 명시가 안 돼 있는 분야는 예타 면제 대상도 아니어서……

○박충권 위원 아니, 자꾸 예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타 면제된 건 알겠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적정성 검토라는 것도 예타 면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타 면제가 됐다는 건 애시당초 예타 대상사업이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아예 그 예타 대상사업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박충권 위원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면 아예 뭐 사업 편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런 프로세스에는 저희가 단계……

○박충권 위원 프로세스가 없이 그냥 사업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박태완 예, 통신이나 재난이나 몇 개 분야들은 그런 것이 돼 있어서 국무회의 올릴 때부터 저희는 애시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래서 다른 부처하고 사업이 좀 섞여 가지고 지

금 약간 혼돈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트랙에서 지금……

○박충권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해민 위원 박 위원님, 그것 저도 부대의견 비슷한 결론 말씀 잠깐 드릴 것……

○박충권 위원 예,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박 위원님, 말 끝나고 나머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걸 저는 감액·증액의견보다는 부대의견을 좀 남기려고 했었는데 박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절차상 이게 지금 예타냐, 뭐냐 이것보다 지금 과기정통부가, 이게 범부처 사업인 것은 저도 보고를 받아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실제 수요 대부분은 과기정통부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전체 8900억 사업 중에 과기정통부 소관은 600억 정도 규모입니다.

○이해민 위원 600억이요, 다 합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600억이요. 나머지는 각 부처들……

○이해민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과기정통부, 이 예산으로 태울 사업의 성격이 어떤 건지 조금 알고 싶은데 일부 의견으로는 우려사항은 치안하고 안전같이 행안부 소관, 내용상 그런 영역을 과기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지금 있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박태완 저희가 생활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민 위원 그렇지요? 생활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은 부처 간 기능 분담 면에서 이게 적합한가, 그래서 부처별 수요하고 역량 반영한 사업 조정 및 심사 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박충권 위원 아까 그 사업은 그렇고, 47쪽의 AI 혁신펀드는……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이것부터 정리하고.

1번, 감액은 안 하고 정부안대로?

○박충권 위원 저는 일단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보류?

○박충권 위원 예, 지금 어쨌든 보류로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조인철 바로 제출할 수가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절차적인 거는 저희 규정이 명확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알겠습니다. 보류.

하시지요.

○박충권 위원 47쪽의 AI 혁신펀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1000억인데 작년에 1·2차 추경해 가지고 1500조 정도가 사용이 됐고 이제 내년에 또 편성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150조에서 한 30조 정도를 AI에 투자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박충권 위원 이런 것이 지금 나와 있는데 동일한 성격의 예산을 또 별도로 1000억

원을 편성한다라는 것이, 지금 국회입법조사처에서의 그 결과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성격의 투자라고?

이걸 해야 되는 명분이 됩니까, 지금 30조면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인데 별도로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위원님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민성장펀드의 투자처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AI 분야에서 한 30조 정도 투자를 목표로 한다는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지금 국민성장펀드에서는 메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대형 투자처 중심으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프라적인 것 그다음에 조금 더 장치 산업이나 성장을 한 단계 더 할 수 있는 중대형 기업들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이런 쪽에 투자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박충권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누가, 어디서 주관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 펀드를 구성하는 건 알겠는데 사업 주관을, AI에 투자해서 AI 개발을 하고 있는 그 사업 주관은 누가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지금 아직 금융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인 운영 체계가.....

○박충권 위원 아니, 과기부가 부총리급으로 승격이 됐고, 관련해서 AI 사업도 주관하라고 지금 배경훈 장관님이 임명되신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맞습니다.

○박충권 위원 물론 AI 수석도 있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과기부가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는데 여기에서 별도로, 30조 이상이면 상당히 큰 투자 펀드인데 거기서 1000억을 떼서 하면 됐지 왜 추가로 또 하나 이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저희도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을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걸 별도로 큰 것하고 작은 중소기업을 따로 분리해서 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지요.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아직은 금융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진 않아서 저희로서도 구체적으로 투자처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으로 보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이런 정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투자처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제적으로도 지금 AI 스타트업들 또 AI 생태계로 투자되는 금액이 각종 국제 평가지표에서도 현저하게 지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스타트업들을 위한 투자자금이 정부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박충권 위원 명확하지가 않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국민성장펀드는 아직 저희한테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충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알겠다 하심은 께겠다? 아니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이것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지난 번 추경 때 해 주신 것도 벌써 조성이 다 돼 가지고 굉장히 좀……

○박충권 위원 지금 이게 계속성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25년부터 해서 추경까지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니까 26년에 계속성 사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이해민 위원 이 부분 말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조인철 예, 말씀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박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은 저는 부대의견 쪽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번째 AI 혁신펀드 같은 경우에는 국민성장펀드 하고 좀 별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현장에서 이것 관련된, 추경 이후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거는 주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현재 반응도 너무 좋고 이걸로 인해서 저는 소위 말하는 AI 3대 강국으로 뛰어오를 유니콘들도 이 중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혁신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기업, 중견기업만 지금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지원을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거는 원안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이야기만 해 놓고 나가 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최수진 위원 원안 유지로, 나간 관계로……

○소위원장 조인철 나간 관계로 원안 유지?

지금 지적을 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유지로 갑니다. 잘 설득해 주십시오.

다른 또 의견 있으십니까?

○이해민 위원 저 한 가지만 발언하고 이 부분은 넘길 것 같은데요.

제가 부대의견에도 달았지만 5번 디지털딥페이크 범죄대응 핵심개발기술에서 증액을 요구한 것하고 같은 결입니다. 아까 전에 수석전문위원님 언급하실 때 언급이 안 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 보고를 받으면서 디지털딥페이크 범죄대응 핵심기술 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개발한 것을 갖다 쓰는 것에서 적용하는 부분이 다 비어 있었어요. 그러면 개발만 해 놓고 아무도 안 쓸 수 있거든요. 그쪽에서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증액 요구, 부대의견을 달았음을 밝힙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예, 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요처랑 같이 협의해서 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자료 59쪽 통신정책관 소관 보시겠습니다. 통신정책관은 2건밖에 없어서……

먼저 1쪽입니다. 1번입니다.

AI 융합 OTT 글로벌 진출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143억 원을 증액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플랫폼(K-FAST) AI 기술 강화로 우리 콘텐츠를 글로벌로 유통시키는 데 앞장서도록 돈을 지원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143억 원을 증액하자는 얘기입니다.

60쪽 보시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인데요. 이용자 전화사기 대응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2026년 예산안에는 15억 7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역사업 중에 번호변작 예방·대응 활동 강화를 위해서 3억 원을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예방·대응 번호도용차단서비스라든가 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센터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20억 6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 이 부분은 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 수용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이훈기 위원 잠깐……

○소위원장 조인철 의견 있으면……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AI 융합 OTT 글로벌 진출 확산 이게 내용을 봐서는 뭘 한다건지 잘 모르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입니다.

OTT 관련해서 AI를 활용해서 더빙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훈기 위원 더빙 지원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예, 그렇습니다.

보통 자막으로 보게 되면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볼 때 상당히 한국 콘텐츠를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더빙을 저희가 하는……

○이훈기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콘텐츠에 더빙을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국내에서 만든 콘텐츠들이고 주로 5년 이내에 만들었던 신규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면 어느 콘텐츠로 할지 선정은 누가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다음 61쪽 전파정책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번입니다.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용 지능형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R&D) 사업입니다.

2026년 예산에 38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

발 예타사업에 연계되는 선행사업인데 6G 기반 성과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 대비 부족한 부분 71억 원을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에 3GPP기반 위성통신 단말 핵심기술 개발(R&D) 사업인데 4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타사업에 연계되는 선행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글로벌 적기 확보를 위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부족분 65억 25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요구입니다.

62쪽입니다.

3번 디지털 인프라 확장을 위한 전파 핵심 기술개발(R&D)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26년 예산안에 3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차세대 통신 산업에 필수인 위성통신 분야 국제표준 개발이 조금 필요한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전략적 대응을 위해서 신규과제 지원하기 위한 12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위성통신 기업 성장기반 조성 사업은 국내 기업들이 제품화하고 시장 진입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주고 시험검증 인프라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억을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5번, 63쪽입니다.

이것은 아까 AI 융합 전파에너지 기반 가축입니다.

가축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 조성 사업인데 가축전염병 피해 사례가 있으니까 가축질병 모니터링 분야의 기술실증 플랫폼 조성하기 위해서 15억 원을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64쪽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전파 기반 중소기업 전자과대책 기술지원사업인데 예산안에는 5억 83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AI 기반 기술 지원해서 지역이나 시간 제약 없이 24시간 동안 온라인 지원 체계 하기 위해서 약 25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차세대 방송미디어산업 선도 기반 조성사업은 13억 82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공공기관 AI 방송장비 도입 기반 확대하기 위해서 23억 800만 원 증액하자는 요구입니다.

다음, 65쪽입니다.

AI 융합 전파에너지 기반, 이것도 가축입니다. 아까 일반회계 5번 사업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실시간 모니터링 사업으로 30억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이야기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전파 쪽 사업은 내용상 저희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중복된 과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 3번 과제입니다. AI 융합 전파에너지 기반 가축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64쪽의 1번 과제와 동일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64쪽의 1번으로 병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죄송합니다. 63쪽 5번 과제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최 위원님, 맞습니까? 동일해서 두 분 것 합친다는데? 65쪽 것하고

63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65쪽 것을 63쪽 5번으로 병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제가 봐도 똑같아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내용상 똑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됐지요?

○최형두 위원 예.

○소위원장 조인철 말씀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저래도 군집 위성통신용 지능형 지상국 핵심기술개발 이것하고 그 밑의 것하고 여기 보면 이게 예산이 안 되면 '6G 기반 위성개발사업 일정에 차질이 우려됨', 2개 다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6G 기반 위성개발사업 일정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올해부터 시작되는 6G 표준화를 목표로 한 예타사업이 시작되는데 6G 전에 유스 케이스(use case)를 만들려면 5G 기반에서 진행돼야 되는 브릿지 사업을 그동안 편성해 왔습니다. 그 부분이 1번은 지상국에 대한 거고요 2번은 단말국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업이 실제 스테이션이 다르다는 취지에서 기술 기반이 다른 과제로 돼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니까 6G 기반 위성개발사업을 언제 하냐고 시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오용수 25년부터 30년까지 6년간……

○이훈기 위원 25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오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훈기 위원 우리나라가 6G 언제 해요, 통신사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통신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6G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제시한 일정이 2030년 상용화 일정입니다. 그래서 2030년 상용화를 위해서 표준개발 작업을 전 세계 통신 당국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지금 우리가 완전한 5G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 안 하고 그냥 바로 6G로 가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진화 단계상 위원님 말씀하신 5G 스탠드얼론(SA)로 지금 진화를 해 나가고 그걸 또……

○이훈기 위원 그러면 5G SA는 언제 하고 6G는 몇 년에 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지금 5G SA는 내년도에는 통신3사가 다 적용을 하도록, 26년이면 저희가…… 원래 5G가 2020입니다. 2020년 상용화해서 10년을 5G가 감당을 하고 2030년에 6G가 감당을 하도록 스케줄이 돼 있는데요. 그 중간쯤에 저희가 SA로 전환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면 5G SA를 2026년부터 한 5년 하고 2030년에 6G가 된다는 거예요, 계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저도 한 가지만 여쭙보고 가도 될까요.

AI 융합 전파에너지 기반 가축, 이걸 어디서 하게 되는 겁니까,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오용수 저희가 제기받은 사업은 경상북도TP가 경산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은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경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오용수 예, 경북 경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TP에서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오용수 경북TP가 지금 사업 주체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이런 사업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 개발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중앙부처에서 농림부면 농림부, 이번에 AI 에이전트 많이 하잖아요.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오용수 지역에 대한 특정을 저희가 검토했던 건 아니고요. 전파 일반에 대한, 이미 기존 센터가 있는 데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무선전력전송 같은 기술센터들이 이미 갖춰져 있는 데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일단 후보지를 검토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후보지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이게 개발이 되면, 진짜 효과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지금 가축이라고 그러는 게 AI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병들 이야기하는 것일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오용수 예.

○소위원장 조인철 그 병들을 전파로 탐지해 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개발해서 거기에 맡겨 둘 게 아니고 지금 AI 이용한 공공서비스 개발도 하고 될 많이 한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서 통합적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게 낫지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이것은 일단 저희가 무선전파에너지 기술을 중심으로 여러 시범사업들을 해 보고 있는데요. 가축 관련된 모니터링하는 플랫폼은 기존의 무선전파에너지 관련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데에서 먼저 개발을 하고 지역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당연히……

○소위원장 조인철 글썄, 뭘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플랫폼까지 개발을 하시겠다고 그러시잖아. 그런데 그 플랫폼을 경남에다 놓고 하신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많잖아요, 이것 관련한. 지금도 보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굳이 별도로 경산을 찍어서 경산TP에 돈을 줘서 하겠다고 하는 게 안 맞아 보인다는 거예요, 사업추진 체계상.

경산TP면 대구TP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오용수 경북TP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경북TP에서 그걸 지방에서 그냥 자기 지역만을 위해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안 맞아 보이고 이게 진짜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장님, 일단 경북TP에서 제안을 받은 건 맞는

데요. 저희가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서 특정 지역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저희가 전체 중앙에서 활용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자료 66쪽 보시겠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일반회계 1건입니다.

AI 기반 주파수 간섭분석 및 전파 예측기술 개발(R&D) 사업입니다.

2026년 예산에 30억 7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은 미래 수요가 조금 예상되는 비지상파까지 주파수 간섭분석도 해 보고 전파특성 예측 연구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6억 원을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저희 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전파관리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자료 67쪽 보시겠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입니다. 일반회계 2건 있습니다.

먼저 1번, AI 활용 미인증기자재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안에는 76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해킹·통신장애 이런 게 사회적 피해가 크고 확산이 빠르는데 미인증 방송통신기자재의 적기 확인, 조기 차단을 위해서 AI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보고자 또 사업 긴급성도 있고 해서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축예산을 바로 18억 84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AI 기반 전파측정 종합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인데 이게 전파감시시스템이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AI로 고도화하고 또 고도화된 전파감시시스템의 최적 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관련되는 인프라도 구축하고 분석프로그램도 개발·구축하는 19억 9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정부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67페이지 두 번째 것이 사실 내용상으로 66페이지에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소위원장 조인철 몇 페이지요?

○이해민 위원 바로 옆에 있는 국립전파연구원 것이, 66페이지에 있는 것은 비지상파까지 간섭분석까지 하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67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것 전체를 전파혼신

증가에 대응하고 고도화한 전파감시시스템을 양쪽 둘 다, 두 사업 다 AI 플랫폼을 만들어서 개발하고 구축하겠다는 거라서…… 또 아마 과기정통부에서는 기술적으로 양쪽 것을 합하기 좀 어려움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의견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 상태로 유지하시되 어느 한 곳에서 어느 한 곳의 것을 중복해서 한다기보다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걸 요청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실 말씀 하십시오.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요 전혀 다른 별개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전파감시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하고 있고요. 전국에 한 74개의 고정국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동안 예산을 한 500억 정도 반영을 해 주셔서요 24년까지 사실은 시스템을 갖다가 하드웨어는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정보시스템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측정 같은 건 할 수 있어도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예산을 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개가 사실은 별개의 다른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저희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전국에 깔려 있는 74개의 고정국에서 저희가 수신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시스템을 고도화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신한 데이터를 시계열별로 또는 지역별로 분석을 하려면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서버라든지 저장장치라든지 분석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그동안에 예산 지원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서 그걸 지원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드리면 이해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국립전파연구원의 연구는 약간 원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 증액 요청드리는 것도 수증과 같은 비지상파의 전파특성을 연구해서 전파주파수 간섭분석을 하는 연구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중앙전파관리소에 주파수 간섭하는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당연히 그렇게 연계되는 지점을, 저희가 계속 연구된 결과를 실제 중간소에서 할 때 활용하는 이런 것도 연계는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민 위원 내용상 2개가 별개 과제로 가는 것은 맞는데 방금 차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원천기술 쪽이고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넓은 영역까지 분석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나중이라도 시너지가 나야 된다 그렇게 의견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이해민 위원님의 말씀이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타당하십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꼭 수용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넘어갑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우정사업본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자료 68쪽 보시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 2건 있습니다.

먼저 우편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건 우편업무정보화 예산인데요. 지금 353억 81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이게 우편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 잘해야 되는데 광주 국정자원 DR을 대전 주 시스템하고 동일한 규모로 확충하기 위해서 ISP로 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예산 4억 3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 우체국예금특별회계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이것은 우체국금융 정보화 예산인데 같은 내용으로 광주 DR을 대전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ISP 추진 예산 8억 700만 원 증액 요구하고 있습니다.

70쪽, 부대의견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내용이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의 상품권 지급 집행 근거를 조금 보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상품권 등을 지급했는데 예산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했으니까 앞으로 편성 과정이라든가 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잘 거쳐서 기념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 우체국 시설을 잘 활용해서 디지털배움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69쪽, 우체국금융 정보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내용상이나 금액은 다 수용인데요. 단 한 가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국정자원 입주 정보시스템별로 DR 고도화에 따른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단계에서 그쪽 예산이 편성되면 여기에 추가로 8억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차원에서 그때 정리되는 대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차관 소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잠깐만요. 위원장님, 오전 심사 시에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한 사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4쪽, 소프트웨어정책관 방발기금 3번 과제입니다.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 양성사업인데요. 그 내역사업인 글로벌 데이터 융합리더 양성 증액 요구 2억 8100만 원이 바로 위에 있는 세부사업 증액 요구 94억 83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증액으로 포함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박충권 위원님.

○박충권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감사합니다.

○박충권 위원 차관님, 빼는 게 아니고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음 순서는 원래 방미통이었는데 저기 멀리서 올라오신 분들이 계셔서—사천에서 올라오신 분들—항공청 먼저 하겠습니다. 간단히 몇 개 안 되니까 보류 안 하면 항공청은 빨리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빨리 자리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혹시 옆에 저희 질의하고 하실 때 말씀하시게 되면 꼭 소속하고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두 분 아셨지요?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예.

○우주항공청기획조정관 이재형 예.

○소위원장 조인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임명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대의견입니다.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본부를 신설하고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대전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쪽입니다.

우주항공정책국 소관 1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처우 개선에 필요한 21억 1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서 26억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우주과학관 개선을 위해서 50억 증액하고 또 27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2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시설 지원사업에서 기존에 가스터빈 연소기가 있는데 노후화돼서 시설 개선을 위해서 18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번,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처우 개선에 7억 8000만 원 증액 그리고 천문관측 인프라 개발 및 운영 예산에 47억 원 그다음에 외계행성 탐색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10억 증액 요구가 각각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4번, 우주항공 전문인력 양성 관련해서 우주임무 실습교육을 위해서 18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5번, 우주항공문화 저변 확대사업에서 큐브위성 경연대회를 위해서 9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6번, 산업연계형 인력 공급시설 기반 구축을 위해서 32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부대의견 3건 있습니다.

1번, 우주기술 혁신인재 양성사업과 관련해서 산업체에 필요한 실무형 고급인재와 해

의 우수인재를 시급히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번, 항우연하고 천문연의 연구자 임금과 처우를 유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원이나 원자력연구원 수준으로 충인건비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3번,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상황인식정보관 건립사업을 BTL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소위원장 조인철 3번이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부대의견 3번입니다.

자료가 수정됐는데 그게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주항공산업국 6쪽입니다.

1번,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에서 발사체 연소시험시설 기반 확보를 위해서 설계용역비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7쪽 2번, 민간우주항공 산업생태계 조성사업에서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첨단제조 실증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서 장비 구축비 3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2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설립하자는 의견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전남에 설립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경남에 설립하자는 의견 해서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8쪽입니다.

4번, AI기반 위성정보 활용서비스 확산사업에서 지자체 등의 공공수요 기반 위성활용 실증 및 모델 상업화를 위해서 3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번, 우주기술 상용화 실증 지원사업에서 위성 탑재체 선정·계약과 검증위성 구매 및 민간 발사체 업체 선정·계약 등을 위해서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9쪽입니다.

6번, 뉴스페이스 투자 지원사업에서 우주 전용펀드 출자 규모 확대를 위해서 1000억을 추가로 더 하자는 의견하고 아예 신규 펀드 조성은 중복 투자에 불과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번, 우주급 중이온 시험시설 구축사업을 위해서 1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0쪽, 8번입니다.

우주항공지역 혁신기반 구축사업에서 산업 기반 구축에 1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하고 UAM핵심부품 인증지원체계 신설을 위해서 10억 원 그리고 우주사업 특화 3D 프린팅 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30억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1쪽, 부대의견입니다.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에 기반영된 장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2쪽 우주수송부문 관련해서 1번,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에서 누리호 1회 추가 발사 예산 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2번,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에서 2032년 달 착륙선 발사일정 준수를 위해서는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항공혁신부문에서 1번, 드론로봇연계 도심지 고중량화물 멀티모달 배송기술 개발사업

에서 공공수요 기반 재난안전 대응 드론체계 개발 및 실증을 위해서 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번, AI드론용 디지털트윈 인프라 개발사업에서 40억 증액 요구가 있었고.

3번, 수직 이·착륙기 비행안전성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 1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입니다.

1쪽, 기획조정관 1번 부대의견은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 발생 방지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2쪽 우주항공정책국 1번, 항우연 운영비 지원은 모두 수용하되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예산은 50억 원 증액을 반영해서 인건비 처우 개선 21억 1200만 원, 우주과학관 50억 이것을 합쳐 가지고 저희가 71억 1200만 원 증액 수용입니다. 중복되는 의견이 있어서 합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3쪽, 수용이고요.

4쪽, 우주항공 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 우주임무 실습교육 18억 5000만 원 증액의견은 수용하지만 우주항공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26년도, 내년도에 종료 예정이라 다른 사업인 우주기술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4쪽 6번, 산업연계형 인력 공급시설 기반 구축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선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명을 '산업연계형 인재양성 시스템 타당성 검토'로 바꾸고 용역비 2억 원만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쪽 부대의견, 소관 출연연 인건비 조정 필요 관련해서는 점진적으로 인건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 문구인 '예산에 반영한다'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로 수정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앞부분에서 항우연 21억 1200만 원 그리고 천문연 7억 8000만 원의 인건비 증액은 이미 수용하고 있습니다.

6쪽 우주항공산업국 1번,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의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은 20억 원 증액 수용하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이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를 별도 사업으로 신설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쪽 2번, 민간우주항공 산업생태계 조성사업의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첨단제조 실증지원 기반 구축 용도로 30억 원을 증액하는 것은 수용하되 사업체계상 10쪽 8번, 우주항공 지역 혁신기반 구축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쪽 2번과 3번의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분석 관련해서는 우주항공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산업 육성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동 기관의 구체적 설립안 마련을 위해 별도 신규사업으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분석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 2억 원 증액을 수용하되 다만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명에서 지역 표기를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9쪽 6번, 뉴스페이스 투자 지원사업의 경우에 1000억 원 삭제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

기 어렵습니다.

10쪽, 우주항공 지역혁신 기반구축 관련해서는 모두 수용이며 앞서 말씀드린 7쪽 2번,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첨단제조 실증지원 기반 구축사업도 우주항공지역 혁신기반 구축의 내역사업으로 추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우주항공지역 혁신기반 구축 관련 총사업비 규모는 190억 원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는 전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연한 지역 갈등 소지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역명을 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주항공 정책이 삼각편대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잘 명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의 연구는 항우연과 천문연에서 대전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발사기는 고흥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사기지는 또 그와 관련돼 부가 사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선 까닭은 바로 가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 KAI가 있습니다. 항공산업에 우리나라 최고 커패시티(capacity)를 자랑하는 곳이고요. 다음에 우주항공산업 스페이스십(spaceship)도 우리 마스트(mast)가 나오는 ship(ship)이랑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엔진 기본체계로 구성되는 겁니다. 기계산업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계산업이 축적돼 왔던 창원에 종합제작 입지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여기에 수많은 전후방 기업이 연결돼 있습니다. 때문에 산업의 측면에서는 우주항공산업을……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고 그냥 발사체를 외국에 의존하면 됩니다, 미국이 지금 하듯이.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주산업, 우주항공 경제를 키우고 그로 인한 산업적 부가효과까지 올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우주발사체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쏘고 우리가 개발해서 산업적 부가가치를 높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 레거시(legacy)가 쌓여 있고 헤리티지(heritage)가 쌓여 있는 그런 산업 기반을 활용하지 않고 수많은 전후방 밸류체인을 무시한 채 다른 곳에서 산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항공산업의 기본 기술에 대한, 발사체라든가 동력체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미 다 구축되어 있는데 굳이 산업이라는 것을 이름 붙인 것을 다시 거기에 붙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산업이라는 것은 그 산업이 있는 현장에 가까워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우주항공청에서 또 우주항공산업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질문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특정 지역을 못 박으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우주 경제, 우주항공 경제, 삼각편대를 생각하는 우리 우주항공산업의 국가적인 프레임을 허물 수 있는 공연한 지역 마찰로 이 문제를 오히려 지체시킬 수 있는 논란만 제공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주항공 연구개발, 산업 또 발사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연관시켜서 최적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박충권 위원 저 있습니다.

9쪽에 뉴스페이스 투자지원 사업 이것 원안 유지입니까? 증액 의견 있고 감액 의견이 있는데……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저희가 증액 의견은 수용을 하고 감액 의견은 수용하기 좀 어렵다……

○박충권 위원 2000억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예.

○박충권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 결성된 투자펀드들 있지 않습니까. 2023년부터 쪽 되어 오던 것들이 있는데 23년에는 결성 금액의 40%밖에 투자가 안 됐고 24년에는 35.4% 실투자됐고 25년에는 아예 아직 한 톨도 투자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동일 성격의 투자펀드를 또 추가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예, 이게 그 당시 2023년 시작할 때는 5년간 펀드를 투자하고 그다음에 결성이 되면 5년 상환을 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좋은 VC를 선정하기도 어렵고 또 VC 입장에서는 투자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할 때는 단년도 사업으로 규모를 키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5년 거치 5년 투자 그리고 이후 5년 상환 이런 형태로 하는 걸로 사업구조를 좀 바꾸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박충권 위원 수요들은 많이 있습니까?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예, 수요는 저희가 조사를 했고 수요조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2023년에는 5년에 500억 정도의 규모를 생각했다가 지난 정부에서 2024년에는 그걸 1000억 규모로 예산을 증액하자 그렇게 의견을 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국회 논의 단계에서 저희가 증액 요청을 한 상황이었었는데 검토가 안 됐었고 지금 이것 과거의 사업들도 5년 투자를 하고 5년 상환을 받는 형태다 보니까 경과 기간에 비해서는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을 5년 동안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충권 위원 작년에 제안을 했는데 안 됐다는 겁니까?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예, 작년에 국회 판에서 논의를 하다가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박충권 위원 감액됐었습니까, 그때는?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감액도 안 되고 증액도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면 지금 우주항공청에서는 1000억을 냈는데 지금 세 분 위원님은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어느 금액이 맞는 겁니까, 우주항공청 입장에서는?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저희는 2000억 규모가 돼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집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막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저희가 수요조사 한 걸로는 그 정도의 규모가 나왔는데요.

○박충권 위원 얼마로 나왔습니까?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수요조사 결과로는 3000억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박충권 위원 사업을 해 보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막 크게 편성을 해도 되는 거예요?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23년부터 집행을 해 오다 보니까 충분히 수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런데 수요가 있는데 이게 실투자 비율이 40%밖에 안 됩니까?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VC 입장에서는 5년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그러니까 100억이 있으면 100억을 다 한꺼번에 집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입니다.

○최형두 위원 제가……

○소위원장 조인철 잠깐만요.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이 부분 제가 증액 의견을 드린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도 NASA에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민간투자 쪽에서 우주산업이 더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뉴스페이스라는 단어도 나오게 됐고 스페이스X도 그렇고 다수의 스페이스산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 펀드 없으면 사실 불가능했었던 일이고 AI처럼 이 분야 또한 지금 우리나라가 더 늦기 전에 스페이스산업에 대한 종합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1000억을 더 증가시켜서 2000억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투자 달성률 부분은 기존 펀드 투자기간 경과율 30%보다 높습니다. 사실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2000억 원을 한다 하더라도 톱10 10개국 거기는 GDP 대비 평균 0.02%인데 이게 0.01%거든요.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까 수요 했더니 3000억 원 얼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모자라는 상황이다 이 말씀 전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박충권 위원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서……

○박충권 위원 저는 일단 원안 유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 조인철 원안 유지?

○박충권 위원 예.

○소위원장 조인철 1000억?

○박충권 위원 상세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예, 참고로……

○소위원장 조인철 박충권 위원님, 지금 제안해 주신 것 고맙고요. 그러니까 박충권 위원님이 원안 유지로 가시겠다는 이야기는 1000억은 깎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원안 유지를 말씀하시면 이해민 위원이 제기한 것까지 결정을 하시는 상황에서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원안 유지로 가신다 그러면 삭감은 안 하겠다……

○박충권 위원 이해민 위원님……

○소위원장 조인철 2000억…… 지금 1000억 더 추가로 해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박충권 위원 예.

○소위원장 조인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나는 그냥 1000억으로 해 달라라고 하면 이해민 위원 것은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져서……

○최형두 위원 이게 절충안이 사실은……

○소위원장 조인철 잠깐만요. 마무리를 좀 짓고.

○최형두 위원 아니, 내가……

○박충권 위원 말씀하세요.

○최형두 위원 제가 할게요.

이게 우리 당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큰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 증액을 하려 그러면 감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편성해 온 것을 보면 우리 생각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관성이 있고 또 부처들이 다 있고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가 또 하나의 자기 몫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변화하는 상황이라든가 지역의 특별한 사정이나 또 그 사이의 정부연구기관들의 여러 노력들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증액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막 해 놓고 예결위에 가면 결국에는 엄청나게…… 우리가 몇조를 갖고 가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우주항공청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 달라는 것인데, 뭐냐 하면 2025년에는 펀드가 조성됐는데 하나도 집행실적이 없어요, 지금 다 갚는데. 또 마구 쌓아 두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일종의 약간의 실링이 있고 우리 국회에서 생각하는 증액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안을 어느 정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것 아닌가.

사실 저희들은 1000억 깎자는 쪽이었는데 지금 박충권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정부안대로 가고 1000억을 더…… 사실 이것 약간 곤란한…… 정부로서는 그러면 수용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건데……

이해민 위원님,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조인철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사실은 수요는 3000억인데 나름 자체 수용하여 2000억이 된 거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쪽이 뭐냐 하면 1년 만에 뭔가 아웃풋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AI GPU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전 세계가 약간 켄의 전쟁으로 가고 있는 쪽이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VC들은 여기 뛰어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완전 비즈니스적으로만 봤을 때 수요는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VC들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때 펀드 조성하는 기준에 따라서 1000억이면 안 하고 2000억이면 간당간당할 수 있는 그 정도 라인이지 않을까 해서 그걸 계산을 해서 1000억을 넘긴 거지 사실 마음에서는 2000억 원을 더 증액해서 3000억 원 수요에 맞추고 싶은데 아마 2000억 원이 마지노선일 것 같고 만약에 이게 그것보다 떨어지면 VC들은 그냥 뺄 거예요. 그걸 감안을 해서 2000억 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예, 저기……

○박충권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요.

제가 드린 말씀은 올해 편성된 예산이 역대 최대로 칠백이십몇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국가 예산이 사용되는데, 제가 국감에서는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공개질의는 못 했었

습니다마는 항우연이랑 비롯해서 우주항공청이 지금까지 국비 2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개발한 기술을 한화에다가 200억 원에 팔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개발 투자 비용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기술개발 내용을 다…… 특히 이전을 했는데, 기술이전을 했는데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이 돼 버렸고 그래 놓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VC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VC들이 지금 참여를 원하는데 금액이 작아서 못 들어오는지도 명확하지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지금 수요조사 언제 하셨어요?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수요조사를 상반기, 하반기에 했고요.

○소위원장 조인철 그런데 예산 3000억이 다 투자될 수 있다…… 3000억이면 민간펀드까지 하면 6000억 규모 되지 않나요?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삼천몇백억 수준입니다. 민간……

○소위원장 조인철 포함해서?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예, 포함해서요.

○소위원장 조인철 포함해서 삼천얼마예요?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3200억 수준……

○소위원장 조인철 3200억 수준?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예.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1000억만 있어도 되겠네.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는 우주펀드가 1조엔……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일본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수요조사 해 봤더니 전체 다 해도 3000억 내외면 좀 소극적으로 잡아서 한 2000억 정도 하는 것도 초창기니까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어때세요? 저는 아까 3000억이라 그래서 정부예산만 3000억이 다 소진될 거다라고 판단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보면……

○이해민 위원 그러면 1200으로 할까요, 아예?

○소위원장 조인철 이게 흥정거리는 아닌 것 같고……

○이해민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조인철 예,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게 어떨까요?

○이해민 위원 저는 박 위원님께서 우주청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게 뭔지를 국감 통해서도 너무 많이 봤고 저도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우려는 동일하게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2000억을 유지하되 대신 우주 분야 기업의 창업 활성화부터 스케일업하는 것까지 전 주기 종합지원이 가능한 사업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걸 내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2000억 원으로 하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2000억을 고수?

○이해민 위원 예.

○소위원장 조인철 이해민 위원님 지금 증액한 1000억을 고수하시는 거잖아요?

○이해민 위원 예.

○최형두 위원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가 나중에 예결위에서도 과중 예산으로……

○소위원장 조인철 이해민 위원님, 지금 2000억이면 그다음에는 4000억이거든요. 소진이 안 됩니다. 이게 단년도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소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을 쌓아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해민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조인철 그런 측면에서 정부 예산을 약간 소극적으로 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 원안 유지하는 게 어떨습니까? 내년에 좀 더 늘리시지요.

○이해민 위원 예, 지금 속기록에 남았지요, 내년에 더 늘린다는 게?

○소위원장 조인철 예.

어떻습니까?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두 분 수용하시는 거지요?

박충권 위원님, 그러면 1000억으로 정부 원안……

○박충권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조인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됐지요?

○전문위원 임명현 우주청 의결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지금 총중액이 618억 9200만 원 됐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일부러 제가 계속 비딩을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안 하고 또 보류하면 빨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내려가시라고 하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총 618억 9200만 원 중액이었고요. 부대의견에서는 연구개발본부하고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대전에 신설할 것을 검토한다는 건 제외하기로 했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 부대의견 4건 채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중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부대의견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조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소위원장 조인철 잠깐만요.

각 국별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지요, 이거 다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미통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방미통위 기획조정관·대변인실 먼저 합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번이 236억 51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본부 총액대상 인건비입니다. 이번 정부 조직법 또는 방미통위 설치법 등 개편 등으로 인해서 정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내용이라서 24억 3100만 원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2번은 방송미디어진흥국 총액대상 신규, 이 또한 기본경비 87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방송미디어진흥국 1억 9100만 원 또한 기본경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운영지원과도 2억 5000만 원이 기본경비입니다. 직책수행경비라든가 경비입니다.

그다음에 5번 운영지원과 3억 200만 원도 일반수용비, 임차료, 국내여비 등의 기본경비입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관실은 금액이 8억 2800만 원인데 이건 조직 전체 운영비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비상임위원 수당이라든가 국내여비 등 사실 기본경비입니다.

방송정책국도 1억 8600만 원 국 소관 기본경비입니다.

3쪽입니다.

이용자정책국 1300만 원도 기본경비입니다.

방송기반국 3000만 원도 기본경비입니다.

그다음에 10번 국내외협력업무수행, 아래 1억 2600만 원이 금액은 좀 다른데 위의 5억 26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제협력업무수행 1억 2600만 원으로 증액하자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5억 26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국제협력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5억 2600만 원 증액입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법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 수당 등 사실상 경상경비입니다, 4600만 원.

그다음에 12번, 행정사무정보화도 1억 7500만 원인데 방송진흥정책국이 신설되어서 전산장비라든가 시설장비 등 구매를 위해서 1억 75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다 경상경비라든가 기본경비 증액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1페이지 1번부터 3페이지 9번까지 기본경비 인상에 대해서 기관 운영의 필수적인 예산으로 새로 출범하는 방미통위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 10번, 두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요. 국제협력 업무의 정상화 그리고 주요 정책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5억 2600만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 11번, 12번에 대해서도 증액에 대해서 수용 동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국내외협력업무수행 5억 2600하고 1억 2600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국내외협력업무수행이……

○소위원장 조인철 5억이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3페이지에 보시면 두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 위의 것이 보면 국내외협력업무수행 4억 원을 증액하고 국제협력업무수행에 1억 26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래서 합이 6억 5200이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래서 5억 26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밑의 것이 위에 포함되는 거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5억 2600을 증액해 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의견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 올려도 돼요? 굉장히 너그러우시네요.

○박충권 위원 어차피 예결위 가면 다 달라질 건데……

○최수진 위원 잘릴 거예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조인철 주도적으로 하십시오.

○박충권 위원 저는 작년에 운영비까지 다 삭감됐던 방통위가 이제 방미통위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원안에는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지만 증액한다고 이게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짐작하고 있어서……

어쨌든 뭐 의견 없습니다. 이제 좀 살아야지요, 방미통위도.

○소위원장 조인철 앞에 건 지금 과기부 조직이 넘어오면서 부대 예산들이 넘어온 거고 나머지는 지금 기본경비가 작년 베이스로 해서 평균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떨어진 것

그거 좀 보충해 달라는 거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다음 5쪽, 방송정책국 자료 보시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310억 8300만 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는데 그래도 EBS 프로그램 제작을 좀 지원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작되도록 지원해 주자 그래서 50억 원을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감액입니다.

110억 2200만 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위원회에서 자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소관 기관하고 예산 지원기관의 불일치가 있으니까 이걸 문체부 예산으로 이관하고 전액 감액을 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아래 3번입니다.

국악방송 지원도 아리랑국제방송 지원과 같은 내용입니다. 47억 3200만 원을 전체 감액해서 문체부 예산으로 이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건 다음 페이지 4번,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강화와 연결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먼저 157억 5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건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하고 또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서 프로그램 제작, 유통 또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으로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 35억 4000만 원은 지역·중소방송 지원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내용으로 이 금액에 차이가 날 뿐이지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5번,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예산안에 188억 6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역사업을 보시면 미디어 역량 교육 강화라든가 시청자 권익 보호 지원이라든가 시청자 권익 증진을 위한 인프라 운영 등을 위해서 102억 3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래 87억 6400만 원 이혼기 위원과 이해민 위원이 증액하자는 내용도 세부내역들을 보시면 102억 36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래 또 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50억 원도 102억 36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인천 제2시청자미디어센터를 위해서 21억 증액하자는 내용으로 이혼기 위원님이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또 37억 6000만 원의 김현 위원이 요구하는 미디어교육 인프라 개선도 위의 세부내역을 보시면 102억 3600만 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8쪽입니다.

6번,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3억 원 증액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7번입니다.

TBS 운영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74억 8000만 원인데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재난 등 생활방송도 제공하고 또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외국어라디오방송 지원도 있기 때문에 52억 8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교통방송 제작지원 22억 등 해서 74억 8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만 원안을 유지해서 반영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의견은 방발기금이 부족한 문제라든가 또 TBS가 재난방송을 지연했던, 운영이 부실했던 문제점 등을 감안해서 반영하지 말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라디오방송 지원입니다.

이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국내 정보 접근권 보장 등을 위해서 80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얘기입니다.

또 원안을 유지하자는 이유는 같은 이유로 반영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9쪽 부대의견 보시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을 문체부로 이관하고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시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부분을 조건부과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자는 내용입니다.

4번은 재난방송 수신설비 설치·관리를 유도하자는 내용인데요. 이게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수신설비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관리기관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5페이지, 1번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2번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3번 국악방송 지원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수용하지 않고 다른 의견이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해 주십시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알겠습니다.

이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6페이지 4번의 경우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방미통위에서는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서 잘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이게 4번이 겹치면 위에 걸로 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위에 걸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훈기 위원 이해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리고 7페이지 5번도 지금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시청자 권익 보호나 미디어 역량 교육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주시면 저희들이 살뜰히 잘 쓰겠습니다. 동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섯 가지인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으로 많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방안은 최형두 위원님, 김장겸 위원님이 제시하신 첫 번째 안 플러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이훈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안을 합치면 가장 크게 예산을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렇게 되면 공통분모 다 빠지고 딱 정리가 되는 겁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8페이지 7번, 8번은 증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7번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교통, 생활정보 제공 등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4억 증액안에 대해서 동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8번, 외국어라디오방송 지원과 관련해서 수도권 유일의 외국어라디오방송인 TBS eFM이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재난, 재해 등 필수 생활정보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80억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박충권 위원님.

○**박충권 위원** 7번, 8번 TBS 운영 관련해서는 저는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재난방송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20년 이후에는 77%가 지각 송출했고 재난방송사로서의 자격 미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8번, 외국어라디오도 마찬가지로 22년 8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있었던 영어 프로그램 재난방송이 제대로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발기금이 고갈 상태인데, 적자 운영 상태인데 여기 방발기금을 가져와서 지원한다라는 것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원안 유지 요청드립니다.

○**김현 위원** 방심위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저희 들어와 있습니다.

○**김현 위원**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최형두 위원** 가만있어 봐, 저기 뒤에 막 출입이 어려울 정도인데 여기 누구 앉으시고 자리를 좁……

○**김현 위원** 김현입니다.

방심위, 방통위, 지금 방발기금 고갈 팩트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TBS가 재난방송을 제대로 못 했는데 혹시 심사, 심의한 게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심의한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김현 위원** 마이크 좀 주세요.

○**최형두 위원** 아니, 저 두 자리에 앉으세요. 출입이 안 돼요, 지금.

○**김현 위원** 마이크를 주시라고요.

○**소위원장 조인철** 이야기하실 분은 저쪽으로 가서 앉으십시오, 테이블에.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 테이블 비어 있잖아요.

○김현 위원 두 자리 비어 있는 데 앉으라고요.

○최형두 위원 앞으로 오세요.

○김현 위원 거기 어디예요, 지금 그쪽 서 계시는 분은? 의자가 없어요?

아니, 아까 회의 정리할 때 의자 좀 확보해 놓고 앉아서 얘기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세요, 행정실. 과방위 갔더니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한다고 얘기 들어와요.

○소위원장 조인철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이거 국감에 얘기했는데 재난방송이 지연됐다, 방발기금이 고갈된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방발기금이 고갈됐어요?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답변하시라고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고갈되었다기보다는 방발기금이……

○김현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이전보다는 줄어든……

○김현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아무래도 방발기금……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요. 방발기금이 덜 걷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방송사업자들이 어려운……

○김현 위원 KBS가 방발기금을 얼마 줄었습니까? 2003년, 23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 못 하지만 광고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김현 위원 박동주 국장님, 방발기금이 KBS 때문에 얼마 줄었어요? 실무자 없어요, 배석자? 이거 물을 거라고 안 봤어요? 얼마 줄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기획조정관입니다.

○김현 위원 마이크 주세요.

고갈 상태인지 그다음에 줄어든 원인을 답변해 보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기획조정관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수입의 주요한 부분은 주파수 할당대가랑 그다음에 방송사 분담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 분담금 같은 경우는 매년 조금씩 줄고 있고요.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은 공자기금을 통해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30년도부터는 일부 원금도 저희가 상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갈됐는지 질문에 대한 답이 그거예요? 고갈이냐고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아직 고갈은 아닙니다.

○김현 위원 고갈이 언제 됩니까, 그러면? 방송사가 몇 개 문 닫아야 고갈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성종원 예.

○김현 위원 그다음에 방심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방심위 기조실장입니다.

○김현 위원 TBS가 보도를 지연했지 재난방송을 안 해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문제가 된 게 있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특별히 문제 된 건 없고요. 아무래도……

○김현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수치가 나와요, 77%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아니, 지연됐다고……

○김현 위원 지연된 원인이 뭐예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TV 같은 경우는 자막이나 이런 걸로 적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라디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래가 나간다는가 진행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좀 충실히 했다고……

○김현 위원 그럼 이거 심의 대상에서 행정 제재의 대상입니까, 법정 제재의 대상입니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그거는 매체의 특수……

○김현 위원 늦게 났더라도, 방송이 지연됐더라도 시간 안에 %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아마 매체의 그런 특수성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 제재나 이런 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좀 앞에서부터 다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리랑방송하고 국악방송 전액 삭감 수용하셨네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일단 저희는……

○소위원장 조인철 삭감을 전액 수용하시는 건 좋은데 여기서 삭감되고 저쪽에서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정부 체계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지금 문체부하고 협의됐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문체부에는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문체부에 증액 요구가 돼 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문체부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해 달라는 이야기는, 답은……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수용했다라고 하면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 거기 먼저 확인해 보세요, 빨리. 확인하고 증액 요구가 충분히 돼 있으면 여기서 삭감해도 되는데 거기 전혀 안 돼 있는 경우에 여기서 삭감해 버리면 여기 예산 다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빨리 확인해 보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확인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조인철 깎는다 그러니까 좋아 가지고 그렇게 다 수용하면 어떻게 해, 확인도 안 하고.

말씀하세요.

○이훈기 위원 제가 문체위원장님하고 문체위 예결소위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소위원장 조인철 예, 그거는 저도 아까 들었는데 그래도 최종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해야지요. 이게 한 부처하고 둘이…… 한 부처가 결정해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래서 저번에 과방위원장님께서도 총리실 주관으로 하든 어떻게 해서 하여튼 조만간에 정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

○이훈기 위원 지난해에도 여기서 삭감하고 문체위에서 수용을 했어요, 증액으로. 했는데 작년에 증액예산이 다 안 되면서 예결위에서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양 상임위는 작년에도 통과가 됐었어요.

○김현 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돼 있는지……

○소위원장 조인철 확인을 빨리 해 달라는 거예요.

○김현 위원 아니, 그거를 확인도 안 하고 하는 건 정말……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참고로 문체위는 내일 예산안 상정합니다.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냐 이거지요, 시트지 안에.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여기 안에요?

○김현 위원 아니, 우리처럼 우리가 의견 수용하면 문체부가 수용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넣어야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그래서 문체위는 내일 상정하기 때문에 소위 심사가 이번 주 중에 조금 지나야……

○소위원장 조인철 예산이 아직 상정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먼저 삭감하고 가면 이건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

○김현 위원 우리 하고 그다음에 하실 거면 전체위 전에 그쪽 하라고 그러지요, 뭐.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진행하지요. 아니, 작년에도 했었던데요.

○소위원장 조인철 그건 너무 위험한 상황……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TBS 운영 관련해서 지금 다 깎자, 원안대로 앞자라는 거하고 증액시켜 달라 이런 2개가 있잖아요. 지금 방통위에서는 다 수용하겠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증액에 동의한다는……

○소위원장 조인철 증액에 동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소위원장 조인철 증액에 동의하시는 논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TBS가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교통 등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라디오인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을 좀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정부에서라도 좀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말씀하십시오.

○김현 위원 김현입니다.

어려운 여건이 아니라 지금 방송을 아예 못 하는 거잖아요. 방송이 지난번에도 국감에서 얘기했지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방통위가 허가증을 내 줬으니까 정상적인 방송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게 방통위의 책무 아닙니까? 나중에 이거 재허가 심사할 때 방통위가 역할을 안 하고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안 해서 방송사가 폐지된다거나 하면 누구 책임이예요, 이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래서 예산……

○**김현 위원** 책임 소재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이 아니라 방통위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잖아요. 결자해지해야 되잖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래서……

○**김현 위원** 그러면 야당 위원들을 설득해야지요. 그걸 어떻게 어려운 여건이다라는 그런 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을 떠나서잖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기울였으나 시의회가 조레 폐지하고 행안부가 방통위랑 상의하지 않고 폐지하면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러면 바로잡아야지요, 정부가.

○**소위원장 조인철**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 이걸 결자해지해야 될 부분도 있겠고 그럴 텐데 지금 TBS가 이런 공영·공익방송으로서 지금 이 방발기금이 들어간다거나 하면 그런데 재난방송이라든가 또 원래 교통방송의 취지라든가 살려야 되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법인으로, 독립법인에 돌입했고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독립법인으로서 스스로 자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걸 다 이행하지 않고서 지금 생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TBS방송이 이런 공익적인 기능을 다 하고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선행조치가 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무슨 원칙도 없이 방발기금…… 방발기금 항상 이훈기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지금 엉뚱한 데에 써 가지고 이걸 거기에 쓸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송 발전에 써야지 그 문제는 어쨌든 서울시의회하고 또 교통방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원칙을 세워서 해결해야지 무조건 국가가 그런 것도 없이 아쉽고 어렵다고 다 국가예산을 쏟아부으면 그게 어떻게 법적인 안정성이라든가 또 제도적인 취지가 살려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당초에는 TBS가 외국 영어방송을 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 그런 논리들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 부분은 지금 8페이지 8번 항목에 외국인 대상으로 TBS eFM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eFM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TBS는 지역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방송을 위해서 기금에서라도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방송 전파를 사용하고 있고 또 방송에서 규정한 역할이 있을 거기 때문에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후가 있는 것이고 우선은 TBS방송 사태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결자해지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지금 어려워니까 국가재원을 거기에

취라,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예, 간사님 알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저도 TBS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가 안 되기 위해서.

여기 보면 7번에 TBS 운영 지원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외국어라디오방송 지원 해서 52억 8000만 원인데 8번 세부사업이 외국어라디오방송 지원이에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소위원장 조인철 2개 다 합쳐져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훈기 위원 합친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지금 둘 중 하나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아닙니다. 2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이게 8번 사업인데 여기 7에…… 이게 뭐가 좀 내용하고 안 맞는데?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이훈기 위원 사업명하고 내용하고 지금 따로 놓고 있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러니까 7번의 증액 의견은 8번까지 포함한 증액 의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2개하고 앞에 2개는 좀 보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리할게요.

1번은 그냥 정부 수용대로 가고 2번·3번 확인해 주세요, 보류.

4번은 157억 5400억으로 하면 다 된다는 거지요? 중복이니까.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다음에 5번은 102억 3600 플러스 21억 그러면 다 커버되는 거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소위원장 조인철 그다음에 6번은 다 수용인데 3억만 해도 돼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3억이면 다 커버돼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예, 3억 예산이……

○소위원장 조인철 사업비가 충분하냐고 이 말씀이에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예, 저희들은 이 정도면……

○소위원장 조인철 충분하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예.

○소위원장 조인철 그다음에 7번·8번 보류.

더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자료 10쪽 보시겠습니다.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시장조사심의관실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사업입니다.

24억이 편성돼 있는데 시장실태조사, 모니터링 등을 위해서 6억 93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내역은 아래 설명과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입니다.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은 감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6년에 23억 3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 국민 대상 방송통신서비스 활용하고 피해예방 정보도 제공하고 보호활동도 수행하고 그다음에 AI서비스 이용자보호 업무평가체계도 만들고 해서 한 2억 7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래 감액 내용은 보면 이게 내역사업 중에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실태점검 2억 200만 원이 있는데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없어서 사실상 사업자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집행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태점검 대상으로 이용자보호 업무평가 대상을 이렇게 확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더 실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전액 감액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12쪽입니다.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사업입니다.

1억 83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만 위치정보 보호교육도 하고 법제도 상담도 하기 위해서 3200만 원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33억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역사업 중에 문자사업자 전송자격 인증제 운영·관리를 위해서 또 심사도 하기 위해서 4억 4500만 원 증액하고 스팸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ISP예산 5억 원을 증액하자는, 합해서 9억 4500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먼저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사업인데 4억 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팩트체크 활성화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 9억 원을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에 2번은 감액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사업인데 22억 91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사업은 방미심위 업무하고 좀 중첩되고 또 이미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방미심위가 직접 수행하는 게 바람직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사업이 7억 81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가상융합산업진흥법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이용자보호 실태조사 등을 위해서 3억 6000만 원을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 4번입니다.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은 아까 김우영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앞이랑

내용은 똑같습니다.

2024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5번은 감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불법유해정보 차단 기반 마련입니다.

49억 91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 디지털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체계구축 사업이 있는데 5억 62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미심위와 업무 중복이고 방미심위가 집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5억 6200만 원 감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안전한 AI 활용 기반조성 사업은 2억 78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신규 내역사업 AI 피해 실태조사를 위해서 2억 15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15쪽, 부대의견은 주민번호 연계정보 관련되는 고시 개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불수용 의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 2번입니다.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최근 청소년에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도박·마약·성매매 정보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위해 국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참여하여 마련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삭감을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5번, 불법유해정보 차단 기반 마련입니다.

이 사업도 앞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고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서도 구독형서비스와 관련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요구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13페이지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하고 그다음에 14페이지의 불법유해정보 차단 기반 마련하고 둘 다 방미통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방미심위 업무하고 중첩이 되고 그다음에 관련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는 방미심위에서,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방미심위 쪽으로 넘기는 것이 맞지 않냐 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14페이지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캄보디아 관련된 사태 때도 사실은 정부에서, 방미통위가 먼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정부에도 일정 부분은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추는 것이 위기 상황이나 긴급하게 대응할 때에는 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방미통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는 도박·마약·성매매 관련해서는 없고요. 불법촬영물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성범죄물 관련해서는 저희도 별도의 모니터링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한 70명 정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 인력 어디에 있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지금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KAIT에 있습니다. 정보통신진흥협회가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수족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불법촬영물에 한해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방미심위, 방통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몇 명 가지고 계세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저희는 모니터가 72명이 있고요. 그리고.....

○소위원장 조인철 양쪽에 다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방미통위도 가지고 계시고 방미심위도 가지고 계시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원회의 기본 업무는 통신 심의와 방송 심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방위 행정실 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신 바가 있는데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중복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또한 관련 시스템, 저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라든가 사행성감독위원회 그리고 기타 저희 유관 기관과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고 카카오나 구글 등 65개가 참여하고 있는 자율협력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이것 지금까지 방미심위에서 잘 못 하니까 또 이것 예산 늘리자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실적이 어떻게 돼요? 지금 방미통위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사실은 저희가 불법촬영물뿐만 아니고 마약이든 도박이든 자살이든 무기가든 사실은 여러 부처에서, 정부 부처 내에서 방미통위에 협력 요청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됐을 때 빨리빨리 이것을 삭제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는데 방미심위 같은 경우에는 심의가 상당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도 별도의 자율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자들에 통보를 해서 삭제를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미심위하고 업무가 중복이기는 하지만 긴급한 대응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기존에도 불촬영물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고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좀 더 빠르게 불법 콘텐츠를 삭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더 주십시오.

의견 없으세요?

○박충권 위원 제가 아까 그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거에 n번방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작년 추석 연휴쯤 해 가지고 10대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이미지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것을 신고해서 빨리 차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지요. 그것 아마 방미통위에서 신속하게 차단하는 업무들을 해 왔던 것 같고, 그리고 사용하는 SNS마다 불법유해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통되는 채널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텔레그램은 마약이 주로…… 뭐인가요, X가 마약인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X 쪽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텔레그램은 약간 불법 성적인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이 주로 유통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미통위에서 이런 것들 해 왔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방미통위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훈기 위원 이훈기 위원입니다.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방미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모니터링 요원 5명 증원하겠다는 예산하고 경상비 하면 한 3억 5000 정도면 수행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방미심위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조인철 이게 지금 방송영상 관련해서는 방미심위에서 하는 거지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방송영상 플러스 통신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유해정보, 그러니까 영상물이 아니어도 다 합니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게시글도 하고 있고 좀 전에 방미통위에서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저희는 기존 계속해 오고 있었 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지금 방미통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깎자가 아니고 중복 된 부분만 걸러 내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수용 못 해요,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미통위에서도 일정 부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급한 상황이나 하여튼 그런 경우에, 이럴 때……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급한 상황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급할 때 전환 배치해서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고 원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영역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을 때 서로 책임도 명확해지고 하는 건데 어중간하게 이것 나도, 이것 나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 놓으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잖아요.

일단 기존에 해 왔던 대로……

○김현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좀 마무리하고요.

했던 것은 여기 두고 긴급할 때는 기존의 것을 가지고, 칠십몇 분이 계시다면서요. 그것을 전환 배치해서 그냥 쓰시면 되지 굳이 여기 방미심위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억지스러워 보여요.

말씀하세요.

○김현 위원 방미심위가 심의 없이 그냥 자동삭제 기능이 있습니까? 회의를 해야 되지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회의를……

○김현 위원 회의를 하고 회의 결과를 방미통위에 보고를 하고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지요? 이것 그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회의를……

○김현 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방미통위는 그냥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저희가 법상 권한이 있다기보다는요 모니터링해서……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나 성평등가족부나 이런 연관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할 것 아닙니까, 법무부나. 예를 들어서 마약이면 마약과 관련되어 있는 정부 기관하고 합동으로 뭘 만들어서 대응할 거고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그렇습니다. 협의체 형태로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방미심위 쪽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저희는 좀 빨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입니다.

○김현 위원 양쪽에서 하세요.

○소위원장 조인철 간사님은 의견을 철회하시는 거야?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쪽에서 하라고.

○소위원장 조인철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저는 지금 재밌는 게 이게 중복이라는 것을 양쪽에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전에도 저희 중복 없애느라고 되게 고생했었던 것 같은데……

○김현 위원 그런데 비용이 또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이해민 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만 발라냈는데, 2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다 금액도 아니고, 이것은 받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수용하고 넘어가시지요? 중복되는 부분을 굳이 양쪽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돈이 별로 없는데 그걸 누가 봐도 좀……

○김현 위원 아마 지금 양쪽 일이 엄청 밀려 있을 거예요, 정상화가 안 돼 가지고.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원래 하던 일에 집중하십시오, 이쪽 남의 것 영역 쳐다보지 마시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아니, 저희들이 방미심위의 영역을 침범하겠다는 차원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이렇게 여쭙볼게요.

이 돈이 깎이면 기존의 칠십몇 명 운영하는 데 돈이, 운영이 불가능해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기존 인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사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을 때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물 대응을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그것 외의 다른 목적으로 쓰면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사실 그것만 대응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마약, 기타 등등 대응하기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아니,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 같고, 그러니까 이 돈이 깎이면 칠십몇 명 운영하는 데 어려워져요, 아니면 괜찮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그것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괜찮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받아들이시지요.

위원님 한 분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냥 어떻게 가려고 그러는데 여야 가리지 않고 다 말씀하시는데 그걸 정부 측에서 계속 우기는 것은 시간만 끄는 겁니다.

○**박충권 위원** 아니,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이야기?

○**박충권 위원** 예, 왜냐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미통위가 신속하게 대응을 해 왔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추석 연휴 기간 같은 때에 딥페이크 이미지가 자기 얼굴하고 합성이 돼 가지고 SNS로 막 유통이 되고 있었을 때 어린 소녀들이 어디 어떻게, 이걸 일단 먼저 차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대응하는 것이 방미통위가 해 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없애게 되면 그런 대응을 어떻게 대응……

○**소위원장 조인철**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제도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제도가 없는 것을 막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도적으로 긴급심의 제도 뭐 이런 것 있잖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찰물에 대해서만 긴급심의의가 있고요,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긴급심의의가 없다 보니까 심의하는 데 3주, 한 달 이렇게 걸리거든요. 이렇게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1년 내내 몇 건이나 되냐는 거예요. 그 돈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 없고 그때 순간적으로 기존 인력으로 전환 배치를 하거나 해서 쓰면 되지 뭐하려고 이것을 계속 상시적으로 두냐 이런 말씀이세요. 이해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장 서정배** 방미심위도 한 말씀드리면 저희도 마약이나 도박 이런 부분은 자율협력시스템을 통해서 신속……

○**소위원장 조인철** 알겠습니다. 거기서 싸움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받고 가세요. 받으시는 게 편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런데 이게 국민참여예산인데 저희가 삭감에 그냥 동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방미심위로 넘기시든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만약에 저희가 반영이 안……

○소위원장 조인철 반드시 그것을 살려야 된다고 하면 방미심위로 넘기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안 되면 방미심위로 넘기는 방안이 차선일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방미심위로 넘기겠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불법유해정보 차단 이것을 다 방미심위로 넘긴다는 건가요, 방미통위가 아니고?

○소위원장 조인철 지금 중복 삭감하자고 한 그 부분을 방미심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저희 긴급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못 하더라도 최소한 방미심위의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렇게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 되셨지요? 정부안대로 하되 아까 삭감 의견 나온 것만 방미심위로 넘기는 것 그렇게 정리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자료 16쪽 보시겠습니다.

방송미디어진흥국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첫 번째,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사업입니다.

2026년에 41억 5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크리에이터하고 미디어 스타트업 대상으로 인프라도 그렇고 신시장 진출도 지원하기 위해서 50억 원이 증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World Best LLM 차세대 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게 150억 원을 더 증액하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150억을 증액하자는 요구입니다.

세 번째는 공공 버추얼 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 배경 데이터 활성화 사업을 신규로 30억을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첨단 미디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요구입니다.

다음입니다.

방송콘텐츠 AI제작 혁신기반조성 사업도 신규입니다.

150억을 늘리자고 하는 얘기는 이게 방송콘텐츠 AI제작 혁신기반조성 사업을 위해서 2026년에 150억을 신규로 편성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아래 160억은 방송·미디어 산업 위기도 해소하고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도 제고하고 AI기술 기반 방송 제작 혁신도 하기 위해서 16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쪽입니다.

지역방송 및 홈쇼핑 협력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이것은 소상공인 판로개척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지역방송을 활용해서 상품 프로그램 등을 제작

하고 소개하자는 내용입니다. 6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TV·데이터 홈쇼핑 경쟁력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30억 원 정도를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19쪽,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방송콘텐츠 진흥 사업은 167억 9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융합인재는 방송 인력 대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20억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 사업은 현재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방송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문체부와 같이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조성하는데 조금 더 출자를 증액하자는 얘기, 45억을 증액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공투자 확대가 필요해서 이것은 40억을 증액하는 얘기인데 금액만 차이 나고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20쪽, 부대의견입니다.

아까 1번,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사업 관련인데요.

방미통위가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사업을 위해서 예산 배정 범위 내에서 우선 추진하고 성과평가를 하고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16페이지 3번입니다.

공공VP 배경 데이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제대로 충분히 쓰기 위해서는 사전에 현황조사 및 정책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정책연구 용역사업으로 1억 원만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사업 한 후에 27년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억만……

○소위원장 조인철 30억이 아니고 1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1억만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17페이지입니다.

4번, 방송콘텐츠 AI제작 혁신 기반 조성입니다.

150억 그리고 160억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첫 번째 150억 원 증액의 경우에는 데이터 구축과 R&D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World Best LLM 데이터 구축 지원 및 R&D 사업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160억 원 증액하는 사업으로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2개 합쳐서 16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두 번째 160억 안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현 위원 조인철 위원 안으로 하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리고 18페이지 1번, 지역방송

및 홈쇼핑 협력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은 60억, 30억이 있는데요.

이 30억 안은 60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서 60억을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 20페이지는 저희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최수진 위원 저 질의 좀 하겠는데, 2번하고 4번하고 차이가 뭐예요? 16·17페이지에 있는 것.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2번은 방송영상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이고요.

○최수진 위원 영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그다음에 4번에 있는 것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전 주기별, 주기 전체적으로 기획 단계부터 AI를 활용해서 제작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알기로 이미 작년 추경에 40억인가 해서 4개 사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그게 World Best LLM인데요. 그게 저희가 작년에 추경으로 200억을 받아서……

○최수진 위원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4개의 컨소시엄이 48억씩 받아서 지금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런데 왜 추가로 이것을 더, 추가로 이것을 올린 이유는 뭐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최소한 민간 포함해서 한 10만여 시간 정도가 구축이 되어야 제대로 이것을 활용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올해 하고 있는 것 가지고는 한 2만 시간밖에 확보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150억을 요청드린 겁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연장이 아니라 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이 사업이 지속사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지속사업으로 가시는 거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예, 그렇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런데 막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해 가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아니요, 저희가 사실……

○최수진 위원 또 10억 추가됐던데, 이것 40억 됐다 10억 됐다 32억 됐다 돈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제가 여쭙보는 겁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본예산으로 담은 게 아니라 추경예산으로 담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이게 26년도 사업에 제대로 담기

지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최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안 그래도 최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기억이 나서……

이게 마냥 예뻐서 150억을 더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가져오신 것을 꼼꼼히 봤더니 기존에 컨소시엄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그것을 중단하고 신규로 재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컨소시엄으로 KBS, MBC, ENA 등등 해서 구축을 해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신규로 들어온다고…… 이제는 지속사업 형태로 요청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데이터가 반드시 내년도 사업에서도 계속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품질 검증 결과 점검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예,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박충권 위원님.

○박충권 위원 그러면 2번하고 4번이 같은 사업인데 그 종류가 다른 겁니까? 데이터 구축하는 것……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같은 사업이 아니고요. 2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방송영상 학습용 데이터를 AI로 구축하는 거고요. 4번 사업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제작할 때 기획 단계부터 모든 것들이 부분별로 제작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AI를 활용해서 전 주기별로 전체적으로 AI를 활용해서 제작단가를, 비용을 줄여 보겠다 그리고 품질도 높여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2번에서 만든 데이터 구축한 것을 가지고 4번으로 만든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겁니까? 학습을 그렇게 그쪽에서 시키는 거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2번에서 만든 것도 일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렇지만 사업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예, 그렇습니다.

○박충권 위원 제가 보기에요 지금 구글이나 넷플릭스 이런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라든가 해외 사업자들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사들은 잘 아시겠지만 적자 나고 해 가지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150억 안에 데이터 구축사업이 포함됐다고 보신 거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그 150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구축사업이고요.

○박충권 위원 아니아니, 4번에 150억 안하고 160억 안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아니, 별도입니다. 별도입니다.

○박충권 위원 그래서 160억 안으로 가겠다라는 겁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아니요, 앞에 150억 그대로 가고 160억은 또 별도로 가는 겁니다.

○박충권 위원 2번 말고 4번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4번에 안이 두 개가 있잖아요. 150억하고 160억이 있잖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150억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R&D라든지 앞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60억으로 가는 게 맞다는 말씀입니다.

○박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번은 1억, 4번은 160억 그다음에 지균 1번은 60억 그런 거지요? 나머지는 수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소위원장 조인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다음, 자료 21쪽 보시겠습니다. 방송기반국 8건, 부대의건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방송통신발전기금 내용입니다.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입니다. 이게 196억 7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내역사업 중에 장애인방송 지원사업에 정보격차도 해소하고 교육 기회도 보장하기 위해서 50억 2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것은 2025년 수준으로 회복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김현 위원님께서 45억 7800만 원 증액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22쪽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지원사업입니다.

147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건비, 언론중재위원회에 신규 인력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경상비도 조금 더 반영해 주자 그래서 2억 12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지원사업입니다.

348억 9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방미심위의 안정적인 운영도 지원해 주고 또 법정 직무 수행을 위해서 좀 증액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경상비라든가 또 방송심의 활동비, 즉 모니터 인력 증원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도 있고 그래서 운영비를 조금 더 증액해 주자고 그래서 32억 58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23쪽부터는 금액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가 경상비, 방송심의 활동비 금액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다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29억 800만 원, 26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24쪽입니다.

24쪽은 앞의 부분과 다른 내용의 방송심의 활동 관련해서 TF 구성하고 조사연구비 5400만 원 늘려 주자는 내용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입니다. 방송평가 기반조성사업인데 이것은 5억 800만 원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KI시청자평가지수조사 이것 2025년 수준 정도로 반영해 주기 위해서 1억

92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지원사업은 13억 5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공익광고 제작·확산을 위해서 2024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8억 3900만 원 그다음에 광고정보 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3억 5800만 원 등 해서 11억 97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25쪽, 6번입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9억 4400만 원 편성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혁신형 중소기업한테 방송광고 제작비라든가 컨설팅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9억 39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7번은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14억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상공인들한테 방송광고 제작비라든가 매체 송출할 수 있도록 비용도 지원해 주고 컨설팅해 주기 위해서 8억 36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8번은 방송·통신쇼핑 이용자 보호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소비자 피해라든가 규제불 균형이 심하니까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일종의 제도개선 연구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부대의견, 26쪽입니다.

기존의 KI시청자평가지수조사라든가 방송콘텐츠 경쟁력 평가사업 종료에 따라서 평가 체계 개편계획 등 대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OTT산업 관련해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방송광고진흥공사를 민간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대안 기관을 모색해서 재공모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방송심의의 공정성 심의 폐지를 논의하라는 내용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미통위가 사회혼란 야기 심의안건 선정 시에 국가적 재난이나 사회적 충격 콘텐츠 심의에 집중하고, 거기에다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온라인 쇼핑 정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21페이지,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은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방송의 안정적인 제작환경 조성 및 품질개선 유도 등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주시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3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입니다.

지금 인건비 중에…… 방미심위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위원장의 보수가 방발기금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방발기금으로 편성된 부분을 줄이고 일반회계를 신설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대의견에서 2번 OTT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수행주체 공모 필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행기관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공모를 해서 선정된 다음에는 그 공모된 사업자가 방송광고진흥공사가 되는 경우에 재공모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의

내용을 ‘많은 기관이 공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김현 위원님.

○김현 위원 22쪽에 언론중재위 지원하는 것 말이에요, 언론중재위 지원하는 것. 지원하고 우리가, 방미통위가 뭐…… 지원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언제까지 지원만 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에 TBS 할 때 방발기금이 고갈돼 가지고 그러는데 왜 언론중재위는 계속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지원하는 거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런데 국악방송이나 아리랑방송과는 달리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는 언론중재법에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현 위원 아니, 지원할 수는 있는데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맞냐고요.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맞냐고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저희들도 사실은 문화부에서 편성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법에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리랑방송이나 국악방송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내역사업 중에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있는데 이 비중을 줄여야지요.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지요. 그런데 증액시켜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부대의견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중재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우리가 언론중재위를 국정감사를 하든가, 제도개선을 해서 하든가. 안 그러면서 돈만 주고 아무런 감독 기능이 없으면, 감사 기능이 없는 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최형두 위원 얼마 주는 거예요, 얼마씩? 얼마 줘니까, 우리가?

○김현 위원 100억이 넘어요, 지금. 140억이에요.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현 위원 의견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부대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아까 전에 26페이지에 2번 부대의견 수정 요청을 하신 건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이해민 위원 그 정확한 자구를 제공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저희들이 작성해서……

○이해민 위원 예, 그래서 바로 지금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3번은 이것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공정성 심의면 굉장히 넓어서 ‘보도 공정성’

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제안하시는 것을 지금 빨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심의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이 되잖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소위원장 조인철 공무원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1억 7200의 예산을 다 깎고 일반회계로 넘기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소위원장 조인철 부처 간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협의가 됐어요? 여기서 깎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러니까 기금에서는 깎고 일반회계에 넣어서 그렇게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번은 50억 2800 증액하는 것으로 하시자는 거지요, 위원님들?

2번은 부대의견을 단다는 조건으로 2억 1200 증액하는 거고.

3번은 정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고.

4번도, 5번도, 6번도, 7번도 정부 의견, 8번도 정부 의견.

부대의견은 다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부대의견에서 2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구 조정을 요청드렸……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다 수용하되 문구 조정만 하시고

3번은 ‘공정성 폐지’가 아니고 ‘보도 공정성 폐지’로 해 주시고.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김현 위원 지금 1번은 불수용한다는 건가요? KI……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아닙니다. 1번도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수용입니다.

부대의견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 위원 그러니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부대의견 1번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것 잘못된 거야. 다 수용하시고.

아까 2번은 자구 수정, 3번도 자구 수정 그러신 거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소위원장 조인철 이렇게 해서 보류된 게 몇 건 있지요?

○김현 위원 4건이요.

○소위원장 조인철 예,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제 원안위 하셔야지요.

○최형두 위원 저녁에 다시 본다고요?

○소위원장 조인철 보류된 것 보셔야지 안 보시려고?

○김현 위원 오늘 의결 안 한 게 많아요, 1차관 소관.

○박충권 위원 그냥 죽 다 하시지요, 원안위까지 죽 다.

○소위원장 조인철 이것 똑딱 하고 저녁밥을 먹고……

○박충권 위원 또 한다고요?

○소위원장 조인철 또 하셔야지. 보류된 것 어떻게 하시려고? 의결 하나도 안 했는데.

○최형두 위원 그 사이에 좀 논의를 하고 수요일 날……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의결을 하셔야지. 안 되지요.

○최형두 위원 아니, 수요일 날 1시간……

○소위원장 조인철 안 돼. 마무리를 지으셔야지.

○박충권 위원 저희가 오늘 아주 여당처럼 했는데……

○소위원장 조인철 하신 김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박충권 위원 이 정도면 진짜 여당처럼 양반같이 했는데……

○소위원장 조인철 원래 오랫동안 여당 하셨잖아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원안위 다 오셨나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아 원안위 사무처장님 오셨고요.

의견 말씀하실 때는 소속·성함 꼭 말씀해 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명현 소위자료 1쪽입니다.

안전정책국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원자력안전 기반조성 사업에서 정보공유센터 7개소 동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8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2번,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기술 개발사업에서 비경수형 SMR과 관련해서 규제연구반의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해서 관련 예산 1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방사선방재국입니다.

1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에서 방사선감시기 8대 추가 구입·설치 및 유지보수·위탁운영 비용을 반영해서 9억 7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다음, 원자력기금에서 1번,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사업에서 IT 기반 방사선기기 전주기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3억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2번, 방재환경기반 구축사업에서 한빛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방재장비 구비 예산 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부대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자력통제 규제 기술 선진화 사업의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두 번째, 원자력안전 비위행위에 대해서 신고·제보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모든 의견을 수용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증액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부대의견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조정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아까 보류된 사업들 자료 준비됐나요? 자료 없이 그냥 하시나? 몇 번, 몇 번이 보류됐는지라도 알려 줘야지.

○전문위원 임명현 제가 보고드려도……

○소위원장 조인철 보고드릴 거예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하나씩 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예, 보면서 페이지 알려 주세요.

○소위원장 조인철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1차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중 오전에 보류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명현 먼저 자료 19페이지입니다.

7번 항목입니다.

과학기술원 부설 우주항공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관한 건입니다.

말씀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아, 예.

19페이지 7번, 과기원 부설 우주항공 과학영재학교 건입니다.

저희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일반학교나 과고의 영재학교로의 전환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부라든지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본 후에 상의를 드리는 쪽으로 했으면 하고요.

그러는 이유는 이렇게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우주라든지 반도체, 모빌리티 쪽의 교육 수요라든지 지역 특화의 필요성은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관련 지자체, 기업, 기관들과 협력해 나가면서 질적인 제고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수진 위원 어차피 예산은 오늘까지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제로로 하기보다는 기획 예산 정도는 담아 두는 게 어떨 것인지 그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저희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그러니까 10억 원은 좀 과하고요. 실제로 이 타당성을 보자는 얘기지요.

○최형두 위원 예, 그렇지요. 해야지.

방법을 내가 알려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그것 진짜 모독적인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학령인구가 줄었으면 왜 그러면 이쪽만 안 됩니까, 다 안 해야지?

방법을 찾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은 태우세요.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관해서 일반적인 원칙이라든지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든지 앞으로 향후 발전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계획 수립해 놓은 것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그 전에 차관님 말씀에 조금 부연해서 하나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공계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대책 내용 중의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취지인데 지역에 있는 일반고나 과고, 영재고 중의 일부 공립을 과기원 부설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자체랑 협의해서 내년도쯤부터 그 대상을 선정해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별도로 연구용역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예, 연구용역 같은 것이 필요 없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자체랑 협의를 해 나갈 것……

○소위원장 조인철 이미 계획은 다 서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교육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위원장 조인철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 이게 교육청이 다 과고…… 경상남도에 유독 과고도 없습니다. 영재고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교육감이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 과기부 입장에서 용납됩니까? 영재는 영재대로 키우고 과학기술은 과학기술대로 키워야

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위원님, 그래서 그걸……

○최형두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갖다가 지방교육청이랑 상의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교육감 되는지에 따라서 경남은 과학영재라든가 이런 것에서 불모지가 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러니까 교육청도 물론 협의 대상이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통령실이라든지 교육부하고도 먼저 상의를 하고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 과학영재고가 최근에 붓물처럼 막 생기고, 붓물처럼 생긴다는 것은 그렇고 광주에도 만들고 몇 군데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경남은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김현 위원 창원에 위치하고 있는 경남교육청이에요.

○최형두 위원 경남교육청은 창원이지만 경남교육감이 12년째인데 과학고 이런 것을 만드는 그걸 해 주지를 않아요,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소위원장 조인철 이것을 지금 수용 곤란 이렇게 써서…… 그러니까 수용하시고, 그냥 예산을 태운다기보다는 지금 내년도에 그런 것들 소요나 이런 것들을 다 협의하신다는 거잖아요. 부대의견에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이미 계획이 서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이것 안 된다니까.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교육감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육감 선거 방식을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교육감이 고집을 피우면 아무것도 안 돼. 우리 AI·DT 그 예산도 전국 꼴찌입니다. 국가에서 돈을 줘도 안 해, 이 아저씨는.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돈을 태워 가지고 가셔도 안 되지요?

○최형두 위원 안 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더구나 이것은 우주항공청에서 일하는, 예컨대 미국에서 온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하나의 유인이 됩니다. 이 학교가 영재가 수백 명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명일 수도 있고 다양한 교육 방식을 동원할 수가 있는데 그것 검토도 하지 않고 수용 못 하겠다, 이것 진짜 좀 심한 것 아닙니까? 내가 가만히 참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위원님, 그런 의미는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참 나, 이것 아주……

○박충권 위원 차관님, 올해 예산이 728조 편성되고 지금 사업 계획이라든가 상세한 것도 불분명한 AI 사업에다가 1000억씩 막 태우는데 이것 인재를 키우겠다고 하는데 10억 하나 가지고 이렇게 불수용이라고 하면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최형두 위원 고치세요. 안 돼. 오늘 하나도 안 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위원님들 논의해 주시는 결과를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반드시 여기에 기획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최형두 위원 기획 들어가야지요. 지금 말하는 것 보세요. 안 해 주겠다는 건데, 뭐? 아주 다 없애, 그러면. 0 주고 다 없애요.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며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쓸 수가 있어요.

누가 썼어, 그 답변? 누가 썼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저희들이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형두 위원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무시한 거지. 학령인구가 경남만 부족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런 부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과기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 지원 이것보다는 과기원 산하로 할지 어떻게 할지는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으니까, UNIST 산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과학영재학교, 그러니까 좀 넓혀서 분야별, 여기는 우주항공이잖아요? 또 다른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기획·연구할 수 있는 용역비 한 1억 담아서 가면 어떨까요?

○최형두 위원 과기원으로 하시고.

○소위원장 조인철 과기원으로?

○최형두 위원 예, 왜냐하면……

○김현 위원 저기 잠깐만요. AI 관련해 가지고 또 필요없어요, AI 관련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AI라든지 말씀 주셨지만 반도체라든지 여러 이슈, 어떤 수요는 있을 것 같고요. 기획비 1억은 좀 너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형두 위원 하여간 5억 태워요.

○소위원장 조인철 5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소위원장 조인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또 다음.

○전문위원 임명현 다음 22쪽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몇 페이지요?

○전문위원 임명현 22페이지 14번 항목입니다.

여기는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이 14번 건도 아까, 방금 논의하셨던 동일하게……

○최수진 위원 묶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민 위원 다 같이 묶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묶어서 이렇게……

○소위원장 조인철 예, 5억 안에서 같이 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최수진 위원 좀 특성화과학고를 한번 검토해 보지요.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김현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학령인구 감소가 예정이 되면 학령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 뭔지를 고민해야 되지요. 감소가 되니까 거기 순응하는 게 아니고요, 과기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김현 위원 어떻게 일을 이렇게 탁상행정을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말씀 잘 듣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이게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도 잘 아시잖아요? 인프라가 없어서 감소하는 겁니다.

○김현 위원 수도권으로 집중되니까 그렇지요, 서울로.

○박충권 위원 예, 인프라가 없어서 그래요. 병원도 그렇고 학교도 제대로……

○소위원장 조인철 훌륭하십니다, 수도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김현 위원 다 서울에 있지 뭐, 강남 3구 다.

○최형두 위원 안산도 빨리 하나 만들어야 돼요.

○김현 위원 안산은 이미 사이언스밸리로 돼 가지고 들어와요.

○소위원장 조인철 다음 해 주세요. 몇 번인가요, 몇 페이지?

○전문위원 임명현 24쪽입니다.

지역과학관 건립 관련해서 보류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체험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지자체의 과학관들이 있는데 그런 과학관들의 콘텐츠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수요를 높인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이것은 수용하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아까 제가 과학관 얘기했는데 지금 국립과학관이 어디어디 있어요? 국립과학관이 전국에 어디어디 있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예, 지금 현재 국립과학관은 법인과 과학관…… 과기부 소속기관으로 두 군데, 대전하고 과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과 과학관으로 대구·광주·부산 이렇게 세 군데 있고 강원도 전문과학관 신설돼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나면 그 기준이 국립과학관도 그렇고 아까 얘기된 것은 전문과학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6대 광역시 중에 인천만 국립과학관이 없어요, 지금. 그 이유가 뭐예요? 수도권이라 그런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예.

○이훈기 위원 아니, 수도권에는…… 아니, 지금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인천이 인구가 경기, 서울, 부산, 경남 다음으로 인천이 많아요. 300만이에요. 그런데…… 아니, 수도권 과밀화 때문에 아파트 짓는 것을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어요. 아까 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과학관에 가서 보고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는데 그러면 인천에 있는 어린이들은 수도권이라 그 꿈을 키우지 마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도대체?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파트 짓는 것은 제가 수도권 그런 것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과학관을 수도권이라 차별한다? 6대 광역시에 다 있는데 인천만 없고 인천은 안 된다, 도대체 그것 무슨 논리예요? 설득력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인천에 있는 애들은 과학관을 가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논리예요, 그것도 과기부에서 무슨 국토부도 아니고? 아니, 과학영재를 키워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서 꿈을 키워 주고? 그런데 왜…… 인천은 수도권이라 안 된다, 인구가 300만인데 다른 광역시는 다 있고? 저는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차관님.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대안 말씀해 보십시오.

○김현 위원 이것도 전형적인 탁상행정.

○소위원장 조인철 지금 여기 3건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소위원장 조인철 그 3건을 어떻게 하실 대안 말씀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지자체와 여러 계기 때 계속 유지해 오던 저희들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꿔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이훈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이훈기 위원 아니, 기준이 있다는데 기준이 무슨 기준인지 알 수가 없는 기준이잖아요?

이것 몇 년 전에도 인천이 국립과학관을 추진하다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 올려서 관철시키도록 할 테니까 국립인천과학관 설립계획 해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예결위에서 어떻게 해 볼게요,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려 봐야 소용없을 것 같고.

○김현 위원 잠깐만요. 여기 비수도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비수도권에다가 1광역시 1과학관 만든다는 게 그 비수도권이라는 그것을 카테고리를 만든 게 언제예요? 언제 이렇게 기준을 비수도권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과밀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학관이 있으면 인구가 늘어나니까 비수도권에다 과학관 만들어 주자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요, 과학적이지도 않고 정말 너무 올드(old)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1광역시 1과학관 이게 광역지자체 간 형평성 때문에 모든 광역시에 과학관을 먼저 짓고 2개째 넘어가는 것은 그다음 순위로 하겠다 이런 취지가 조금 담겨 있다고……

○김현 위원 그러니까 1광역에 1과학관이 지금 그것도 안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훈기 위원 얘기하는 거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과학관을 먼저 좀 건립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구가 있는 데다가 반영해 주는 거예요, 요구가 있으면 반영하는 거예요. 조건이 되면 만들어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조건도 되고 의지도 있는데 이런 퀘퀘 묵은 비과학·비논리를 가지고 인천을 소외시키는 것은 무슨 해피망측한 겁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 이것은 2025년도도 아니고 2024년도 입장이에요. 수도권이든 균형발전이면 인천도 지역인데요, 사실은? 만들겠다는데 왜 그것을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법률에 그게 있습니까, 근거가?

○이훈기 위원 법적 근거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과학기술부에서 과학적으로 이것을 과학관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게 253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든 공립이든. 마을에 아이를 낳으면 마을이 키운다고 하듯이 과학관이 시군구에 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253명인데 과학관 하나가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위원님, 사실은 전문과학관 이런 형태는 저희가 올라올 때 순서에 따라서 수용 곤란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지역에 있는 과학관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는 다른 정책들을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과학관으로 등록된 공립과학관이 한 90여 개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 영세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과학관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김현 위원 아니에요, 지난해 분명히 이것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한 치도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에 멈춰 있다고 지적한 거예요. 과학관 애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정동영 예결소위 위원장이 그래서 겨우 전북 하나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올해는 하나도,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가는 데 딱 한 군데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인천이면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 기본조사설계비 이것 하나 못 해 줘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똑같이 최형두 위원처럼, 간사님처럼 ‘나머지 다 안 해’ 이러면 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용역비용 그것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위원장님, 저희들 입장은 다 설명은 드린 것 같아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이게 법에 그렇게……

○이훈기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 법적 근거도 없는데 기준도 마음대로예요. 아까 뭐 수도권 안 된다는데 그것도 그냥 왜 안 되는지 설명을 못 하잖아요?

○김현 위원 아니, 과천하고……

○이훈기 위원 사실 주택 규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니, 애들이 과학관 가겠다는데 그것을 인천 애들은 오지 마라 이게 완전히 지역차별 같은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충분히 이해하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과학관 기본계획을 작년에 수립하면서 여러 부처들하고, 특히 재정 당국이랑……

○이훈기 위원 이것 작년 예산 때도 똑같은 얘기 다들 하셨어요. 그때 많이 하셨어요, 제 기억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저희들 입장에서 많이 지으면 좋지요. 그런데……

○이훈기 위원 아니,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고 기준과 원칙도 얘기 못 하잖아요? 법

적 근거도 없고 무슨 정책이 이런 식이에요, 도대체? 아니, 이래 가지고 무슨 과학부에서 애들한테 과학적인 꿈을 키워 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저희가 한번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훈기 위원 아니, 인천과학관에 대해서 건립계획 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세요.

○최형두 위원 자, 덧붙여서……

○박충권 위원 이훈기 위원님 지역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또 반대하기가 좀……

○김현 위원 여기도 찬성하는데 야당도……

○박충권 위원 ‘동의하시지요?’ 하고 물어보니까 침묵하고 있는데 자꾸……

○최형두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예산안 지난번에 퍼지컬 AI 만들 때 그것 얼마나 같이 노력하고 만들어 냈습니까? 그런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인천도 보니까 참 기가 막힌데 아니, 지역마다…… 인천은 그래도 수도권이고 다 지하철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주 이런 데는 광주 가서 구경하라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원도 마찬가지로요. 진주 가서 구경해라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구 도시가 되면 이것을 새롭게 국립과학관을 처음부터 지어 달라는 게 아니고 일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학교시설 일부를 제공하거나 하면 거기에 지금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기술과 또 AI 기술을 활용해서 또 버추얼로 이런 증강현실을 가지고 얼마든지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창의적 관심을 높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도와줄 텐데 그런 것을 차단하고 있어요, 왜?

○김현 위원 저기요, 덧붙여서 디지털배움터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김현 위원 지금 몇 군데예요? 37군데에서 멈췄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좀 줄었다가……

○김현 위원 대한민국이 지금 시군구가 몇 개인데 37개 해 가지고 디지털 격차 해소 참 잘하겠어요. 이것 과학관·배움터 다 해야 돼요, 지금. 미안하지만 야당이 여당일 때 R&D 예산 대폭 줄이고요, 과학기술 분야를 다 사실은 망가뜨렸는데 겨우겨우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디지털배움터,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경로당 그다음에 과학관, 도서관, 이것 다 AI 교육하고 연결되고 인재 양성에 아주 좋은 소재들이예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물론 2027년도 예산 할 때는 제대로 검토를 하겠지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 문제는 야당 위원들도 동의를 하니까, 이훈기 위원님이 또 확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수용 곤란 하는 이 논리도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1광역 2과학관 그다음에 수요 예측 해서 다 진행하는 것으로 하세요, 그래야지 빨리 끝나요.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이 3개 지역 포함해서 그다음에 전문과학관까지 늘릴지, 어디에 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비 넣는 것으로 끝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한 3억?

○**김현** 위원 아까 5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소위원장 **조인철** 5억? 여기 5억?

○**이해민** 위원 예, 5억이라고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좋습니다. 5억.

자, 넘어갑니다.

○**김현** 위원 조인철 의원안이네, 이것.

○소위원장 **조인철**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명현** 28페이지입니다.

28쪽, 2번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지원 사업인데 최민희 위원장님실에 확인하고 결론 내리는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최형두 위원 의결에 따르신다고……

○**김현** 위원 의결에 따른다고……

○소위원장 **조인철** 의결에 따르신다고?

○최형두 위원 그러기로 했어요.

○소위원장 **조인철** 예, 일부 수용으로, 여기 지금 과기부 정부 의견 중에 그 의견 그대로 따르겠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이것은 아까 저희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담은 포항이라는 그릇과 맞지가 않아 가지고요.

○소위원장 **조인철** 맞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이것은 좀 추후에 나중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예.

또 다음.

○전문위원 **임명현** 57쪽입니다.

○박충권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지원?

○**김현** 위원 유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이번 연도에 올리기는 좀 어렵고 차후에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최형두 위원 그런데 왜 내 이름이 들어가 있네, 여기에?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쭙어봤었잖아요? 그런데 괜찮다면서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요, 57페이지.

○전문위원 **임명현** 예, 57쪽입니다.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성과평가정책국 소관이 아니고 공공융합정책관 소관이라고 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었습니다.

○김현 위원 몇 페이지?

○소위원장 조인철 57쪽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정부 의견은 이게 현재 총사업비 25억 규모의 대형 인프라에 대한 것인데요. 본격적인 설계 용역비, 상세설계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로 사전 타당성 분석과 기본설계 정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 위원 30억에서 10억으로요?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김현 위원 의견 낼 사람이 없는데요? 여기 김우영 의원, 정동영 의원 아무도 없어. 그쪽 의원실에 의견……

○소위원장 조인철 거기까지 여쭙어 가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김현 위원 정동영 의원님실 의견 그냥 10억으로……

○소위원장 조인철 없어요. 그러면 정부안대로……

○김현 위원 10억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10억……

○소위원장 조인철 그리고 사업 내용을 약간 바꾸신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렇습니다. 사전 기본설계 이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기본설계 정도만, 기본조사 정도 한다 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소위원장 조인철 알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 있는데요.

○김현 위원 10억으로?

○소위원장 조인철 예.

○박충권 위원 36쪽에 수용 곤란 사안 하나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조인철 동일 사업.

○박충권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사업이랑 동일……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그 밑의 밑의 세 번째랑 동일해서요.

○소위원장 조인철 92억짜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박충권 위원 아, 92억짜리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것 세 번째 것을 받고 첫 번째 것을……

○박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뭐 하나 좀 확인을……

○소위원장 조인철 예.

○이훈기 위원 32페이지에 오전에 제가 빅브라더 사업 얘기했던 것 그것은 전액 삭감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빅브라더 사업? 10번이요, 32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융합연구정책관직무대리 이우진 예, 말씀 주신 대로 120억이

전체 사업비고 내년도 12.5억이 전액 삭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종료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평가를 통해서 최종 평가 후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이제 하나도 없는 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융합연구정책관직무대리 이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훈기 위원 올해 예산 남은 것은 집행을 마저 하고 그런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융합연구정책관직무대리 이우진 올해 예산 남은 것도 집행은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훈기 위원 이게 지난주에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 할 때 거기 경호처도 관련이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융합연구정책관직무대리 이우진 예.

○이훈기 위원 그래서 거기 있는 사업 당연히 중단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융합연구정책관직무대리 이우진 예, 저희 국회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른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훈기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음.

○전문위원 임명현 이제 끝났습니다.

○최형두 위원 잠깐만, 아까 그……

○소위원장 조인철 뭘 또 잠깐……

○최형두 위원 공공 AX 어떻게 됐지요, 그것?

아, 2차관 소관이에요?

○소위원장 조인철 진도를 좀 따라가 주십시오.

○김현 위원 아니, 아까도 1차관 할 때 2차관 것 이것 가지고 그랬는데 똑같이 2차관도……

○소위원장 조인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류된 게 몇 건이나 됐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보류가 2쪽 하고요.

○소위원장 조인철 몇 건?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2쪽의 공공 AX하고 46쪽 2건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2건?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소위원장 조인철 아까 보류됐던 2건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2차관 소관입니다.

보고해 주세요.

한 건 한 건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먼저 보류된 것, 자료의 2쪽 보시면 공공 AX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1000억인데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과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형두 위원 잠깐만요, 이 좀 논의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볼수록 보니까 더……

최형두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잠깐만요.

○최형두 위원 예.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의견 아직 안 들었습니다.

정부 의견 이야기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아까 이해민 위원님께서 수요조사관련된 자료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지난 추경으로 한 사업, 참고자료 1페이지에 공유된 자료입니다. 총 87개 과제에서 20개 과제를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수요조사는 2쪽에 있습니다만 68건이 각 기관들로부터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년도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도 계속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거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형두 간사님께서 중복성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과기정통부가 하는 것보다 각 부처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자료 4쪽에 보시면 저희가 세 번째 항목에 과제 수용 적절성 그 항목에도 있습니다만 기존 정부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과제는 예산실하고 예산편성할 때도 아까 소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AX는 공통 인프라적인, 공통 플랫폼적으로 같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하고, 그래서 관계부처들도 저희들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요조사에 응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말씀하십시오,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 예. 그러면 이런 비슷한 사업이 다른 부처에는 없습니까? 모든 AX 관련은 각 부처가 하는 사업을 과기부가 모아서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아까 제가 즉 설명을 드렸습시다만 46쪽의 보류사업, 아까 또 그 해당 사업입니다만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같은 게 9800억 정도 범정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AX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 과제에 대해서는 부처 중심으로 부처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 분야 이런 것들은 각 부처가 편성하기로 하고 과기정통부는 600억 규모의 사업으로 9800억 정도의 예산 중에 저희가 역할 분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각 부처 중심으로 하는 과제도 있고 공공 AX 같은 경우에는 과기정통부에서 공통 블록펀딩 형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정부 내부의 그런 논의들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형두 위원 이게 내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더더욱 이것은 수요처가 정밀하게 해야 될 문제지…… 그러면 수요처로서는 좋지요. 자기들도 하고 또 과기부에서 나누어 준다니까 그것도 받고 이러면 좋겠지만 나중에 이게 예결위 계수에 올라가면 어느 부분에서 잘라야 됩니다. 이 1000억 날라가요. 제 생각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간사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형두 위원 아니, 그리고 보세요. 지금 ‘AI 기반 건강습관 개선정보 제공 솔루션 개발·실증’, 질병관리청인데 이런 것은 질병관리청에서 자기 수요에 맞게끔 더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할 겁니다. 과기부에 이것까지 세세하게 건강습관 개선정보까지 파악해

서 이것을 피드백을 줄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 이게 다……

○최형두 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과기부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컨대 클라우드를 키워야 되는데 이 공통의 클라우드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지만 아까 MPU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MPU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지 각 부처에서 세세하게 할 것을 갖다가…… 아니, 지금 과기부가 AI라는 이름으로 AI 통합하는 부처가 되다 보니까 모든 부처가 세세하게 자기들 실수요에 따라서 해야 될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름을 가지고서 결국에는 하나하나 실수요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기 힘든 것은 다 통할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지금 칠백몇십조지만 이것을 증액하기도 어려울 테고 또 여야 모두 다 각각 필요한 사업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간사님, 제가 아까 금액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게 범정부 사업이 8920억 원입니다. 9800억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기정통부 몫은 600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최형두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공 AX 1000억짜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 AX 부분은 저희가 공통적으로, 저희가 또 과기정통부가 도메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련 부처들과 협업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최형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보세요, 지금. 여기 ‘AI 기반 노동법 준수 지원 솔루션 개발’, 이 노동부가 잘하겠습니까, 과기부가 맡주를 해서 하는 게 잘하겠습니까?

○김현 위원 노동부가 한다는 거잖아요, 노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런데……

○최형두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각 부처가 알아서 해야 각 부처도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부처는 부처대로 하고, 과기부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부처가 중복 예산을 편성하게 된단니까요?

○소위원장 조인철 제가 좀……

○김현 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런 부분은……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8900억짜리는 8900의 전체 집합의 600억 원, 과기부 소관 것만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그렇습니다. 직접 저희가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이 1000억에 대해서는 공공 분야의 AX로 전환할 게 있는 것은 과기부가 전체적으로 AI 총괄 부서니 ‘너희들이 내 봐 그러면 내가 거기서 중복 안 되게 그것을 잘 판단해서 그걸 골라서 관리해서 보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래서 중복 문제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정부부처 간 중복도 해소가 되고 훨씬 더 나은 사업 방식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간사님, 지금 우려하시는……

○최형두 위원 아니, 정부에서…… 보세요. 지금 질병관리청에서는 그러면 자기들 AX 사업 안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합니다.

○최형두 위원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질병관리청과 중복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간사님, 그 부분은 또 부처 단위에서 편성하는 것도 중복을 다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AI전략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스크린 작업들을 저희가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고 그 중복 문제는……

○최형두 위원 아니, 과기부가 AI의 과학기술처럼 큰 줄기를 잡고 와야지 이렇게 세세하게, 이 과제명 한번 보십시오. 조세불복 통합검색 및 사건조사서, 대국민 복지 안내 솔루션, 국민 안심 식탁, 이거 어떻게 과기부가 이런 솔루션 하나하나에 대해서 발주를 하고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서 진행 관리를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간사님, 도메인 부처들하고, 해당 부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에……

○최형두 위원 해당 부처에서 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더라도 중복이 생긴다니까요.

○김현 위원 해당 부처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해서, 지금 보면 추경 확보를 했고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공고를 하고 협약 체결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계속과제를 수행하겠다, 이 경과잖아요.

○최형두 위원 추경 할 때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원래는 사실 AI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사실은 피지컬 AI 한다고 그러니까 피지컬 AI 다 산업부에서 한다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다. 그걸 우리가 ‘아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파운데이션으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것이다’. 그래서 과기부로 가져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거꾸로, 그래서 사실은 추경에서 AI 예산 크게 태워 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과기부가 그 틈을 타서 그냥 온 부처가 하는 사업을 다 관장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고. 이게 결정적으로는 다 중복돼요. 나중에 비슷비슷한 사업이 생긴다고요. 국가예산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AI 기반 범국민 조세불복 이런 거 할 때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에서 선별했습니까? 수용해서 이걸 선정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관련 전문 기관들하고 다 논의를 거쳐서 진행……

○최형두 위원 아니, 왜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해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과기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간사님, 저기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지요.

○최형두 위원 아니, 이거 한다고 과기부의 공무원이 지금 수십 명이 부딪혔겠구만, 이거 선정하고 한다고.

○소위원장 조인철 이게 지금 68개가 수요조사는 확정이 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추경 사업에서 87개 수요 기관 중에, 과제 중에

20개를 골랐고요. 이번에 내년도 1000억 그 사업은 68개의 수요조사를 일차적으로 받았 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그게 확정이 된 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확정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확정은 아니고, 이 정도 수준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일차적으로 저희가 후보군을 검토를 하고 있 는 것이고요.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하나당 한 10억 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2년간 30억 지원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2년간 30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소위원장 조인철 15억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자르자고 할 수도 없겠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최형두 위원 이게 나중에 가 보면 전부 부처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거랑 통합해서 추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이거는 감액을 하고 과기부가 집중하는 데 집중하 세요. 내가 보니까 이걸 어떻게 다 관리를 하니까, 수십개 되는 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간사님……

○최형두 위원 한국 근대 다문자 자료 활용 지원 AI 솔루션…… 국사편찬위까지 이 사 업을 다 관장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간사님, 저희가 국사편찬위원회 역할을 대신하겠 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최형두 위원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일 잘할 수 있는 AI AX 솔루션을 발주를 하면 되 는 거지.

○김현 위원 이게 국가AI전략위원회 업무의 한 분야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국가전략위원회에서 산업AX 분과 또 공공 AX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걸러지고 중복 문제 조정하고 또 평가 이런 것들을 다 거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AX 분야는 AI 쪽 공통 플랫폼적인 요소하고 또 도메인하고 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8900억 사업도 각 부처에 편성되어 있지만 AI전략위원회를 통해서 과기정통부의 그런, 우리 상임위원회에 서 해 주신 GPU 공동 활용이나 데이터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협업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걸 좀 불가피하게 AX는 지금 AI 쪽 생태계하고 도메인 쪽이 긴밀하게 협업을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최형두 위원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해야지. 무슨 이런 세세한 것을 어떻게 다 컨트롤 합니까? 이걸 알 수 있어요? 국민 안심 식탁……

○김현 위원 AI전략위원회에서 한다잖아요.

○최형두 위원 아니, 간사님 보십시오. 이게 과기부가 했던 큰 GPU 인프라 그리고 인 력, 교육 이런 겁니다. 국가 총량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세세하게 지금 AI 기반 국민

건강습관 우리 보좌진들이 들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걸 왜 시시콜콜 과기부가 다 발주를 해서 평가를 해서 예산을 나눠 줘니까? 다 부처에서 하는 사업인데?

○**김현 위원** 주무부처니까, 주무부처잖아요.

○**소위원장 조인철** 사업 추진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요. 위원님들 말씀드린……

○**소위원장 조인철** 공모사업으로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예.

○**소위원장 조인철** 수요조사에 다 정해져 있다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앞으로 26년도의 1000억 사업들도……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이거 68개는 아니예요? 26년으로 돼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수행기관을 공모로 정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분야는 관계부처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관계부처랑 도메인 영역, 어떤 영역은 AI를 적용해서 서비스할 것인가를 정하고요. 사업자들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사업자 공모는 그런데 이 사업 추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고. 과기부가 독단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부처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추진체를 만들어서 합니까? 그거 좀 설명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밑에 산하기관, 실행기관은 저희가 출자사업이기 때문에 NIPA나 NIA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그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은 업자, 이걸 개발하는 업자 선정하는 거고 추진할 때, 지금 간사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부처가 더 잘하니까 부처에 맡겨 놓으면 되지 과기부가 왜 나서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부처랑 같이 어울려서 늘 협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야되는 건지 뭘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어떤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시는 게 지금 그거잖아요. 부처가 훨씬 더 잘하는데 왜 과기부가 나서느냐.

○**최형두 위원** 내가 한말씀 드리고 이 논의 정리할게요.

저도 과기부 다 도와주고 하면 좋은데 과기부 예산 해서 우리 상임위 증액안 올라가면 아마 몇천억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체 계수 조정할 때 나올 텐데 이게 첫 번째로 감액될 대상입니다, 그래야 다른 예산으로 실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논의를 잘 보시고 미리미리 과기부도 이 중에서 조정해야 될 예산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지 무조건 이게 다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조인철**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저는 수요처를 받고서 사실은 최형두 간사님하고 반대의 생각을 해서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GPU 산다 이런 걸 할 때 가장 비판을 했었던 내용이 뭐냐면 수요가 없는데 컴퓨팅 파워만 갖다 났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측면에서 저는

수요처를 가지고 오셔서 오히려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식약처, 예를 들어 교육부, 예를 들어 특허청, 과기정통부가 왜 여기까지 하느냐? 저는 지금 이것을 읽어 봤더니 오히려, 저는 예를 들어서 특허청만 했을 때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시스템이 나올 것 같은데 과기정통부가 여기 끼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저는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사님이 걱정하시는 중복 여부가 이미 4페이지에서 과제 수행 적절성 내부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이미 한 번씩 거를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국가 AI 전체 전략에서 봤을 때 수요를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그런데 이해민 위원, 나도 내 생각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답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부처에 소요되는 거를 전체 과기부에서 R&D 예산처럼 총괄 평가를 하는 시스템도 아니에요, 지금. 결국에는 이 비슷한 것들을 부처마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이해민 위원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최형두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GPU 26만 장 하는데 그 GPU 26만 장의 5만 장 정도는 정부가 구매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업들이 실수요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다른 문제 같고요.

저는 사실은 이래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평가를 하다 보면 이 1000억짜리 예산이 제일 쉽게 감액 대상이 될 거라는 걸 내가 말씀드립니다.

○김현 위원 아니, 그건 가서 하시고 우리는 태워서 보내십시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여기 지금 68개 사업에, 이것은 공공서비스, 국가에서 해야 되는 서비스를 AI를 접목시켜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고 각 부처에 지금 8900억 들어 있는 것은 각 부처 소관 내에서 AI를 AX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자기들이 직접 AX 전환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소관 사업이 아니고 자기 소관 단체든지 어떤 바꾸는 이런 거고 여기는 그러니까 사업 영역이 좀 달라요. 완전 다른 영역이어서……

○최형두 위원 아니, 똑같습니다. 내역을 한번 읽어 보세요.

○소위원장 조인철 내역 봤는데 제가 보면 다르거든요.

○최형두 위원 이게 금융도 아니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농림축산,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소위원장 조인철 제가 마무리 좀 지을게요. 완전히 다른 게 여기는 정부서비스나 공공기관에서 서비스하는 것을 AI화하자라는 게 지금 이 공공AX고, 8900억 그걸 괜히 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헛갈리게 하는데 거기는 다른 사업인 겁니다. AX, 예를 들면 산자부가 뭐 한다고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2차전지……

○소위원장 조인철 로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어디 삼성전자를 로봇화시킨다든지 이런 거 지원하는 예산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여기는 공공서비스,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AI의 도움을 받아서 할 것이냐라는 거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이 계속 이야기하면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최형두 위원 거수합시다.

○소위원장 조인철 거수할까요?

○최형두 위원 예, 이 부분은 거수해요. 이거는 기록을 남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조인철 원안 유지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 표결)

그러면 원안 유지 네 분으로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46쪽 보시겠습니다.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보류되었습니다.

적정성 검토의 시기라든가 국가채정법을 어겼는지 여부, 예타의 면제 대상이나 등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류되었는데요.

아까 또 이해민 위원께서는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처리하자는 안도 있었기 때문에 부대의견안을 지금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해민 위원은 보시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했는데 한번 보시고요. 이걸 이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원안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부대의견도 제가 한번……

○소위원장 조인철 예, 같이 넣으시지요.

한번 읽어 보세요, 부대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의 추진에 있어 생활·치안 등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해야 할 성격의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부처별 수요, 역량을 반영한 추가적인 심사과정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장님, 부대의견에 대해서 좀 의견……

○소위원장 조인철 예,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 괜찮은데요. 이게 내용상 행안부, 경찰청 등이 해야 할 성격의 사업을 저희가 하는, 과기정통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문제, 문제로 이렇게 이미 정의가 돼서 ‘관계 부처와 부처별 수요, 역량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만 해 주시고 중간은 좀 빼 주시면 저희가 좀……

○소위원장 조인철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추진에 있어 생활부터 문제가 있으므로를 빼는 거지요? 맞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추진에 있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이해민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끝났나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이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쪽, 휴머노이드 중심 퍼지컬 AI 생태계 혁신사업 1200억……

○소위원장 조인철 몇 페이지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50쪽입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1200억짜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1200억짜리. 아까 제가 금액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기획비 10억 정도 반영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의원실하고 협의한 내용대로 좀 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해민 위원 기획비가 10억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예, 기획비 10억.

○소위원장 조인철 기획비 10억은 너무 큰데?

○김현 위원 아까 4개 도서관 과학관에 5억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얼마 할까요?

(「5억」 하는 위원 있음)

예, 5억.

다 됐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과기정통부는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과기정통부 지금 더 이상 보류된 거 없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아, 그러면 또 표결해야 되는 거예요?

○최형두 위원 아까 그 결과대로 하시지요. 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견 때문에 그런 표결을 했다고. 저희 같은 표결 할 겁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김현 위원 그런데 그건 감안해야지요. 이게 표결한 거하고 합의 처리한 거하고는 다르지요.

○최형두 위원 다른데 이제……

○김현 위원 안 되지, 그러면. 기껏 이렇게 고생해 가지고 하는데……

- 최형두 위원 아니, 그런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 김현 위원 협조를 하고 당이 얘기를 주고 받는데……
-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원래 원칙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 최형두 위원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개별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것도. 그런데 나중에 속기록에는, 기록에 남길 때는 어느 부분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 돼요, 어느 부분이 예산이 이견이었다. 지금 이게 나중에 가면……
- 김현 위원 표결하면 안 된다고.
- 소위원장 조인철 합의 가지지요.
- 김현 위원 합의하세요.
- 최형두 위원 아니, 이 문제는 너무……
- 소위원장 조인철 아까 속기록에는 이미 남겼으니까, 의견은 다 남기셨는데 이것을 표결하시자고요?
- 김현 위원 아니, AI 관련해 가지고……
- 최형두 위원 아니, AI 돈도 제대로 써야지.
- 김현 위원 제대로 쓰지요.
- 최형두 위원 이거 나중에 중복돼 깎여요.
- 김현 위원 아니, 최형두 간사님 계신데 제대로 안 쓰고 어떻게 해요, 내년에 국감할 건데.
- 최형두 위원 그대로 아까 그 표결대로 그냥 하시지요.
- 소위원장 조인철 간사님.
- 최형두 위원 안 돼요. 아니, 그리고 무슨……
- 김현 위원 표결하면 안 돼요. 그럼 뭐하러 이때까지 시간 해 가지고 하냐고요.
- 최형두 위원 아니, 똑같지요. 그리고 다 이거 토론해서 한 거지요. 토론하면서……
- 소위원장 조인철 여태 다 합의화하다가 그거 하나 표결……
- 최형두 위원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 김현 위원 뭐 그게 중요해요.
- 최형두 위원 1000억이 결국에는 나중에 깎입니다. 두고 보세요.
- 김현 위원 아니, 깎일 때 깎이면 되지요, 근거를 남겼으니까.
- 최형두 위원 그걸 표결을 했는데 그 표결 결과로 그냥 감시다. 우리도 야당인데……
- 김현 위원 소위원장님 처음 해 보는데 당황스럽지요.
- 최형두 위원 진짜 당황스럽게 하시네.
- 김현 위원 당황스럽지요, 지금 조인철 위원장님.
- 소위원장 조인철 엄청 당황스러워요, 지금.
- 최형두 위원 표결해 그냥.
- 김현 위원 안 되지요.
-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그거 때문에 여태…… 뭐 할라고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하지.
- 김현 위원 몇 시간을 지금, 오늘 워크숍도 안 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 최형두 위원 아니, 대부분 땀잖아요. 그거 하나만 이견이 있는 것이고.
- 소위원장 조인철 그 이견 있는 거는 정리를 하셨잖아요, 아까 표결로.

○최형두 위원 잠깐만, 수석전문위원, 아이디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이미 또 소위원장님이, 기록에도 남아 있고 또 위원님들 의견이 정부에도 충분한 의견이 됐으니깐요.

○김현 위원 합의 처리해요, 합의 처리.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이미 정부도 알고 있고, 충분히. 또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의논할 거고요. 또 충분히 속기록에 남았기 때문에……

○김현 위원 우리 지금 워크숍 다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최형두 위원 아니, 우리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김현 위원 처음 하시는데 협조 좀 해 주셔야지.

○최형두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합의된 걸로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수석전문위원이 그런 의견을 냈고 정부가 충분히 의견을 알고 있고 이 문제는 또 추가로 예결위에서 다루어질 사안이고 우리 의견이 충분히 전달됐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조인철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부대의견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기부 고생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류제명 감사합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조인철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방미통위 아까 보류된 4건 심의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 자료는 5페이지고요. 저희들이 이걸 정리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자료를 보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5페이지의 아리랑국제방송 지원하고 국악방송 지원 감액하는 부분이 보류되었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반영이 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액하는 게 적절한지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입니다.

8쪽의 TBS 운영 지원 사업 관련해서 원안 유지하자는 것과 그리고 또…… 원안 유지하라는 게 원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반영하지 말자는 거고 74억 8000을 증액하자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80억과 74억 8000은 외국어 방송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2건이 한꺼번에 연결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국악방송 지원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문체부 정부안에는 일단 아리랑국악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등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오는 13일 예정된 문체위 예산소위에서는 아마 문체부의 일반회계로 편성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 본 결과는 지금 아리랑국악방송 예산을 전액 삭감한 금액만큼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소위에서 통과해 주신 만큼 아리랑국악방송 예산은 일단 문체위가 어떻게 할지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유지하되 지금 행정실에서 드린 것처럼 아리랑국악방송 지원 예산은 문체부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훈기 위원** 이 부분은 전체회의 내일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위는……

○**소위원장 조인철** 수요일 날.

○**이훈기 위원** 그래서 저는 반영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반회계로.

그리고 이게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에서 넘어오면 이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라 처리한다고 입장을 정하셨어요.

○**소위원장 조인철** 이야기하십시오.

○**김현 위원** 아니, 다 처리가 됐다고요.

○**이훈기 위원** 이것은 문체위에서는 그렇게 처리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넘어오면 예결위에서도 이걸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게 계속 확인이 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그렇게 넘어오면 예결위에서는 당연히 처리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결위원장님 하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넘겨 주시면……

○**김현 위원**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하면 문체부도 문체위도 다 정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훈기 위원** 예.

○**김현 위원** 테이프를 끊으시지요.

○**이훈기 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이나 거기 예결소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문체부에서도…… 제가 예산 질의할 때도 이걸 했어요.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니까 문체부 증액 심사 자료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이훈기 위원** 아니,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돼요. 내일인가 모래잖아요.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예결위에서 말씀하셨다면서요?

○**이훈기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 넘어오면 예결위에서 처리하겠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고요?

○**이훈기 위원** 상임위에서 증액·감액해서 올라오면 예결위에서는 그대로 처리를 하겠다, 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으니깐.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결위에서 이 증액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나 그 말씀……

○**이훈기 위원** 예, 감액·증액 이것을 중소방송으로 돌리는 걸로.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

게 처리는 했어요, 상임위에서.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여기서 감액이 문제가 아니고 문체위에서 증액해야 된다고 그것을 정확하게 소위 자료에 올라올 수 있게 말씀을 하셨나 이거지.

○이훈기 위원 예,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쪽에 정리해서 패이퍼까지 드렸어요.

○소위원장 조인철 서면 심사 자료로 넣었다 이거지요?

○이훈기 위원 예, 그쪽에는……

○김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서면 심사 자료에.

○이훈기 위원 회의 자료는 제가 좀 봐야 되겠지요. 회의가 내일이에요? 수요일인가 그렇잖아요?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그게 아니고 예결위 심사 소위 자료에 올라가는 것은 상임위에서 제기했던 사항, 예결위에서 제기했던 사항 이 두 가지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깎아도 예결위에서 제기돼서 거기가 논의돼서 넘어가면 괜찮은데 거기다 아무 이야기도 없고 우리가 삭감만 해 버리면 끝나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훈기 위원 아니, 제가 예결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했고 예결위원장님……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예결위원장님하고 이야기한 건 그다음 문제고 심사 자료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훈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김현 위원 소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 지금 얘기하는 것을 문체위 행정실에 한번 확인을 해 봐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정회 때 이게 확인이 됐어야 되거든요.

○소위원장 조인철 잠깐만, 제가 할게요.

문체위 거기에 물어볼 게 아니고 예결위 심사 자료에 적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예결위에 그게 정확하게 질의가 돼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 심사 자료에 안 올라가면, 증액 심사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게 심의를 못 하잖아요.

○이훈기 위원 아니, 제가 예결위원이라 예결위에다 넣을 거고 여기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또 절차를 이중으로 하면 되잖아요.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그러니까 예결위에……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압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가서 빨리 확인 좀 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결위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넣을 수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상임위도 하고 예결위에도 할게요, 2개 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지금 예결위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넣을 수 있습니다.

○김현 위원 여기도 있어요. 여기 예결위원도 있어요.

○최형두 위원 그 이야기도 있고……

지금 7번, 8번 그 문제 내가 다시 한번 약간 언급을 하고 싶은데……

○소위원장 조인철 뭐 어떤 거요?

○최형두 위원 제가 7번만, TBS 문제인데……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요, 이것 하고 넘어가시게요.

○이훈기 위원 이것은 하시면 돼요.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제가 예결위에 따로 넣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예결위원장님은 상임위도 이렇게 모양 해서 한번 하고 또 하면 모양이 더 좋으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저쪽에서는 증액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증액이 다 안 됐잖아요, 계엄 있고. 그래서 안 됐지 우리 상임위하고 저쪽은 다 역할을 똑바로 했거든요, 그때.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핑크 안 나게 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예,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런데 문체부 예산이 있나? 있어요?

○이훈기 위원 아니, 작년에도 했는데……

○최형두 위원 이것 저도 약간 추가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저렇게 애를 쓰시는 까닭은 방발기금 자원도 좀 회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 방송발전기금이 화수분처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방발기금도 방송 돕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TBS 이 문제도 지금 이렇게……

○김현 위원 이것 매듭 짓고 넘어가지요.

○최형두 위원 아니, 그건 아까 이훈기 위원이 제기한 문제……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요, 아직 안 됐어요.

○최형두 위원 그래서 TBS 이것도……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TBS는 좀 이따 하시자고요.

○최형두 위원 좀 이따 한다고?

○소위원장 조인철 예.

○최형두 위원 벌써 넘어간 것 아닙니까, TBS?

○소위원장 조인철 안 넘어갔어요.

○최형두 위원 아리랑방송인가?

○소위원장 조인철 진도 좀 따라가세요.

○최형두 위원 그럼시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예산을 넘기는 방법, 방송국을 방미통위로 가져오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판단해서 하시겠다라고 전체회의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에서 그냥 결정해서 끝내 버리는 거거든요.

○이훈기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은 절차를 밟았거든요. 문체위는 증액을 했고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똑같이 했는데 그때 예결위에서 나중에 계엄 때문에 모든 증액이 막혀 갖고 안 된 건데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되고.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님은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방미통위가 구성되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또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문체위에서도 알았다고 그러고 예결위에서도 알았다고 그러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걸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걸 지우고 가면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 소위에서 이미 결정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임위원장님은 그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떤 게 좋은 건지 종합적으로 부처 간 협의해서 정리를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훈기 위원** 아니, 그런데 기재부가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재부 문제는 예결위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해서…… 기재부의 문제는, 기재부면 돈 문제잖아요. 그런데 돈 문제가 아니고 소관 문제까지 지금 보시겠다는 거거든요. 국악방송하고 아리랑방송의 소관 문제까지 같이 보시겠다라고 한 게 위원장님 말씀이세요. 소관 문제를 여기로 가져오면 방발기금에서 해도 된다는 게 위원장 말씀이신 거고……

○**이훈기 위원** 그리고 아리랑TV는 공식적으로 방송사가 아니에요. 무슨 재단으로 돼 있지 방미통위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송사가 아니에요. 아리랑TV는 무슨 재단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법적근거도 다르고. 그래 갖고 그것은 나중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예산 문제는 빨리 해결해서 털어야지 서로 편해지지 그리고……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그런데 저는 지금 이훈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방발기금에서 나가든 일반회계에서 나가든 돈만 나가면 되는데 왜 여기에……

○**김현 위원** 그게 기재부 생각이예요.

○**이훈기 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중소방송 지원을 그러면 문화부에서 할 리가 없잖아요, 이건 방미통위에서 방발기금으로 해야지. 그리고 지역소멸시대라고 얘기하고 다 어렵다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보면 과기부 예산은 엄청난 예산을 막 몰 쓰듯이 쓰고 그러는데 그것 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 그 부분을 그렇게, 지역소멸시대라고 여기 보면 40개 지역이 다 연결돼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좌고우면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예산은 되게 쉽게 쉽게 처리하면서, 이게 수백억, 수천억 마구마구 처리하잖아요.

○**소위원장 조인철** 감액은 달라요. 감액은 넘어가면 끝나요, 거기서.

○**이훈기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도 서로 수용을 양측에서 했던 거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김현 위원** 지금 있잖아요, 방미통위는 역할이 공공성, 공영방송, 준공영방송까지만이고요. 이것은 다른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지원하고 국정감사를 같이, 감사를 받는데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원은 방발기금으로 왔는데 국정감사는 문체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그래서……

○**김현 위원** 그래서 원위치시키자고요.

○**소위원장 조인철** 그래서 2개를 같이 보겠다고 하셨다니까, 위원장이.

○**이훈기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더 복잡해지지요. 그리고 저쪽도 또 피감기관……

○**소위원장 조인철** 소관 문제를 이쪽으로 옮길지 돈을 바꿀지……

○**이훈기 위원** 아니, 그런데 아직까지…… 논의했고 작년에도 했고 그랬는데 그것을 또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면 일이 제가 보기에 계속 해결이 안 돼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완전히 분리를 해서 그쪽이 관리 감독하고 예산도 그쪽에서 하고.

그리고 아리랑TV는 방송사로 분류가 안 된다니까요. 무슨 재단이에요.

○김현 위원 지금 찾아왔는데 아니에요. 공공방송사……

○소위원장 조인철 국제교류재단인데 재단을 옮기면 되지 뭘 재단을 옮길 수가 없어요, 소관을 옮기면 되는 건데?

○김현 위원 아니에요. 그게 KTV를 우리가 못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그러니까 소관을 옮기면 되는 거지, 그거야.

○이훈기 위원 아니, 왜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냐고요, 여기는 지금 다 와서 거의 됐는데? 저는 위원장님 그 얘기를 이해 못 하겠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박충권 위원 빨리 결론짓시다.

○소위원장 조인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삭감하고 잡니까?

○김현 위원 우리 기존의 입장이 그렇게 진행이 돼 왔으니까요.

○최형두 위원 지난번에 했었던 그것 있지요?

○김현 위원 동일하게 가는 거지요.

○최형두 위원 우리가 삭감해 버리면……

○박충권 위원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돌리는 거지요?

○최형두 위원 나중에 예결위에서 주장해야지.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조인철 삭감.

○최형두 위원 삭감이에요?

○소위원장 조인철 삭감하시자는 거지.

○김현 위원 삭감해서 문체부에서 살리겠다는 거지요.

○이훈기 위원 예, 그렇지요. 이 안대로 하는 거지요.

○최형두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이훈기 위원 작년에 그렇게 통과됐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김현 위원 그렇지요. 지난번에 했는데 12월 3일 때문에 원천 무효가 된 거지요.

○이훈기 위원 작년에 그대로 통과됐어요.

○소위원장 조인철 삭감하면 거기서 문제가 됐을 때 저희한테 다시 오면 되니까 이것은 위원장님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삭감 정부안대로 받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정부안이 아니고 위원님이 제시하신 안인데요. 수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다음 안건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TBS 운영 지원 지금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위원장 조인철 이제 말씀하십시오.

○최형두 위원 이것도 사실은 여야 간에 큰 쟁점이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절충안으로 저는 외국어라디오 방송 지원, 왜냐하면 이것 주는 조건으로 52억 원만 수용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 보고 나서 제대로 해야 돼요, 절차를. 아마도 TBS와

또 서울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교훈도 있고 하니까 본격적인 방송을 해야겠지요.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외국인 방송 충실하게 재난 교통을 외국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방송이 부족하다라는 측면을 반영해서 외국어라디오 방송 지원 사업만 저는 증액안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전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교통 등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라디오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교통방송 제작 지원 이것 부족하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52억 8000만 원 증액하시자는 거지요?

○최형두 위원 그것도 외국어라디오 방송 지원 부분……

○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만들어요? 지금 문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52억 8000만 원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누가 이것을 만드는 거지? 인건비가 안 나오지요. 운영비가 없잖아요. 이것 어떻게 만드냐고요.

○최형두 위원 지금 TBS 전체…… 이게 TBS 근거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TBS가 1년에 얼마가 필요합니까? 매년 얼마 썼었는데 적자가 얼마……

○김현 위원 300억을 사실은 지원해 줬지요, 초기에. 그러다가 200억……

○최형두 위원 지금도 외국어방송 하고 중국 방송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현 위원 그것 재방송이예요, 재방송.

○최형두 위원 재방송이예요?

○김현 위원 생방송이 아니예요.

○최수진 위원 이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것 아니예요?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최형두 위원 아마 전체적으로……

○김현 위원 그래서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늘린 거예요. 사실은 지금 TBS, 소위 원래 얘기하는 TBS 방송은 최일구의 허리케인 하나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협찬해 가지고 방송하고 또 협찬받아서 하는 전체 24시간 중의 5시간을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19시간이 음악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TBS는.

그리고 eFM은 아예 방송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작할 수가 없어서. TBS 예산이, eFM, 그러니까 eFM이 잉글리시……

○최형두 위원 101.3을 내가 듣는데, 들으면……

○김현 위원 방송을 못 해요. 지금 스튜디오가 그냥 놀고 있어요.

○최형두 위원 그게 그러면 녹화·녹음방송이라고요?

○김현 위원 그렇지요.

○최형두 위원 그럴 리가 있습니까?

○김현 위원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TBS eFM의 외국어방송 그 부분만 52억 증액하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머지는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지 맞지……

○김현 위원 아니, 제작지원비를 지원해 줘야 된단니까요.

○최형두 위원 아니요, 그게 52억에 다 들어가요.

○**김현 위원**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최형두 위원** 아니, 구분돼 있잖아요. 외국어라디오 방송 지원에 52억이고 그리고 외국어가 아닌 거기에 교통방송 제작지원이 22억 별도로 돼 있다니까.

자, 52억으로 합시다.

○**김현 위원** 아니, 외국어방송에 80억 하나가 있고 74억이 있는 거니까 외국어라디오 방송 지원을 하는 것, 외국어라디오 방송만 하게 해요. 거기에 그러면 재난교통 등에 대한 것을 필수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게 45억이고……

○**최형두 위원** 외국어로 하는 것만?

○**김현 위원** 영어권, 외국어라디오 방송 8번으로 가자고요, 8번으로.

○**최형두 위원** 8번?

○**김현 위원** 예, 7번하고 8번인데. 이것도 영어방송이에요. 영어방송이지요?

○**최형두 위원** 이것 왜 이렇게…… 한쪽은 52억 원인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다 해 주자는 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영어방송만 제기하는 거잖아요. 영어방송만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지금 7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은 52억 원 외국어 영어방송이고요 그다음에 22억 원 교통재난방송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TBS는 지상파 방송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재난방송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24년 5월부터 돈이 없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교통재난방송도 할 수 있게끔 제작비만이라도 일부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난방송을 TBS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정부가 하는 부분들은 지켜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최형두 위원** TBS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TBS는?

○**김현 위원** 얘기했잖아요, 협찬받아서 한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정부에서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원래는 여기 TBS가 거의 460억 정도가 예산이었고요. 그게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한 37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 돈의 한 77%가 출연금이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사업소였던 부분이 재단으로 바꾸면서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재허가 기간 내에는 출연금을 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재허가를 해 줬던 거거든요.

○**최형두 위원** 알았으니까 들어 보세요. 우선 52억 제 바텀입니다. 그리고 전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독립방송 하겠다고 스스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재원을 마련해라. 왜냐하면 다 아시잖아요. 김어준 방송 해 가지고, 다 그래 놓고 지금 교통방송에 교통 정보는 몇 분도 하지 않고 전부 그런 방송을 했던 것을 서울시의회가 몇 차례 기회를 줬는데 결국 하지 않아서 서울시의회는 지원을 끊었던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독립재단 방송이니까.

독립재단 방송 된 것이 박원순 시장 때 된 거예요. 서울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됐지만 지난번 지방선거 결과로 다수당이 바뀌면서 이 방송에 대해

서 독립재단으로 만들면서 서울시의회가 요청한 방송 조건도 듣지 않고 서울시의회는 그러면 돈만 대는 데입니까, 방송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김현 위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원이 돈을 대는 게 아니지요.

○최형두 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라디오 방송 문제도 편파성 문제가 걱정이 되기는 한데, 외국어라디오 방송은 한시적으로, 이것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외국어 방송, 라디오 방송 지원이라는 것 살려 놓고 나머지는 본격적으로 논의해야지 EBS 이십몇 억 쥐 가지고도 본격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TBS에 대해서는 방미통위나 뭐가 생기면 무엇인가 서울시의회도 그렇고 새로운 협의를 해야겠지요. 일단은 TBS eFM 52억으로 잡시다.

○김현 위원 아니……

○박충권 위원 저는 둘 다……

○김현 위원 잠깐만, 내가 먼저 신청을 했어요.

봐 보세요, 최형두 간사님. 우리가 2008년도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들어서서 종편 4개 만들 때 법적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방송사를 좌지우지하지 않고 그냥 쪽 간 거예요, 지금까지도. TBS도 2019년 때 박원순 때 했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 방통위가 당시에 지상파 라디오 공영방송사로 허가증을 내줬으면 서울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방송국을 못 운영할 정도로, 그래서 1년 넘게 인건비를 못 받는 직원이 지금 150명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치권은 그 방송이 제대로 안 되면 방송심의를 통해서 조정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합법적 방식으로 해야지 시의회에서 조례를 폐지해서 지원금을 끊고요 그다음에는 행안부에서 또 지원하던 재단을 또 없애 버려, 출연기관으로 해제시키고 지금 그 직원들이 무슨 정파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이 외국어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것을 올해 해 주고, 올해 80억만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화가 되면 나머지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서울시……

○김현 위원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요, 이것은.

○최형두 위원 저는 TBS가 유일하게 독립재단으로 방송되는 곳이 지금 서울밖에 없습니다. 교통방송도 광주도 있고. 광주도……

○김현 위원 그것은 교통방송이 아니에요.

○최형두 위원 TBN.

○김현 위원 TBN이지, 다르지.

○최형두 위원 그러니까 도로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로공단에서?

○김현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거지요.

○최형두 위원 서울도 서울도로공단에서 인수하면 되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왜 TBS만 별도 지위를 유지합니까?

○김현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뭐 쌍팔년도로 세상이 돌아갑니까?

○최형두 위원 쌍팔년도라니요. 이것 제대로 했으면……

○김현 위원 박정희 정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최형두 위원 아니, 교통방송이 교통방송 하지 않고 생긴 일 아닙니까? 그리고 TBS eFM은 그나마 지금 라디오로 이것은 독자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으로 인정해서라도 우선 해 놓고, TBS는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매일 이렇게 찢끔찢끔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TBS가 무슨 어디……

○김현 위원 방미통위가 정상화되면 이것 논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형두 위원 오늘 일단 TBS 52억……

○소위원장 조인철 제가 좀 여쭙볼게요. 지금 보면 프로그램 제작 기반 조성 35억이 됩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내역 말씀하십니까?

○소위원장 조인철 내역에 보면 80억짜리에 프로그램 제작 기반 조성이라는 게 뭐 하자는 거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기반 조성에 지금……

○소위원장 조인철 장비 사자는 거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임차료……

○소위원장 조인철 뭘 임차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왜냐하면 지금 TBS가 서울시에 근무를 임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밀려 있습니다. 출연 기관 해제를 하면서부터……

○소위원장 조인철 서울시에 임대료 좀 나중에 내도 되는 거고, 그런다고 해서 쫓아낼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그게 얼마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그게 한 20억 지금 편성……

○소위원장 조인철 임차료가 20억, 밀린 것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예.

○소위원장 조인철 그리고 15억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이 방송 제작과 관련된 인건비 9억 그다음에 관리인력 이것 공통 부분해서 eFM만 하는 관리인력 부분이 4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재 부분이 2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게 15억이다 이 말씀이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20억이 임대료고 나머지가 인건비하고 이런 게 15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박동주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60억으로 하지요.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60억이 아니고 57억.

○최형두 위원 TBS에 대해서는 또 걱정하는 것이 우리 당의 걱정도 솔직히 좀 들어 주십시오.

지금 그동안……

○김현 위원 eFM이야.

○최형두 위원 eFM이 아니고 지금 변상옥이라는 이런……

○김현 위원 그거는 유튜브예요, 유튜브.

○최형두 위원 방송을 하지 않고……

○김현 위원 유튜브라고요.

○최형두 위원 그래서 앞으로 TBS는 어떤 방송으로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것도 없이, 반성도 없이 서울시……

○소위원장 조인철 제가 좀…… 감사님……

○박충권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조인철 예, 말씀하십시오.

○박충권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7억, 54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둘 다 원안 유지입니다. 계속 두 분이 얘기를 하셔도 어차피 합의는 안 될 겁니다. 방발기금 그렇지 않아도 2030년부터는 공자기금 차입금 상환도 불가능할 정도인데 또 다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들여 놓는 그런 일을 없는 방발기금을 가져다가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수진 위원 저도 한말씀하겠습니다.

저도 반대고요. 이것은 시의회의 결정 사항이고 행안부가 다 엮여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일을 임의로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합의하고 원칙, 원리대로 그대로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입니다.

○최형두 위원 저도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뭐하고 뭐 사이의 표결인지 좀 알려 주십시오.

○소위원장 조인철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7번으로 해야 되지요? 그러면 8번은 없어지는 거고. 7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이해민 위원 7번 이것 전체?

○소위원장 조인철 예.

○이훈기 위원 아니, 8번은 없어진 거예요?

○최형두 위원 8번은 80억, 7번은 78억, 74억.

○김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작 기반 조성 중에 20억 임차비용 못 내는 것을 양보하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반대하는 거잖아요, 전체를 다.

○최형두 위원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소위원장 조인철 두 분이 반대하시는 거니까. 지금 뭐 합의가 안 됩니다.

○최형두 위원 우리 당 위원들에 따르게요. 이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가 없고……

○김현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훈기 위원 7번에 대해서 오, 엑스라는 거예요, 지금?

○김현 위원 원안 교수야, 원안 교수.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면 57억으로.

○김현 위원 그럴 필요가 없지요, 이러면.

○소위원장 조인철 57억이 아니고 60억이네요, 60억.

○김현 위원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어차피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그거야 우리가 봐두고 하는 거야 얼마로 놓고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김현 위원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님하고 간사가 7번 했는데…… 위원장님 처음으로 이름 등장했는데 지금, 최민희 위원장님이.

○소위원장 조인철 그런가요?

○김현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조인철 그러면 7번에 거수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최형두 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거기는 어차피 의견 냈고요.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7번에 대해서 거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냐고.

○김현 위원 아니, 안 된다잖아요, 지금 간사님이. 아까도 ……

○최형두 위원 안 된다니까, 반대한다니까.

○소위원장 조인철 아니, 그러니까 7번에 대해서 거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냐고.

○최형두 위원 거수합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7번에 찬성하시는 분?

○이훈기 위원 아까는 7번으로 하자 그러시지 않았어요?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대를 얘기했잖아요.

○최형두 위원 7번 반대를, TBS eFM만 하자 그랬더니……

○소위원장 조인철 안 하시는데, 두 분이 절대 반대를 하시니까.

○김현 위원 아까 전에는 이중의 일부를 제안을 하셨는데……

○최형두 위원 영어방송만 하자는 것인데 그것도 지금 여기 반대하는 데다가 또 의견도 그것만 받아들일 테도 아니고……

○소위원장 조인철 두 분은……

○김현 위원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조인철 잠깐만요. 두 분은 아까 최 간사님이 하시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최수진 위원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충권 위원 다른 것은 다 합의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안 됩니까?

○최형두 위원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지요.

○박충권 위원 이 정도면 뭐……

○소위원장 조인철 더 이상 저도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7번에 대해서 거수 투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 표결)

그러면 7번 74억 8000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 또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부대의견 내용이 있는데요, 문안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소위원장 조인철 아까 다 볼 필요 없었잖아요.

정리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부대의견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형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인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을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4인, 반대 3인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과방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경미한 수정과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제1차관, 2차관, 혁신본부장 그리고 방미통위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원안위 사무처장, 우주항공청 차장,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한국교육방송공사 부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직원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위 직원, 속기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 현 박충권 이해민 이훈기 조인철 최수진 최형두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원 이재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구혁채

제2차관 류제명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전파정책국장 오용수
 과학기술정책국장 조선학
 정책기획관 전영수
 국제협력관 황성훈
 기초원천연구정책관직무대리 윤경숙
 공공융합연구정책관직무대리 이우진
 연구성과혁신관 이은영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이진수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김민표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소프트웨어정책관직무대리 이상민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박태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통신정책관직무대리 홍사찬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직무대리 곽병진
 국립전파연구원
 원장 정창립
 중앙전파관리소
 소장 최준호
 국립중앙과학관
 관장 권석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곽진희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서정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조정아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최수진
 안전정책국장직무대리 장현아
 방사선방재국장 김성규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

기획조정관 이재형

우주항공정책국장 권현준

우주항공산업국장 한창현

우주수송부문장 박재성

항공혁신부문장 김현대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김우성

경영본부장 정국진

경영관리국장 조재천

한국교육방송공사

부사장 김성동

정책기획센터장 홍정배

경영지원센터장 곽태규

임시회의록